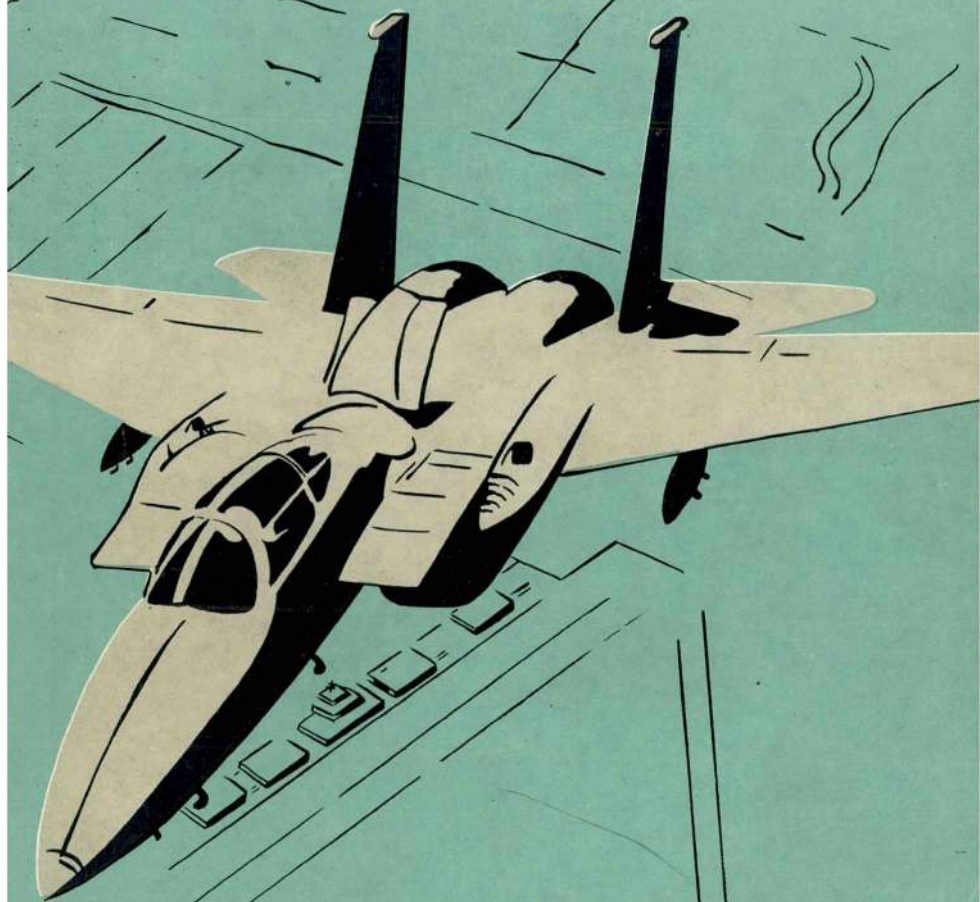


# 공군



1979

##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 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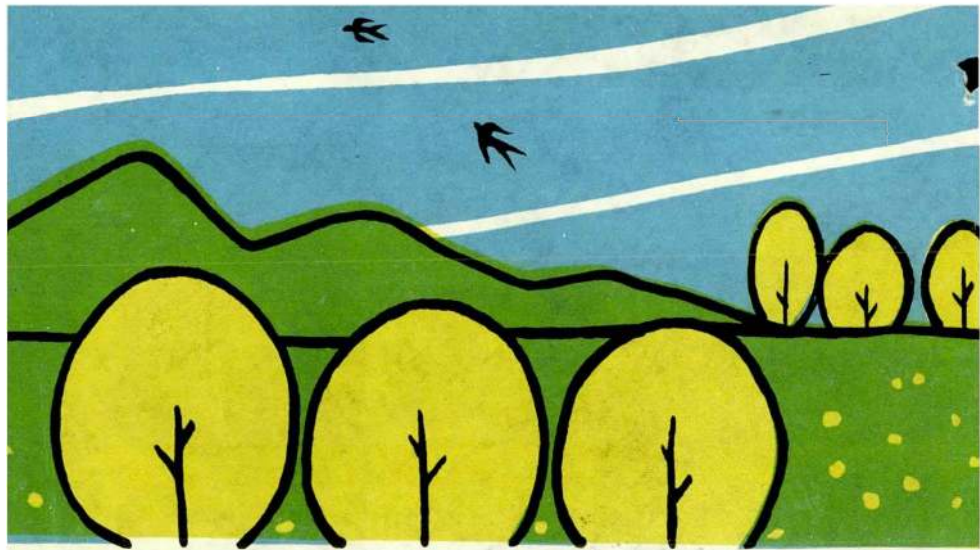


朴大統領閣下 動静



論示와 격려를 하시는 朴大統領閣下(4, 4)  
空士 第27期 졸업식에서 任官된 「보라매」 들에게





공군 제 166 호

卷頭言

就任辭

美·中修交의 意味와 韓國

〈特 輯〉

民族中興의 当面課

- 平和統一과 南北對話
- 國民生活 安定과 持續的 成長
- 福祉의 理想과 現實
- 精神文化의 意味

3·1 運動精神과 歷史的 教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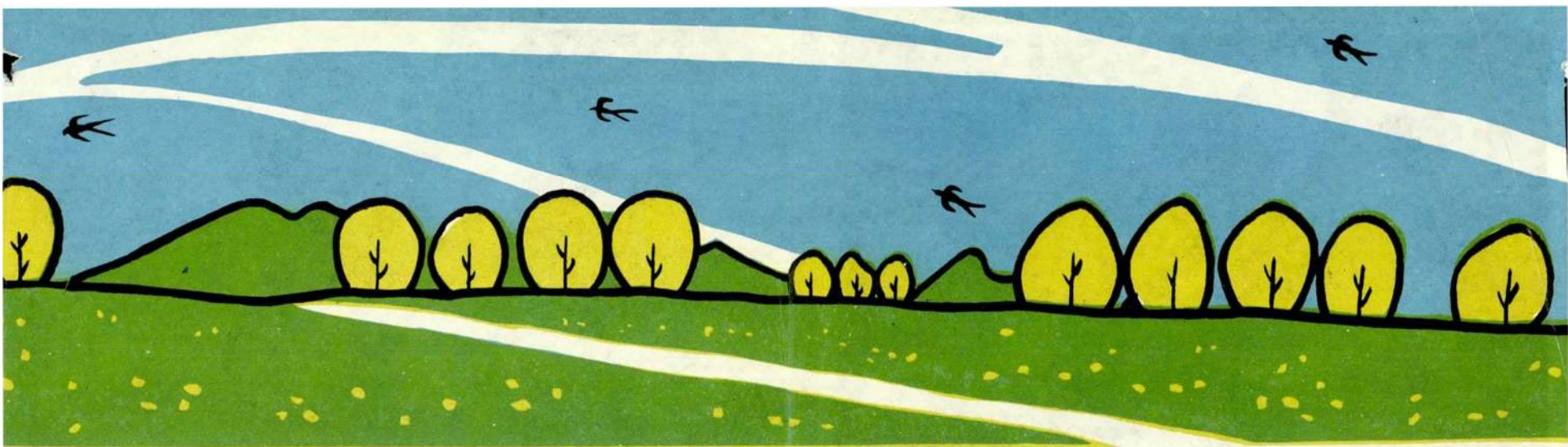
軍人의 死生觀

北傀集團의 對南戰略 性格

北韓의 異質化 實態

韓國과 美國 앞으로의 時代





표지화·차례화...최 영 컷·삽화...정 운섭

訓監 金元起 (2)  
 總長 尹子重 (4)  
 ... 閔丙天 (8)  
 ... 尹宗鉉 (14)  
 ... 申奉植 (22)  
 ... 李海英 (28)  
 ... 金哲垓 (34)  
 ... 元裕漢 (40)  
 ... 馬郁 (48)  
 ... 尹亨鎮 (53)  
 ... (70)  
 ... (61)

北韓側이 노리는 南北對話의 底意..... (84)

空軍漫像 ..... 鄭雲燮 (98)

〈航空·軍事·科學〉

- 空中警報管制体制 AWACS..... 梁宸錫 (89)
-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군사대비체제..... 崔在九 (100)
- 最新銳 戰鬥機 F-18 HORNET..... 尹炯基 (111)
- 增大되는 蘇聯爆擊機의 威脅..... 盧昇濬 (123)
- 氣象業務의 自動化..... 李龍鳳 (131)

詩 · 님의 沈默..... 韓龍雲 (138)

特別連載 = 統一問答 = ..... (150)

忠武公의 生涯와 思想 < 1 >..... (139)

단 黎 明..... 아나톨·프랑스 作·金平宇 譯 (160)  
 편 勤 親 記..... 金東里 (168)



(慶) 제 14 대 尹 子 重 大將 就任 (祝)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이·취임식이 지난 4월 18일 국방부장관을 비롯 国会 国防分科委員長과 국방위원,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유엔군司令官 등 군 고위 장성과 역대 참모총장 내외 귀빈 그리고 전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본부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訪韓 중인 존·C·스테인 美 空軍長官과 버나드·W·로저스 美 육군참모총장을 접견하고 保國勳章 統一章을 수여하고 계시는 朴大統領 閣下 (4. 4.)

제34회 植木日을 맞아 나무를 심으시는 朴大統領 閣下 (4. 5.)



신임 尹子重 參謀總長이 盧載鉉 國防部長官으로부터 공군기를 수여받고 공군의 지휘권을 이양받았다.





취임사를 하고 있는 신임 尹子重 參謀總長



공군 제2사 2기 졸업식에서 시상하고 있는 노재현  
국방부장관 < 4. 20. >





# 공군

제 166 호

1979년 제 2호



◇ 軍人の 道 ◇

나는 榮光스런 大韓民國 軍人이다.

하나, 나의 道는 忠誠에 있다.

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道는 勝利에 있다.

不屈의 鬪志와 戰技를 닦는다.

하나, 나의 道는 統一에 있다.

期必코 共產敵을 쳐 부순다.

하나, 나의 道는 軍律에 있다.

엄숙히 禮節과 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道는 團結에 있다.

指揮官을 核心으로 生死를 같이 한다.

## 豊饒를 위한 슬기

政訓監 空軍准將 金 元 起

세계의 많은 學者들은 數年前부터 날로 增加하고 있는 人口와 高度의 經濟成長으로 점점 더 많은 資源과 資本이 必要하게 됨에 따라 地球의 有限한 資源과 人類의 將來에 關하여 研究를 繼續하여 왔다.

1971年 스위스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의 Dennis L. Meadows 教授 팀이 人類에게 앞으로 닥쳐 올 危機를 可能한 限 回避하여 보고자 研究 作成한 報告書 「成長의 限界」(The Limits to Growth)에는 世界の 人口, 工業化, 食糧 生産 및 資源 使用의 現在와 같은 成長率이 변하지 않고 繼續된다면 돌아오는 100年 以內에 地球上의 成長은 限界點에 이르게 되고 人類는 破滅의 危機에 處하게 될 것이라고 警告하고 있다.

人間은 自然 속에서 生을 維持하며, 또 이 自然 속의 많은 資源을 開發하며 利用하여 보다 便利하고 福된 生을 누리려고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有用한 資源은 限定되어 있으며 점점 더 높아가는 消費率에 反比例하여 減少率이 커져 가고 있다는 점에 問題의 深刻性이 있는 것이다.

물론 消費와 並行하여 새로운 資源의 開發이 期待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開發의 展望이 不確實한 未知의 資源에 人類의 將來를 맡긴다는 것은 바로 오늘의 삶만을 위해 來日의 삶을 拋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地球上의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는 이제까지의 消費生活에 대한 反省과 함께 節約을 美德으로 삼는 새로운 生活氣風이 일고 있는 것이다.

節約이란 말은 쓸데 없는 것에 費用을 내지 않고 꼭 必要的인 데에만 쓴다는 뜻이다.

본래 人間의 欲望은 無限하며 그것이 充足되었을 경우에만 우리에게 快感을 주는 것이기에 끝없이 追求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欲望의 奴隸가 되어 分數에 넘는 奢侈와 浪費, 그리고 放縱으로 敗家亡身の 不幸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本能的인 欲望 또는 衝動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냉철한 理性 내지 知性을 所有하고 있다. 前者는 動物의인 面으로서 刹那的인 現在에 盲目的으로 사로 잡히게 만드는 素質이며 後者는 人間에게만 있는 固有的인 素質로서 人間으로 하여금 過去를 反省하여 보고 未來의 可能性을 取捨選擇하여 過去와 未來를 잇는 現在를 보다 福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能力이다. 節約의 美德은 바로 이 理性의 힘에 의하여 本能的인 欲望이나 衝動이 적절하게 節制되어 生活面 特히 經濟的인 生活面에 反映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결코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來日로 끊임없이 連續되어 가는 것이며 더구나 우리의 代로 그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子孫孫으로 永續되어 가는 것이다.

「節約하면 적게 거뭇도 남음이 있고, 사치스럽게 쓰면 많이 거뭇도足하지 않다」는 말처럼 節約하는 습기가 우리 世代의 幸福을 위해서는 물론 後孫들의 보다 더 豐饒하고 幸福한 삶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必要的인 것이다.



## 就 任 辭

參謀總長  
空軍大將

尹 子 重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국방위원장님, 국방위원님, 합참의장님, 베시장군님, 각군 총장님, 역대 참모총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오늘 명예에 의하여 본인이 공군 참모총장에 취임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불초 본인이 공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하기까지 각별하신 사랑과 지도로서 이끌어 주신 상사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망의 80년대를 기약하는 민족사의 분수령에 서서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민족중흥과 조국의 영광된 앞날을 바라보며,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본인이 공군의 지휘권을 맡게 되어 그 사명의 막중함을 깊이 통감하면서 영명하신 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과 자주국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받들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이제 명예롭게 군문을 떠나시는 주 영부장군님은 공군 발전에 모든 정열을 바치신 역전의 용장으로서 공군사에 길이 빛날 찬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재임기간 중에는 필승공군의 기치 아래 장병들에 대한 뜨거운

---

사랑으로 전력증강과 현존전력의 극대화라는 공군의 당면과제 달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풍부한 지식과 높은 덕망 그리고 강력한 지휘통솔로서 최선에 항공기의 도입, 신기지 개발, 각종 시설의 보강, 새로운 무기체제의 확립 등 수많은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신 공로는 우리 공군장병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 장군님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석별의 인사를 나누게 됨을 전장병과 더불어 아쉽고 섭섭한 마음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비록 공군을 떠나실지라도 계속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

북괴는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의 염원과 우리의 노력을 외면한 채 전쟁도 발을 위한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켜 기습남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더우기, 작금의 국제정세는 열전과 냉전이 거듭되는 혼미 속에서 우리에게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배양하여 안보의 요체인 공군력을 주축으로 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하는 지상과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북괴의 끈질긴 위협과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공방위에 만전을 기하여 조국하늘의 불침번으로서 촌각의 방심이 나 헛점도 없는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의 적의 도발에도 즉각 발진, 초전에 기선을 제압하고 섬멸할 수 있는 필승의 제공태세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정밀과학 장비의 효율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을 과감하게 수행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책임을 완수하여 필승의 제공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곧 유비무환의 정신인 것입

---

---

니다.

또한 우리는 전력증강을 위해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해 온 결과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았으나 복귀가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을 더욱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추진하여 질적인 면은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복귀를 완전 제압, 무력적화통일의 헛된 야욕을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까지 가일층 분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오로지 강인한 정신력과 일기당천의 투지를 바탕으로 한 확고부동한 필승의 신념으로 이룩되는 것입니다. 장병 여러분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신명을 바칠 수 있는 애국충정과 올바른 시국관을 견지하여 의지의 대결에서 적을 압도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의 극대화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장병 여러분!**

이와 같은 필승의 제공태세확립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공군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인화하고 단결해야 하겠습니다. 단결은 창군 이래 공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서 장비가 아무리 현대화되고 전기가 연마되었다 하더라도 전력발휘는 조종, 정비, 통신, 무장 등 각 특기별 요원의 긴밀하고 조화된 체제 운영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군의 특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화단결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소아를 버리고 「우리」라는 대아에 사는 희생정신과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며 상관을 존경하고 부하를 사랑하는 기풍으로 군의 명맥이며, 생명과 같은 군 기강을 확립하여 부여된 공동의 목표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때 비로소 인화단결은 이룩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출신수범과 자발적인 복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스로 임무를 완수하는 정신이야말로 군기의 기본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

아울러 국민의 정성 어린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반 물자와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과학적인 군 운영에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검절약하는 검소한 생활태도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처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군인의 자세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대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선배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찬란한 전통을 계승하여 창설 30년의 역사를 지닌 장년 공군으로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본인은 이 순간부터 장병 여러분과 더불어 본인의 이같은 소신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대통령 각하의 탁월하신 영도력을 받들어 우리 공군을 세계 최강의 공군으로 성장시키기에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장병 여러분은 새로운 각오로 씩씩하고 용감하고 깨끗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공군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공군의 육성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육·해군 전우의 지속적인 협조 그리고 미 공군의 우의 넘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떠나시는 주영복 장군님의 앞날에 항상 신의 가호와 함께 영광이 깃들기를 빌면서, 취임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序 言

美國과 中共은 79년을 기하여 國交를 수립함으로써 30여년간의 敵對關係를 청산하였다. 그것은 비단 두 나라간에 外交關係가 수립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東北亞는 물론이고 世界秩序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뜻을 지니는 事件임에 틀림 없다.

우리가 두 나라간의 修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의 核心友邦인 美國과 敵의 최대우방인 中共이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和解하고 協調한다는 것은 우리로 보아서는 매우 중요한 周邊狀況의 變化가 될 것이다. 兩國이 모두 南北韓과 자기 「同盟」을 맺고 있는 바 그들의 和解는 「同盟體制」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도 할 것이다. 修交에 따르는 南北韓의 關心은 바로 그 점에 있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修交와 관련된 우리의 立場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本稿는 美·中修交에 따라 韓國安保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美·中關係의 變遷過程을 살피고 兩國修交의 意味를 밝히므로써 關係에 대한 展望을 하면서 영향을 뽑아 보기로 한다.

# 美·中修交의 意味와 韓國

閑 丙 天

△東國大 行政大學院長兼 安保研究所長▽

가 최상의 生存要件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에 따르는 희생을 경계해야 될 것이고 自決主義

우리는 美·中修交와 관련하여 強國利己主義

## 2. 美·中關係의 變遷過程

두 나라의 관계는 第2次 大戰後부터 본격적으로 맺어져 왔다. 그 이전에는 매우 단편적인 접촉만이 있었을 뿐이다. 大戰後의 兩國關係는 다음의 몇 단계를 거치면서 맺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第1段階는 大戰後부터 中共이 大陸을 석권할 때까지로서 이 시기에 美國이 취했던 기본입장은 國民黨政府와 共產黨勢力의 合作 또는 조정을 꾀하는데 있었고 兩者關係도 그러한 테두리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大戰後에 중국대륙에서 內戰이 다시 일어나자 美國은 다음의 세 갈래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 ① 中國大陸問題에 대한 不介入
- ② 中共擊滅 위한 國民黨에 대한 적극 지원개입
- ③ 國共調整에 의한 內戰終熄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세 갈래 길 중에서 美國은 세계의 길을 이 시기에 택하였다. 그 길을 택한 美國은 여러 차례에 걸친 國共調整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國共合作은 1924년과 1937년에 이어 세번째로 1947년 이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國共調整(合作)은 곧 깨지고 다시 內戰이 일게 되었고 그 뒤 2년만에 中國은 공산세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말았다.

第2段階는 中共政權樹立에서 한국전쟁이났을 때까지의 1년간으로서 이때 美國이 취한 對中共政策은 비교적 중립적인 靜觀政策이었고 兩國關係도 미정립의 애매한 것이었다.

1950년 1월에 美國의 트루만大統領과 애치슨長官은 中國問題에 대한 불간섭과 臺灣을 防衛線밖에 둔다는 것들을 뚜렷이 하였던 것이다.

第3段階는 韓國戰爭이 진행되던 시기로서 이때의 兩國關係는 정면대결의 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韓國戰爭이 나자 트루만 大統領은 「대만의 지위는 太平洋地域의 안전과 결부됨」을 밝혀 대만문제에 대한 中國人의 自決보다 美國의 介入을 시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兩國은 韓半島에서 3년간에 걸친 전쟁을 치루었던 것이다. 戰爭이 진행되는 동안 美國은 51년 2월에 유엔에서 中共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를 주도하였고 대만해협을 봉쇄하였다.

第4段階는 韓國休戰에서 1970년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에 두 나라는 敵對속의 對話를 하여 왔다.

兩國의 대화는 1955년 中共이 대만해협에 위치한 江山島를 점령하는 군사행동을 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58년부터는 제네바에서 그 뒤에는 바르샤바에서 계속되었고, 70년대에 兩國의 관계가 본격화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대화가 있기는 했으나 兩國關係가 이 시기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60년대에 들어 오면서 두 개의 中國論이 하나의 中國과 하나의 대만으로 바뀌고 「고립없는 봉쇄」가 60년대 중반부터 채택되면서부터 약간씩 兩國의 交流와 和解의 싹이 텄던 것이다.

第5段階은 71년부터 78년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는 兩國의 和解時期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닉슨 大統領은 對決에서 對話로의 방향 전환을 하고 중공봉쇄를 완화하면서 71년 2월에는 中共의 공식국호를 사용하고 중공여행제한을 철폐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中共은 4월 7일 美國의 탁구팀을 초청하였고 美國은 28일에 「대만과 평화도가 장차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71년의 키신저의 中共訪問이 있던 뒤 72년 닉슨 大統領이 방문하고 73년에는 大使級의 교환이 있게 됐고, 그 뒤에는 급속한 和解가 계속되고 협력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기조차 했던 것이다.

第6段階은 79년부터 그 뒤의 상당기간으로서 이 시기는 協調 속의 共存으로 특징지워질 것이다.

두 나라는 78년 12월에 79년 1월 1일부터 국교를 맺을 것을 발표한 뒤 政治關係를 수립하였던 것이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兩國關係는 상당한 범위와 수준까지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 3. 美·中修交의 意味와 韓國

앞에서와 같은 歷史過程을 거쳐 美國과 中共의 두 나라는 國交를 맺게 되었는데 바 그것이 지니는 意味는 무엇이고 韓國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美·中修交가 역사상황과 주변의 국제환경의 産物이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첫째, 소련의 勢力膨脹에 대해서 封鎖의 싹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뜻을 찾을 수 있다.

美國의 첫째의 敵은 소련이고 中共도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그 소련이 美國의 아시아로부터의 後退에 뒤 따라 극동에서 勢力을 급증시키려 하기 때문에 美·中이 공동전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美·中修交는 소련의 南進 沮止線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美·中修交로 中共은 대만지역에 대한 警戒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적어도 약 40개 사단의 中共軍이 廣東 등의 남쪽으로부터 북쪽(中·蘇國境)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美國이 아시아에서의 不利한 위치를 극복하고 撤軍에 따르는 이익의 손상을 막아 주는 의미가 있다.

美國은 유럽에서 NATO國과 공동으로 소련에 대처할 수 있어서 2대 1의 유리한 위치에서 국제정치를 주도하고 있



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반대로 1대 2의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中共과 修交함으로써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똑같이 2대 1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美國은 中共의 양해없는 撤軍을 할 때 아시아에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막으려면 中共과 修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새해, 東北亞의 강한 冷戰秩序가 무너지고 四強間의 공존질서가 제도화되는 것을 뜻한다.

두 나라가 修交를 하기까지는 形式論理的으로 본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敵國의 관계인 것이다. 냉전관계가 극에 이르렀던 韓國戰爭에서 두 나라는 전쟁을 했고 越南에서는 간접전쟁을 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빈번히 대결하고 있었다.

對決關係가 70년대에 화해관계로 발전되어 왔으나 修交로서 그것은 共存關係로 발전되었다. 이제 共存秩序가 제도화된 것이다.

베제, 南北方에 각각 형성되어 있는 集團安保體制가 간접적인 변질을 하게 되고 韓半島問題가 국제문제라는 성격에서 서서히 벗고 점차로 局地問題化하는 계기가 왔음을 뜻한다.

美國은 한국과 中共은 북한과 각각 集團安保條約을 맺으면서 南北으로 직접 대치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條約支援의 核心國인 두 나라가 修交로 和解關係

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集團安保에 의한 兩極의 對決은 실제로 변질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修交의 意味를 살피는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암시되었거니와 修交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1972년 닉슨 大統領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 韓國指導者들은 權力政治 속에서 홀로 버려져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졌듯이 美·中修交는 새로운 試驗이며 方向設定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주는 영향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첫째, 전반적이고 中·長期的인 면에서 볼 때는 韓半島의 安定化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졌을 때를 보면 언제나 美·中關係가 악화되었을 때였다는 歷史의 예에서 보더라도 개선을 뜻하는 修交는 緊張緩和를 한반도에 안겨다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나라가 南北韓에서 갖는 위치로 보아 修交로 한반도의 긴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中共은 북한에 대해서 중공이 딱한 實用主義的인 外交方式을 따라 조속히 경제적 발전을 꾀하도록 종용할지도 모른다.

둘째, 四強의 남북한에 대한 고차적 접근이 증대하면서 美·中의 韓半島問題에 대한 발언권이 커질 것이다.

美·中修交는 日本의 북한접근을 촉진

하고 韓國의 中·소접근을 자극할 것이 확실하다. 그에 따라 北韓의 美·日·韓에 대한 태도도 훨씬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共存化가 촉진되게 될 것이다.

세계, 南北韓의 自決意志에 따르는 自衛政策이 강화됨으로써 南北의 힘의 대치에 의한 긴장은 지속될 것이다.

작은 나라인 南北韓의 입장으로서의 자기를 지원해 주던 強大國인 美·中이 強國利己主義에 따라 他國을 냉혹하게 회생시킬지 모른다는 不安感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自決과 自衛의 강화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북으로부터의 위협은 줄어들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네째, 우리는 中共과 장기적으로 볼 때는 經濟協力을 크게 늘일 수 있겠으나 새로운 競爭者를 맞게 될 것이다.

中共의 농산물과 섬유제품은 매우 싼 값으로 美國과 日本市場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 美·日の 자본가들은 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탐내 中共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에 따라 韓·中兩國은 날이 갈수록 심한 商品競爭을 벌이게 될 것이다.

美·日の 한국에 대한 投資忌避가 있게 될 때는 그들의 한국에서의 利益이 늘지 않는 결과를 가져 온다. 利益이 적

은 곳을 지킬 필요를 느끼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經濟는 安保로 발전되는 것이다.

다섯째, 소련이 中·日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할 것이지만 北韓에 대한 支援을 증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中共이 그의 「公敵」인 美國과 협조하고 修交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며 약간은 서운함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소련이 이용하여 北韓을 장악하려 하고, 中共은 또 그를 나름대로 北韓의 비위를 맞추려 한 것이기 때문에 北韓에 대한 두 나라의 경쟁적인 武器 또는 經濟協助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71년 美·中接近이 본격화할 무렵에도 中·소의 경쟁적인 對北武器支援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소련이 MIG-23과 같은 고성능의 攻擊用 戰爆機를 조종하는 훈련을 北韓에게 시키고 있다는 報道는 그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東海에 연한 北韓의 항구가 소련과 특별한 관계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보도도 주목하게 된다.

#### 4. 結 言

이상에서 美國과 中共이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하여 왔는가를 살피고 修交의 意味와 修交에 따르는 영향을 安保的 側面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修交가 우리의 주변질서를 새롭게 형성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됨을 엿볼 수 있

었다.

그리고 修交가 주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게 될 것임을 생각할 수 있었다.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면에서 본다면 한반도의安定과 平和에 기여하지만 보다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면에서 평가할 때는 오히려 試練과 威脅要素를 안기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두 強大國의 修交가 肯定的인 영향을 주든 否定的인 영향을 주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 틀림 없다. 우리는 美·中修交와 관련하여 強國 利己主

義에 따르는 희생을 경계해야 될 것이고 自決主義가 최상의 生存要件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共產圈이나 북한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國家를 유지하고 民族의 將來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實力主義를 중요시할 수 밖에 없다. 平和와 平和統一을 주도하고 強大國에 의한 희생과 설움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한다. 自決主義와 實力主義에 중점과 바탕을 둔 美國과의 協力 및 共產圈과의 관계개선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믿는다.

### <북한 실화>

## 두 개의 큰 무덤

반미(反美) 선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 신천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 주위에는 구름처럼 큼직한 두 개의 무덤이 있다.

북괴는 「어린이 묘」와 「어머니 묘」라는 커다란 무덤을 만들어 놓고, 미군이 진주할 때 죽인 수백명의 목숨이 묻혀 있다고 거짓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무덤은 공산당 빨치산들이 주인들을 대량 학살한 것을 선동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民族中興의 當面課題

平和統一과 南北對話

호위하고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으로 北傀의 策略을 봉쇄해야 하며 對話의 前程을  
우리는 平和統一을 위하여 忍耐와 誠實과 全力

尹 宗 鉉

△韓國日報論說委員▽

< I >

平和統一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날로 그 필요성을 加乘시키고 있다. 비단이 목표가 우리 온 겨레의 숙원이라는 차원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국제정세는 분명히 韓半島 平和統一의 「韓國化」를 지시하고 있다. 분단이 他律에서 온 비극적 현상이기는 하나 이제統一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해결될 것 같은 시대는 지났다.

美·蘇 냉전체제를 벗어 多元化한 국제사회질서나 力學관계는 물론 韓半島에 대한 周邊 4強의 질은 利害관계 그리고 성장한 우리의 主體性和 力量증대는 남들의 合議같은 것으로 平和統一을 실현시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統一문제는 이미 陣營間鬭爭의 일부라는 성격을 벗어났고 그에 대한 1차적 책임이 韓國民의 의지와 손에 반환된 것이다. 정세의 대변화라고나 할까.

좀 더 생각을 보태 보면 원래 나라와 겨레의 政治的·社會的·文化的 통일은 남에게 기대어 추구하는 자체가 어리석다.



또 그런 統一이라면 실사 이루어진다 하여도 기반이 약하고 어떤 재 부담을 지고 넘어가게 마련이다.

우리의 統一문제처럼 民族內部的 갈등을 근원적으로 解消시켜야 할 경우는 특히 그렇다. 슬픈 일이지만 他律分斷이래 우리의 南北관계는 너무나 異質化하고 對立的이다.

바로 이런 現實을 말끔히 씻으면서 平和統一을 실현시켜야 한다. 따라서 그 앞길이 아주 멀고 험난하며 여기 우리 平和統一문제의 남다른 특징과 고민은 있다 할 것이다.

葛藤의 해소란 곧 平和의 內實이 구현됨을 뜻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하는 「平和統一」의 경우 그 내용과 개념부터 똑똑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平和의 方法이나 手段에 의한 통일만을 가리키는게 아니다. 平和와 統一을 공동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돼야 한다. 바꿔 말하면 武力行使에 의거하지 않은 「平和의 方法」뿐 아니라 統一의 목적 자체가 안으로 平和를 구현·보장시키는데 있고 나아가서 밖으로 주변 東北亞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내면성이 갖추어져야 함을 일컫는다.

여기 흔히 「平和統一」은 곧 「平和의 方法에 의한 통일」로만 받아들여서는 見解를 더 발전시켜야 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며 統一문제가 統一자체의 목적으로 종결시킬 수 없는데서 우리의 統一은 더욱 위대한 슬기와 인내 분발협력을 또한 요구케 된다.

분단 30년간의 南北實情은 너무나 계속 달라졌다. 그 과정에서 同族상쟁의 비극마저 치렀다. 오늘의 現實을 아무리 좋게 표현하려 해도 「敵對的 共存상태」라고 하면 고작일 것이다.

이런 판국이면서도 統一이 5천만 民族의 念願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民族社會의 理想을 全半島 안에 펼쳐, 온 겨레 누구나 「의종고 풍요하게 잘 살 아보자」는 民族의 連帶意識이 바탕에 깔려 있는 까닭에서다.

統一에서 希求하는 참다운 民族社會의 價値實現이란 平和상태의 구현으로 다된 것은 아니다. 民族구성원 누구나가 한 國民과 個人으로서 自由를 누리고 참가하는 民主의 政治질서가 확립돼야 한다. 그 구성원에게 惠澤의 증가가 따르는 福祉社會를 이룩해야 한다. 줄여 말하면 民族구성원 모두를 위한 平和主義·民主主義·福祉主義에 기초를 둔 體制的統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 II >

體制的 내면성을 이렇게 갖추면서 民族社會實現을 추구해야 할 정당성은 얼

마든지 있다. 南北韓。주민은 원래 모두 平和的인 단일민족으로서 긴 歷史를 가진 韓民族의 후예들이다.

그 歷史는 人間의 自由를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과 싸움으로 엮여져 왔다. 專制政治로부터 백성·시민을 해방시키고 日帝의 植民地支配와 억압으로부터 民族의 自由·獨立을 찾으려고 혈투를 서슴치 않았었다. 또 8·15와 더불어 닦쳐온 國際共產獨裁위협이나 침략을 막차고 오늘의 民主체제를 확고히 지키기도 하였다.

北韓집단의 統一觀은 이런 正統性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있다. 全韓半島에다 共產獨裁체제를 세우려는 政治목표에 기초하여 동족상잔을 불사하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北傀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南朝鮮에서 美帝를 몰아내고 現政府를 뒤집어 엎고 革命的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혁명을 통하여 『南朝鮮에 참다운 人民政權이 서면 北半部의 社會主義力量과 南半部의 애국적 民主力量(容共人士)의 단합된 힘에 의해 統一은 실현될 것』이라는 따위 그릇된 戰略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이런 統一觀은 全韓半島의 共產化라는 統一像을 가지고 방법상 『南朝

鮮革命』과 『祖國統一』문제를 연결·「先革命」·「後統一」을 한 후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를 주장하는 國際공산주의 赤化체제를 韓半島에 확장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北傀는 民族통일을 論하면서 階級的의 分化·分裂을 획책하고 民主化사조가 歷史的 正통성에 맞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면서도 굳이 이를 외면, 統一戰線 進술에 의한 對南赤化革命을 성급히 서두는 중이다.

그 목표와 방법이 非平和的임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民族의 堯원이나 가치와 상반되고 있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民族 내부의 갈등을 조용히 풀면서 統一과 平和를 성취시키는 길과는 전혀 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南北韓의 경우 한쪽이 한쪽을 征服·吸引하는 통일이란 이제 좀체로 바라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온갖 力量관계로도 그렇고 周邊強國들 또한 그런 방식의 통일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內外的으로 갈등의 後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같은 民族끼리의 統一노선 그대로 용인될 수 없는 수단·방법에 속한다. 오직 차분하게 相互異質로부터 同質性을 회복하고 감정의 反目으로부터 信賴의 理性을 되찾으며 상대를 破壞의 대상 아닌 救援의 對象으로 대응하려는 데서 그 平和·그 統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서는 방법은 그렇기에 아주合理的이고 現實的인 것이어야 한다. 쉬운 것으로부터 상응한 段階를 거치며 서서히 무리없이 問題狀況을 다듬고 풀어갈 일이다. 성급한 理想에 사로잡히기에 앞서 순리적인 實行性을 추구해야 한다.

對話는 이 모든 사항과 요건을 충족시키는 길이며 기틀이다. 平和와 統一로의 시발·전개·귀착을 바라보는 發電장치나 전배 없다. 벌써 그것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緊張은 누그러지고 平和의 무드가 잡힘을 뜻한다. 또 그것이 계속되기만 해도 統一을 내다보는 눈길은 한결 넓고 밝아진다. 그만큼 부푸는 전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 < III >

지난날의 南北對話經過는 웬만한 사람이면 그 줄기를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48년 4월의 이른바 「南北 제정당·사회단체 代表者連席會議」는北韓공산주의자들이 연출한 하나의 統一戰線공작이었다.

南으로부터 참가한 人士가 기계인에 지나지 않았고 「참가」나 「協議」 역시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南北韓政權이 모두 서기 전 일이어서 對話나 協商이니 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그 외에 굳이 會談이나 協議를 한 사

실을 쳐들자면 6·25 때의 休戰협상이 있었으나 이는 우리 南北間이 主體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軍事會談이라는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對話와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 54년의 「제네바」政治會談에 피차 外務長官級이 참가는 하였으나 이 역시 주체·규모·방식에 있어서 「國際會議」였을 뿐, 南北韓當局間會議는 아니었다.

오늘날 通念化한 南北對話라면 누구나 8·12聲明(71년) 이후 南北韓 사이에서 벌어진 赤十字豫備會談으로부터 그 本會談과 7·4共同聲明에 따라 생산된 南北調節委員會議 및 이들과 연관된 代表者會議·實務會議·連絡會議 등을 묶어서 연상케 된다.

물론 그 외에 새로운 對話기구나 진행은 雙方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朴正熙대통령각하의 1·19提案에 표명된 「어떠한 水準」의 대화라도 「當局間」에 열 의의가 있다는 대목도 이런 思案에 연유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 提案은 확실히 對話再開를 위한 호소력·설득력이 강한 것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수준에서든지 當局間對話를 열어 평화적으로 南北관계를 개선하고 統一을 앞당기도록 하자는데서 내외 모두의 呼應이 대단했으며 그에 따라 平壤집단이 이를 거부하기 난처하게 되었다. 때마침 밀어닥친 美·中共修交바람

과 카터·鄧會談의 실현기운 또한 북괴로 하여금 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정면으로 마다하진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순리적인 對話를 정상화시킬 수 없는 것이 北傀事情의 현황이다. 正常的인 對話는 그 자체가 벌써 평화스런 것이고 상대하는 두 主體·實體를 부각시키며 客觀化해간다.

對南赤化革命統一을 지향하는 北傀로서 이 모두가 매우 달갑지 않은 현상이고 작용으로 보게 마련이다. 긴장·폭력·무력과는 아주 상치하기 때문이다.

보래서 對話 스코어를 지배하기 쉬운 南北韓의 力量對比는 엄청나게 그들의 劣勢로 기울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진전되는 對話는 그들의 소위 「남조선혁명」과 통할 수 없을 뿐더러 不利하기 그지 없게 된다.

때문에 1·19提案과 對話 속개를 拒否는 해야겠는데 설불리 하다가는 내외로부터 「平和背反者」로 집중적 非難을 받으며 고립화당하기 쉬운 困境— 이를 헤쳐려는 궁여지책이 다른 아닌 그들의 「1·23祖國戰線聲明」이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對話에의 「表面呼應」이요 「裏面拒否」의 속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명분을 붙인 拒絶公式임과 동시에 변함없는 對南赤化革命策略을 숨

기고 있는 것이다.

## <Ⅳ>

「1·23聲明」을 파헤쳐보면 우선 그 제안을 한 「祖國戰線」이 南北對話의 한쪽 「상대자」로 될 수 없는 「失格團體」인 것부터 적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널리 지적된대로 그것은 단지 北韓內에 있는 1개사회단체 연합일 뿐, 7·4南北共同聲明에서 합의된 對話機構나 朴正熙대통령閣下의 1·19提案이 요구한 政權「當局」은 아니다.

그러므로 實効性 있는 對話를 추진할 능력은 물론 그 成果를 구현시킬 아무런 實權도 갖지 못하였다. 對話로써 앞당겨야 할 南北關係의 改善문제나 나라의 平和의統一과업이 非常大事에 속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그 不適格性은 더 설명할 나위조차 없다.

그들에 따르면 「祖國戰線」은 「노동계급과 농민의 공고한 同盟에 기초하여 전체혁명力量을 단결시킨 강력한 政治的組織體」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革命을 목적으로 뭉친 階級的·政治的 온갖 力量의 조직체며 투쟁체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실제 50년 6·25적진 「南北韓政黨社會團體會議」를 열어 統一協商을 하자는 위장평화선전으로 北傀집단의 南侵을 煙幕



으로 가려주었던 전위체가 바로 이 「조국전선」이었다.

72년의 7·4共同聲明을 제외하고는 이제껏 統一문제에 관한 제안이나 南北政黨社會團體會議소집 또는 對内外에 걸친 위장평화공세는 모두 이 단체의 이름으로 계속하였다.

특히 그 협상제안에선 北傀가 고집하는 「비협조분자」·「반동분자」와 「비민주정당」의 배제를 몇차례 서슴없이 주장하기도 했다. 統一戰線진술에 입각한 「남조선혁명」의 추구이자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책략인 것이다.

이런 經歷團體로 하여금 「全民族大會」소집을 제의케 한 北傀집단의 흉악한 의도는 뻔히 들여다 보인다. 그들은 이 「全民族大會」의 형식이 가장 『권위있고 폭넓으며 현실적인 對話와 協商的 方途로 된다』는 따위 설명을 가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 제안대로 南北韓의 여러 政黨·團體대표나 각계각층의 人士 그리고 海外동포들의 조직대표 및 개별인사가 참가할 경우 적어도 1천~3천명의 사람이 모이는 「群衆大會」형태를 이룰 것은 명백하다.

누구의 상식을 빌어도 이는 對話나 協商的의 참다운 方式으로 통할 수 없다. 7·4聲明에 규정한 對話기구보다 훨씬 實用性이 없을 뿐더러 어려운 南北관계개

선과 統一문제를 合理的으로 처리못할 일 또한 명백하다.

사실 「全民族大會」의 召集이란 매우 낡은 北傀의 政治脚本이다. 「南北政治協商會議」나 「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나 「大民族會議」나 하는 옛주장의 레코드판이다. 새 가락이나 새맛은 하나도 없는 古物에 속한다. 한때도 그런 集會만을 다시 고집하며 그 大會를 9월에 서울이나 平壤서 열 것과 그 豫備會談을 平壤에서 갖자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大會召集을 기어이 구체화시키려는 節次業務를 추진해가는 참이다. 「全民族大會」개최를 위한 豫備會談격인 「民族統一準備委」를 발족시키자고 요구(2월 6일 祖國戰線)하면서 그 모임에 協調한 것을 호소하는 不穩書翰을 무수히 送付하였다.

아울러 「民統準備委」의 결성협의를 위한 「連絡代表」를 板門店으로 파견·調節委副委員長長會議를 열고자 나간 우리측 代表들과 「變則對坐」를 계속하고 있으나 「祖國戰線」이라는 의무는 좀체로 벗을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平壤측은 아직 거듭되는 「變則對坐」를 「對話」로 정상화시키려는 동향이 전혀 안 보인다. 오히려 근자에 이르러서는 『北측엔 이미 調節委員會가 존재치 않는다』느니 調節委는 『제한된 代表들만이

참석함으로써 統一문제를 다루는 기능은 제대로 못한다」느니 하는 등 南北間에 合意된 對話체제를 일방적으로 부수려는 언동까지 하고 나섰다.

『調節委가 北쪽에 존재치 않는다』는 것은 벌써 7·4共同聲明의 實行性·存在性을 모두 부인하려는 작태며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聲明의 合意사항을 추진하고 南北間에 개선되어야 할 제반문제의 統一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調節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對話再開는 바로 이 調節委를 비롯하여 7·4聲明으로 합의한 「책널」을 일응 복구·활성화시키는 일이 그것 순서에 해당한다.

4개항으로 구성된 그들의 「1·23聲明」이 첫대목에서 7·4聲明의 理念과 원칙으로 복귀할 것을 내세우고 3항까지의 내용 또한 그 聲明의 合意사항을 처두고 있으면서도 막상 對話의 핵심기구, 즉 調節委만은 벌써 존재치도 않는다며 「全民族大會」로 대치하려 드는 데서 對話學論에 따른 그들의 凶計는 더욱 뚜렷한 바 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그것은 ① 이제까지 그들이 수세적이던 既存對話체제의 손상·파괴를 유도하여 ② 이를 對話 아닌 「革命工作」기구로 대체토록 하되 ③ 설혹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協議과정에서

다른 성과를 얻어낼 미끼로 삼거나 ④ 對話속개가 불가능하게 된 책임을 서울측으로 전가하려는 계략이다. 결론어 한쪽 으론 ⑤ 「全民族大會」소집을 계속 추진시켜 그 모임을 통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統一方案과 美軍철수, 자기집단의 法統주장·既存對話체제의 부인·韓國政府비방 등을 골자로 한 決議案을 채택 ⑥ 유엔을 비롯한 國際정치무대에 내놓으면서 政治宣傳공세를 펴가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는 「對南革命사업」을 밀어 붙이려는 것이며 그 추진분위기와 宣傳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형식적인 對南비방중상의 중지조치나 單一卓球代表팀 구성협의를 운운하는 거짓동태까지 부록으로 섞고 있는 판이다.

北傀측의 이런 對應자세는 필경 對話와의 「영원한 告別」을 빚게 될 위험성이 없지 않아 크다. 南北이 차분한 對話를 통하여 전진시켜야 할 「平和統一의 길」을 결과적으로 단절시키려는 反民族的 흉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 平和統一을 위하여 忍耐와 誠實과 全力으로 그들의 策略을 봉쇄하며 對話의 전진을 호위하고 진정시켜야 할 우리 모두의 合心協力을 다시 한 번 새게 하는 바 절실해진다.

## 話材의 源泉

### ——大司憲에게 사과한 영의정——

明宗 때에 大司憲 趙士秀가 정승 沈連源과 함께 經筵에 들어갔었는데 趙公이 아뢰기를

「領議政 沈連源이 첩의 집짓기를 팽창히 하고 사치하게 하여 단청을 입히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니 심정승이 임금 앞에 절하며 사죄하기를

「조사수의 말이 신의 허물을 바로 맞힌 것입니다.」

하매 명종이 위안하여 말하였다. 경연에서 물러나와서 심정승이 웃으며 趙公에게 이르기를

「공의 말이 아니었더라면 나의 허물이 더 중하게 될 뻔 하였소.」

하고는 집에 돌아와 그 단청을 다 씻어 버리니 당시의 공론이 훌륭히 여기었다.

宣祖 때에 영의정 盧守愼과 正言 金誠一이 經筵에 같이 들어갔는데 김공이 아뢰기를

「영의정 노수신이 남이 주는 초피갓옷(貂皮裘)을 받았으니 신이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니 노정승이 자라를 피하여 사죄하기를

「김성일의 말이 옳습니다. 신의 耆母가 병이 심해서 겨울철이면 추위를 견디지 못하므로 과연 북도에서 邊將으로 있는 일가 사람에게 초피 갓옷을 구하여 노모에게 드렸읍니다.」

하였다. 임금이 두 사람을 다 칭찬하기를

「大臣과 臺諫이 함께 제면을 얻었으니 가사히 여기오.」

하였다. 노정승이 본시 김공과 절친한 사이인데 이로부터 더욱 공경하고 중히 알았다.

이런 것은 祖宗朝에 아름다운 일인데 오늘날 대신과 대간 중에서 심정승, 노정승의 사과하는 것과 조공, 김공의 直言하는 것과 같은 이가 있다면 어찌 국가의 복이 아니겠는가:

民族中興의 當面課題

國民生活 安定과 持續的 成長

發顯케 하는 關鍵이 된다고 할 것이다.  
時急한 課題이며 이는 곧 成長潛在力을 持續的으로  
民生の 安定을 위하여 物價上昇率을 낮추는 일이

申 奉 植

△全經聯·理事▽

高成長推進과 開發 인플레이

1962年 第1次 經濟開發計劃이 着手되  
기 이전 우리 經濟는 한 마디로 貧困國의  
狀態를 면치 못했다.

原始的인 農業生産이 國民總生産의  
40%를 점하였고 高度成長의 尖兵이 되  
어야 할 高生産性의 工業部門은 15%에  
不過하였다.

우리의 經濟開發計劃은 工業部門의 建  
設에 最優先을 두고 國內需要를 바탕으로  
輸出産業化하며 基幹社會間接資本의  
擴充으로 不均衡成長戰略을 樹立 推進하  
여 그 餘力으로 農業開發을 병행, 高度  
成長의 기틀을 다진다는데 있었다.

이러한 戰略은 이 時點에서 돌이켜 볼  
때 많은 迂餘曲折이 있긴 하였으나 매우  
成功的으로 完遂되었다고 評價되고 있다.

우선 産業構造面에서 1961년에 鐵工業  
15.2%, 社會間接資本 9%였던 低開發狀  
態에서 오늘날에는 鐵工業 30%, 社會間  
接資本 13.8%의 劃期的 構造轉換이 이  
록되었고 1975年 不變價格으로 본 1人當  
國民所得은 1962年の 230弗에서 900弗臺  
로 3.6倍의 實質增加를 보였다.



또한 對外指向의 成長戰略으로 輸出은 3,200萬弗臺에서 155億弗을 내다보게 되었으며 總輸入財源中 62%를 援助에 依存하던 狀態로부터 이제 自力輸入比重이 92%에 達하게끔 經濟自立의 기틀은 굳건해졌다.

이러한 成長過程에서 國家經濟力의 飛躍的 伸張을 背景으로 國防豫算의 90%以上을 自力調達하게 되었고 各種 現代武器의 自力生産이 可能하게 되었다.

한편 가장 落後되었던 農業部門에서도 관개 수로의 擴充, 營農技術開發, 施肥擴大, 綠色革命으로 적어도 主穀에 關한한 1977年을 고비로 잉여생산단계에 들어섰고 나이 어린 우리의 새 世代는 春窮期라는 用語를 모르고 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눈부신 經濟成長은 莫大한 投資에 依하여 이룩된 것으로 開發初期以來 國內貯蓄을 훨씬 超過하는 投資는 많은 外資依存과 國內 成長通貨의 供給에 依하여 調達되었던 것으로 「인플레이」 壓力을 累積해온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投資財源의 外資依存은 第1次 5個年計劃期間中 52%, 第2次 5個年期間中 44%에서 第3次 5個年計劃期間中 26%로 크게 낮아졌으며 지난 해에는 4.9%까지 낮아져 投資財源 調達自立度도 95%에 達하게 되었으나 國內의 制度的인 事前 貯蓄은 事後的으로 計劃된 投資

額에 훨씬 未達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投資에 關聯된 「인플레이」 壓力은 外資依存도가 얼마가 되든간에 外資自體는 「인플레이」에 中立의인 것으로서 事實은 通貨供給과 投資懷妊期間에 말미암은 것이다.

急速한 産業建設을 통한 成長過程에서 持續되어 온 成長通貨의 供給은 開發計劃 着手以來 오늘날까지 每年 平均 38%의 通貨增加를 보여 成長經濟의 「인플레이」 體質을 浮刻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以外에도 우리 經濟에 「인플레이」의 要素가 되고 있는 것은 數多하게 있다. 施設導入과 建設過程에서 우리의 國際的 信認度低位 및 産業建設 經驗未熟에서 온 試行錯誤와 高價支拂, 産業成長支援을 위한 過剩保護와 득과점적 생산세계에 따른 管理價格의 高水準, 投資懷妊期間中의 資金撤布 等 超過需要現象의 慢性化를 看過할 수 없다. 또한 自然資源 및 工産中間財의 海外依存과 需要增大에 따른 海外 「인플레이」의 流入, 特히 石油를 비롯한 資源波動後의 격심한 海外 「인플레이」의 流入은 아직도 그 殘影을 길게 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成長過程에서 胚胎된 「인플레이」 壓力을 이제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絶박한 狀況이 展開되고 있다. 또한 成長에 「인플레이」가 반드시 不

可避한 것인가를 명철히反省해 보아야 할 時點에 왔다.

經濟成長率과 物價上昇率間的 關係는 높은 成長率과 높은 物價上昇率, 높은 成長率과 낮은 物價上昇率, 낮은 成長率과 높은 物價上昇率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各國의 開發經驗을 살펴보면 1950年代의 西獨, 60年代의 日本, 最近의 自由中國은 높은 成長 속에서도 낮은 物價를 보였던 가장 바람직한 成果를 걸우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높은 成長率과 높은 物價上昇率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제 國內外與件은 最近과 같은 物價上昇率으로는 우리 經濟의 健全한 運營을 不可能하게 하고 있는 狀況이다. 안으로 民生安定의 時急性이나 밖으로 對外競爭力의 維持를 위해서도 이 以上の 物價上昇은 許容될 수 없는 切迫한 面이 있는 것이며 成長을 하면서도 安定을 期할 수 있었던 가까운 이웃 나라의 敎訓이 우리의 反省을 促求하고 있는 것이다.

### 韓國經濟의 國際的 位置와 安定의 緊要性

우리 經濟는 賦存資源의 貧困과 國內市場의 狹小라는 制約으로 인해 成長의 根幹을 對外去來의 不斷한 擴充을 內容으로 하는 對外指向性 成長의 追求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國內市場의 規

模가 國民總生産에 있어 年間 數千億弗에 達하기까지는 市場의 規模가 成長制約要因이 될 수 밖에 없고 產業高度화가 크게 進展된다 해도 最小限의 自然資源은 海外에 依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大體로 國民總生産에 對比한 輸出入規模로 計測하는 對外依存度는 產業開發의 程度, 市場規模를 規定하는 人口數에 反比例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美國의 對外貿易 依存度는 10%內外, 日本은 20%內外, 西獨은 40%內外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對外貿易 依存度는 現在 80%에 육박하고 있다. 尙後 產業高度化達成과 國民總生産의 規模擴大에 따라 다소 對外依存度의 上昇傾向은 緩和될 展望이나 現在의 對外依存度 自體만으로 보아서는 이미 國際化된 卽 國際經濟의 모든 變動에서 즉각 影響을 받을 수 밖에 없고 國際經濟變動과 波動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렀다.

이는 높은 對外依存도가 가져오는 必然의 結果라 하겠으며 國際社會에서도 우리의 輸出고가 100億弗을 넘어서 世界 輸出高의 1%를 넘게 되면서부터 應分の 義務를 要請하기에 이르러 經濟國際化의 實感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經濟는 單純히 國際的 影響을 크게 받게 되었다는 自然的 現象에서만

이 아니라 大規模輸出國 特別 競爭의인 工產品輸出國에 對한 國際社會에서의 各種 義務의 賦課와 相互의 條件으로 輸出 增進에 對한 制約이 加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對하여는 이제 先進各國으로부터 輸出에 對한 自律規制를 要請 받고 있고 一方의인 輸入規制까지 當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開發途上國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特惠關稅까지도 撤回 되고 있다. 그 위에 78년부터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自由中國, 싱가포르, 南美의 「멕시코」, 「브라질」 등과 더불어 12個 新生工業國으로 規定되어 先進國 그룹인 OECD로부터 警戒과 規制를 면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의 輸出擴大에 對한 여러 가지 制約이 加해진다 하더라도 持續的 成長을 통한 國民所得 向上의 길은 自然資源 및 過渡期的인 工産原資材의 輸入과 이의 高度加工 大量生産 그리고 輸出의 持續的 伸張 以外에서 찾을 수가 없는 實情이다. 따라서 萬難을 克服하고 輸出主導의 成長戰略은 確固하게 堅持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絶對 不可缺한 基本條件은 産業의 對外競爭力을 優越한 位置에 끌어올리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産業의 技術的 優位를 確保함이 緊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더

욱 重要한 것은 價格競爭力의 優位를 確保하는 것이라 하겠다.

最近 이웃 日本이 先進各國으로부터의 많은 輸出規制를 받고 國內政策面에서도 輸出의 自制를 要請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每年 150億弗에서 230億弗의 貿易黑字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든가 西獨 역시 每年 100億弗 以上の 貿易黑字를 보고 있는 것이 高度技術과 優越한 價格競爭力에 말미암은 것임을 볼 때 實感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價格競爭力의 國際的 優位는 他國에 比한 相對的인 國內物價의 安定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과 西獨의 國內物價가 他先進國에 比하여 長期間 安定을 持續했다는 事實이 그 나라 通貨의 繼續的인 評價切上에도 不拘하고 高度의 輸出競爭力을 堅持할 수 있는 基底가 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많은 挑戰과 試鍊을 앞에 둔 우리 經濟가 輸出主導下의 成長을 이루어 나가기에 國內物價安定이 얼마나 緊要한가는 明白해진다 할 것이다.

때로 國內 一部意見은 安定을 위해 輸出伸張을 다소 鈍化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主張하기도 한다. 이러한 意見은 短期間에 관한 한 一理가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輸出은 物量의 海外流出과 購

買力の 國內流入을 가져오는 것이며 더  
우기 最近의 狀況은 過去 數年間的 輸出  
産業 施設投資 停滯로 因해 施設不足이  
露呈되고 있는데다 最近 國內物價의 不  
安이 供給不足에서 오는 바 적지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物價安定의 기틀을 마련  
키 위해 一時的 對策이 必要하다 하더라  
도 長期的 基本 政策方向은 如前히 輸出  
의 可能한 限의 最大限 伸張에 注力치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 經濟의 지난  
날의 高成長에 輸出이 35%에서 50% 가  
까운 寄與를 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輸  
出伸張에 注力한다 하더라도 過去와 같은  
높은 伸張은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伸張率 鈍化에서 오는 충격은 技  
術開發을 통한 産業의 高度化, 高附加價  
值化 등 高生産性を 통해 克服해 나가  
야 할 것이다.

## 民生安定과 開放競爭體制的 緊要性

物價의 不安과 高「인플레이」는 所得分  
配를 歪曲하고 富의 偏在을 加速化하여  
誠實한 生活姿勢와 勤勞意慾을 沮喪케 한  
다는 點에서 社會的 害毒이 클 뿐 아니라  
成長을 위해 지나친 「인플레이」를 容認한  
다면 成長의 意味自體를 抹殺하게 된다.

한편 國民生活에 緊要한 物資와 用役  
(交通, 教育, 各種 料金)의 價格昂騰은

생계비 인상과 勞賃引上壓力 나아가 産業  
의 原價引上壓力으로 作用하여 物價의  
上昇作用을 加速化한다. 따라서 民生安  
定의 根柢가 되는 生必需品價의 安定은 무  
엇보다도 緊要한 것이다 하겠다.

民生의 安定이 없이는 勞動生産性的  
向上이나 勤勞意慾의 鼓吹를 期할 수 없  
고 成長動因의 核心的 要因을 霧散케 하  
는 것이기 때문에 民生의 安定은 成長潛  
在力을 持續的으로 發顯케 하는 關鍵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成長의 持續을 위한 民生安定  
나아가 物價의 安定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칠 바 없다 하겠으며 나아가 對外指  
向의 成長戰略의 推進을 위한 開放競爭  
體制로의 經濟運用 方向轉換을 위해서도  
必須의인 課題가 되고 있다.

흔히들 우리의 産業建設이 그러했던  
바와 같이 우리의 輸出도 莫大한 財政的  
金融의 支援에 依하여 伸張을 持續해 왔  
다고 한다. 輸出支援金融은 一般金融의  
질반의 金利로 鐵道, 電力料金은 一部  
割引하여 支援해 주었으며 換率은 高評  
價하여 輸入에 不利하게, 輸出에 有利하  
게 이끌어 온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  
러한 支援은 輸出規模의 擴大에 따라 堪  
當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經濟는 輸出規模急伸張에 對應한  
國際的인 開放壓力 産業建設과 高成長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온 國民消費大衆의 保護 나아가 過保護를 止揚하여 産業體質의 強化를 誘導하려는 必要에서 지난해부터 輸入自由化를 推進해 나가고 있다. 輸入自由化는 必然的으로 外換自由化와 資本自由化, 外國人の 國內投資自由化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바로 開放競爭體制라는 틀을 잡아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커다란 장애가 가로 놓여 있다. 內外金利의 隔差, 換率의 固定化가 그것이며 物價自律化的 必要성과 急激한 物價上昇을 抑制키 위한 價格規制의 必要性的인 갈등이 그것이다.

內外金利의 隔差와 換率의 固定化는 外換自由化에 따라 高金利를 노리는 國際浮動資金의 流入, 이에 따른 經濟安定的 攪亂을 念慮케 한다. 그리고 우리 物價의 高水準은 輸出을 沮害하고 輸入自由化에 따라 輸入을 促進하여 모처럼 均衡을 이룬 國際收支에 不安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不均衡은 根本的으로 우리의 높은 物價上昇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物價水準이 높으나 낮으나는 問題보다 年間 物價上昇率이 높으나 낮으나에 留意해야 한다. 物價水準이 높더라도 그 水準에서 固定된 換率의 調整만으로 모든 價格體系가 再調整되어 새로운 安定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物價上昇率이 높다는데 問題가 있는 것이다. 物價上昇率이 높기 때문에 金利水準은 國際金利에 比하여 倍나 높아도 貯蓄誘引을 發揮치 못하고 資金需要는 날로 增大되고 있고 높은 金利는 産業의 原價上昇壓力으로 作用하여 物價上昇을 促進하고 있다. 物價上昇率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낮은 公金利는 貯蓄誘引을 發揮치 못하고 物價上昇趨勢는 消費를 一層 助長하게 된다. 輸出支援金利가 國內基準으로는 낮다고 하나 國際金利에 比해서는 오히려 높은 편이며 他國의 같은 金融의 金利에 比해서는 훨씬 높아 國際市場에서의 輸出競爭을 前提할 때 支援的인 低金利라고는 말할 수 없는 水準이다. 이러한 實情을 두고 볼 때 物價上昇率을 낮추는 일이 時急한 課題이며 價格現實化는 하루 빨리 斷行하여 어느 水準에서 간에 빨리 定着시키는 것이 急先務라 하겠다. 이에 따라 많은 民生의 어려움은 豫見되고 있다. 所得의 實質減少, 財政의 困難, 財政과 金融의 緊縮에 따른 産業의 資金難等 많은 試鍊이 따를 것이나 이는 開放競爭體制下의 새로운 成長與件의 整備를 위해 적어도 한번은 치루어야 할 진통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諸價格의 變動率이 國際水準화할 때 本格的인 開放과 國際的인 成長與件이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民族中興의 當面課題

福祉의 理想과 現實

우리는 希望과 보람찬 未來가 있다.  
발전단계에 도달한 사회에서 可能한 것이라는 점에서  
福祉의 실현은 貧困한 사회에서가 아니라 어느정도

李 海 英

〔서울대 社會學教授〕

昨今 2,3年來로 福祉라는 말은 우리 社會에서 하나의 유행어 모양 자주 들리고 있다. 지나간 國會議員선거 때에도 각 정당의 선거공약 가운데에 福祉라는 화려한 공약이 자주 나타났는가 하면 新聞이나 잡지에도 2000年代의 복지사회에 관한 靑窩眞을 그려보는 글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 20年前의 우리 社會와 비교해 볼 때 참으로 격세의 感을 금치 못하게 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선 먹고 살기에 경황이 없었던 우리들 처지에 福祉라는 말 자체가 낯설은 말이었으며, 福祉國家나 福祉社會라는 것은 머나먼 西洋의 나라들의 專有物이지 우리들과는 연이 먼 얘기로만 들려 왔었다. 그러던 것이 불과 2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도 멀고 먼 곳에만 있는 것같이 생각되었던 福祉라는 말이 바로 우리들 주변에서 매일같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게 되었으니 세상이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을 實感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우리들의 실정을 보거나 또는 外國의 先例를 보거나 거기서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즉 福祉의 실현은 가난에 허덕이는 社會에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발전단계에 도달한 社會에서 可能한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個人當 所得이 百弗에도 미치지 못했던 20年前에 福祉라는 말을 생각지도 못했던데 비해 그것이 千弗을 넘었으니까 福祉라는 말이 자주 들리게 된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外國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경제의 발전 즉, 所得의 증가가 福祉社會 실현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福祉」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 복지가 具現된 사회를 福祉社會라고 한다면은 그 복지사회 또는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內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福祉生活이라고 규정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가령 누더기 옷을 입고 맛없는 음식을 먹으며 누추한 가옥에서 살아도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고 했고 義롭지 못한 수단으로 富貴를 얻는 것은 나에 있어서 돈구름과 같다고 말한 孔子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福祉와 흔히 얘기되는 탐관오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謀利만을 일삼는 일부 장삿군들이 생각하는 福祉는 그 내용에 있어서 천양지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例를 들지 않더라도 평범한 市民들이 생각하는 삶의 내용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볼 때 결국 福祉는 主觀的인 評價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福祉를 個人의 「欲求가 충족된 상태」라고 정의할 때 그것은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意識狀態를 가리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복지를 개인의 主觀的 評價라고 규정할 수 있는 까닭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欲求是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며, 어떠한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라고 느끼느냐는 各個人의 評價基準, 즉 價値觀에 따라 다르지만 個人의 가치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제멋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의 社會, 經濟的 상황이나 우리들이 歷史的으로 이어온 傳統과 아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共通分母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마다의 個人差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오고 또 앞으로 살아갈 韓國이라는 바탕을 떠나 그것과 아무 關係도 없이 韓國사람 하나 하나의 삶에 대한 評價=價値觀이 形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공동의 바탕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바라는 바 最大公約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福

社社會나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의 課題로 삼으면서 이 과제의 해결을 도우는 한 가지 方便으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福祉社會의 대표격으로 뽑는 英國의 社會保障制度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미 주지되어 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는 英國의 社會保障制度의 骨格은 제 2차 世界大戰中에 설립된 워리엄·베바리지卿을 위원장으로 하는 委員會에서 1942년에 채택한 이른바 베바리지 報告書를 골자로 해 終戰後 1946년에서 48년 사이에 당시의 勞動黨政府에 의해 그 案이 英國議會를 통과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 30년 이상이 경과하는 사이에 部分的으로 적지 않은 修正이 가해져 왔지만 그 줄거리는 큰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英國의 社會保障制度는 이것을 대별해 다음의 네 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1) 각종 國民保險制 (2) 補助金制 (3) 家族手當 (4) 각종 稅金控除制度가 그것이며, 이 중 (1)의 각종 국민보험제의 主要한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老齡(退職)年金, 醫療保險, 勤勞者에 대한 傷害保險, 失業保險, 出產手

當 및 이에 따르는 각종 補助費 等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각종 制度의 惠澤을 받는다는 그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1)의 각종 국민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실시중에 있는 것과 같이 매달 그 俸給에서 一定額을 寄與해야 하는데 反해 (2)의 補助費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寄與金의 필요는 없지만 그 대신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3)의 家族手當은 未成年의 子女 一名 이상을 둔 모든 家族에게 지급되며 여기에는 寄與金이나 심사의 필요는 없지만 지급되는 手當의 액수는 家族의 收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英國의 社會保障制度는 福祉國家로서의 英國을 상징하는 제도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어가 가리키듯 英國人이면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터 죽을 때까지 그 惠澤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英國의 이 사회보장제도는 第2次 大戰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별안간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니며 實로 긴 歷史를 가지고 있다. 멀리 16世紀부터 시작했던 이른바 「教貧法」(Poor Law)의 제정 이래 數百年 동안 迂餘曲折을 밟으며 이어져 내려오다가 앞서 말한 1942년의 베바리지 報告書에서 집대성 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

은 아니다. 그러면 복지국가로서의 現代英國을 상징하는 이 보장제도가 그 전의英國에서 行해졌던 각종 社會政策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가. 그 첫째는 이 보장제도 이전에 있었던 각종 제도에서 國民들의 不平과 不滿의 대상이었던 각 대상 가정에 대한 生計實態調査를 일체 폐지하고 대신 社會保障制의 惠澤을 國民에 대한 國家나 慈善機關의 施惠가 아니라 國民의 權利로서 보장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적어도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限의 生活을 할 수 있는 것은 國民의 당연한 權利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社會政策의 새로운 章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둘째로 그것은 이른바 最低生活(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것이지, 사치스런 생활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이러한 最低生活의 보장을 위해 모든 사람은 그 地位의 高下나 收入의 多寡를 막론하고 同一한 金額을 매달 寄與金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른바 普遍的 寄與金制가 그것이다.

이상 현대英國의 社會보장제도를 간단히 살펴 보았지만 이것이 實施된지는 30餘年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國民의 健康하고 文化的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공헌했던 것도 또한 엄청난 사실이며 이제 社會保障制度는 先進工業國들에 있어서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必須인 제도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도 이미 常識이 되고 있다. 좀 낡은 統計지만 1973~1974年度의 英國政府가 이 社會保障制度和 관련해 支出한 費用은 實로 52億파운드이며 이 당시英國의 1파운드는 대략 美貨 2弗을 좀 웃들었다. 이것은 당해 年度英國政府總豫算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같은 年度의 英國政府豫算中, 教育費관계 예산 40億파운드, 國防豫算 30億파운드와 비교할 때, 社會保障制度和 관련된 豫算이 英國政府豫算의 最大支出部門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國民의 最低生活을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든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된다.

이것을 다시 國民總生産(GNP)과 대비해 보려는 역시 좀 목은 통계지만 1970~71年度에 있어英國에서의 社會保障給付費의 對 GNP 비율은 13.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英國의 13.2%는 1970~71年을 전후한 기타 諸國과 先進工業國들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도리어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즉 西獨의 경우 社會保障給付費의 對 GNP 비율은 18.7%(1974年), 스웨덴의



20.5% (1974년),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16.9% (1970~71), 덴마크의 18.5% (1970~71) 등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나라에서는 GNP의 20% 전후가 社會保障費로 지출되고 있어 그 막대한 額數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이상 우리는 英國을 비롯한 구라파 先進工業國家들에 있어서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우선 그 費用面에 관해 개관했지만 이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福祉社會具現을 위한 하나의 커다란 참고가 될 줄 안다. 오늘날 福祉 또는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얘기되고 있는 요즘은 最低生活를 보장하는 社會保障制度의 실현이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그렇게 손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歷史的인 전통과 生活樣式이 다른 우리나라에 구라파적인 제도만을 그대로 도입해도 과연 소기의 成果를 올릴지도 문제려니와 실록 그 대부분을 수입해 오더라도 그것을 움직이기 위한 방대한 行政組織과 行政要員을 마련할 수 있으며 給付가 차질없이 이루어 지리라고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시에 지금 國防豫算이 總豫算의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經濟發展 또한 정지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되어 막대한 投資가 이에 所要되는 마당에서 별안간 社會保障 관계비용을 염출해 내려면 財

政的 여유가 이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福祉國家 실현을 위해서는 그에 앞선 몇 가지 先行條件이 만족되어야 할 줄 안다. 가령 稅金은 公平하게 징수되고 있으며 行政은 能率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國民의 自發的參與의 의욕은 왕성한지 우선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社會保障制度를 하나의 理想으로 삼되 그러나 그것이 서야 할 바탕인 現實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醫療保險制가 일부 실시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全國 각처에는 醫師없는 無醫師村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사실과 또 大都市에서는 綜合病院으로만 患者가 몰려 이것이 醫療保險制 운영상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制度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國民所得의 증가와 더불어 보다 健康하고 文化的인 生活, 말하자면 人間다운 生活에 대한 國民의 요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現代國家에 있어 國民의 권리로 인정된지 오래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例外는 아니다. 그러나, 理想의 추구의 性急한 나머지 現實을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우리는 理想을 높이 들고 그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반면, 理想에 쫓리는 나머지 現實을 무시하는 愚를 犯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시에 理想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을 다져나가는데 게을러서도 안 될 것이다. 어느 의미에 있어서서는 오늘날 社會保障制에 앞서 더 時急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低賃金을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 失業保險에 앞서야 할 것이며 1년에 2千億원이 넘는다는 課外費用 支出을 없애주는 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家族手當이나 老齡年金에 못지 않게 時急한 課題일 것이다. 高所得層의 사치 풍조와 일부 사람들의 脫稅行爲를 발본 색원하고 投機로 물리는 莫大한 浮動資金을 銀行으로 물리게 하는 것이 社會保障制를 실시할 수 있는 전제조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는 2000年代를 바라보며 우리 나라 사람들도 빠짐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고 文化的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지만, 동시에 現實을 직시하면서, 착실히 걸어가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줄 안다.



## 生活人的 智慧

### — 私用 電話 —

근무시간 중의 전화사용, 이것은 엄중히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무실 근무같은 경우 전화가 특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칫하면 생각나는대로 전화를 걸고 싶게 되는 법이지만 직장의 전화라는 것은 업무상 필요로 한 일의 제1선이 지 결코 개인의 사용(私用)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전화에 의한 업무연락이 그칠새 없고 그것이 업무에 반영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용(私用)의 전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는 정체되어 구멍이 뚫리게 된다.

더우기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사용전화를 집무시간에 장황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일의 능력에도 영향을 주고 주위의 직장에도 해이한 영향을 미쳐 상사나 동료들의 신용도 잃게 된다. 휴식시간이라든가 퇴근무렵이라면 관대하게 보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웬만큼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본인은 물론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명심하여 근무 중인 사람을 불러 낸다든가 직장의 전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民族中興의 當面課題

精  
神  
文  
化  
의  
意  
味

을 말한다.  
으로서의 價値觀의 體系를 세워나가는 精神能力  
精神文化란 한마디로 自己社會를 運營하는 基準

金 哲 堧

〔서울大學校 教授·精神文化研究院 第一部長〕

1.

政府는 1979年度 施政目標로서 1. 完全自立經濟의 達成, 2. 自主國防態勢의 確立, 3. 社會開發政策의 擴充, 4. 精神文化의 啓發이라는 4個條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施政目標은 한 마디로 말하여 우리 社會가 처해 있는 轉換期的 現實의 認識을 강조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國際外交, 政治經濟나 國防의 觀點에서 인식한 轉換期일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政治, 經濟의 轉換을 하기 위하여서는 社會面, 文化面에 있어서의 安定基盤의 構築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認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보다 幅이 넓고 보다 基本的인 文化의 轉換까지를 意識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經濟의 成長과 社會의 安定基盤의 構築이 있어서 이와같이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各面을 포괄하는 政策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겠으나 社會의 安定과 文化의 一大增幅을 構想하는 이러한 施政目標의 설정은 그만큼 우리 社會가 오늘날에 와서 우리 文化의 意味를

더 알고 歷史的 課題를 바로 알아 政治, 外交, 經濟, 社會의 成長이 相互 連關의 政策下에서 推進되어야 한다는 것을 認識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겠다. 우리 社會의 文化段階의 進展이 있어서 精神文化의 啓發이 施政目標의 하나로서 설정함에 이르른 것을 알 수 있으나 一大文化轉換期인 오늘날에 있어서 精神文化가 어떤 意味를 갖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民族의 文化를 평가함에 있어서 흔히 物質文化는 優秀하나 精神文化가 劣弱하다고 하고 精神文化는 優秀하나 物質文化의 발전에는 뒤늦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比較上的 常識的인 理解와 평가가 때로는 맞는 경우도 있으나 文化의 本質을 認識하려고 할 때에는 常識的인 지식보다는 嚴密한 科學性을 가진 檢討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보다 많은 物質文化의 能力을 가져야 하고 現代文化를 運營하는 보다 강한 精神能力을 가져야 할 때에 精神文化는 덜어놓고 좋고 物質文化는 본래부터 나쁜 것이라는 價値가 떨어지는 것이라든가 錯覺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동안의 경제적 급성장으로 말미암아 사회관계의 調和가 위협받게 되므로 全體文化의 安定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精神文化를 強調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발전한 物質文化能力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만큼 강한 精神文化의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요컨대 精神文化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生活能力을 가지면서 성장하는 社會가 그 調和關係를 유지하면서 社會生活를 圓滑하게 운영하게 하는 동시에 文化自體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느 生活能力은 좋고 어떠한 것은 나쁘다는 것을 判斷하면서 調和할 수 있는 基準을 설정하는 能力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精神文化라 하고 物質文化라 하는 것은 하나의 文化能力의 한 側面만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결코 遊離하여 對立하는 別個의 能力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文化는 그것의 物質文化의 性格에 따라 精神文化의 性格도 左右되고 그 精神文化의 水準에 따라 그 物質文化의 水準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理解를 가지고 지나간 10餘年間的 우리 文化의 成長過程을 살펴 보면 그것은 피와 땀의 길이었다. 赤手空拳으로 출발하여 回避할 수 없는 많은 制約을 무릅쓰면서 民族의 生存을 위한 鬭爭을 계속하여 왔다. 文化에 대한 現代的 認識能力도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潛在的인 能力만 가지고 싸워왔다. 어떤 때는

非近代的인 精神으로서 現代的인 文化苦悶에 對處할 수 밖에 없었고 어떤 때는 手工業的 技術로서 現代工業에 挑戰하면서 성장하였다. 外國人이 불 때에는 실로 無謀한 挑戰을 감행하면서 現代文化能力을 획득하는 成果에 도달하였다.

뒷날 史家로 하여금 現代文化의 基盤이 비로소 設定되었다고 말하게 할만한 成長을 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成長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基盤을 구축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率直히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文化經驗이 進行되는 過程에서 우리 傳統文化가 自覺하고 있는 潛在能力들은 보다 많은 歷史的 課題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까닭이다.

## 2.

精神文化란 한 마디로 말하여 자기社會를 運營하는 基準으로서의 價値觀의 體系를 세워나가는 精神能力을 말한다.

모든 社會的 思想的 葛藤을 극복하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文化方向을 생각하는 精神能力과 그 活動을 말한다. 그러나 文化란 社會的 產物이고 歷史的 蓄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精神文化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評價基準을 세워야 한다.

첫째로 文化란 人間社會生活에 價値가

있는 生活能力이어야 하고 全社會成員이 인정하는 能力이어야 하므로 精神文化가 갖는 基準이란 한 個人, 한 集團의 利害관계에 의해서 설정되든가 그들의 주장만을 合理化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社會가 발전하여 그 構成範圍가 넓어지고 그 組織編成이 복잡화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文化基準을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필요한 相互折衷과 調和를 위한 많은 陣痛이 따르게 마련이다.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社會生活을 運營함에 있어서 한 時代의 主導의 구실을 한 勢力들이 주로 그들의 利害관계와 맞는 活動에 치중하고 또 그에 맞는 基準들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活動들을 통하여 全體的인 文化能力을 向上시켜야 하는 한 時期의 時代的 責任을 저야 하는 동시에 社會의 全體的인 調和關係를 설정할 수 있는 哲學을 提示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傳統이 간직하고 있는 精神文化를 整理繼承함에 있어서 過去文化에 대한 理解와 評價를 정확히 할 수 있는 基準을 세워야 한다는 問題이다. 過去文化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文化方向을 설정하게 하는 그러한 基準의 提示 능력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文化能力 如何에 따라 左右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의 文化認識이 어느 정도 客



觀性を 유지할 수 있으나 하는 실로 어려운 問題가 있는 것이다. 더우기 植民地近代化의 時代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文化認識이 傳統과의 連結에서 斷絶되고 正常的인 近代化에서 脫落되었다는 兩面的인 缺陷을 지녔던 까닭으로 順調로운 發展의 경험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러한 條件에서 客觀的인 文化認識을 가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또 傳統文化의 密度가 높은 반면에 現代文化의 基準은 확립되지 않아 過去의 文化體質과 成長하고 있는 現代文化體質이 相互 混雜을 일으키고 있어 自己方向의 확정이 困難한 것이다.

오늘날 文化轉換期에 나타나는 混亂狀況이 그대로 계속되는 까닭으로 傳統文化의 成果와 그 限界性を 바로 알아 아 적도 남아 있는 中世의 地方意識이나 植民地의 派閥意識을 超越하는 現代國家精神, 現代文化精神의 樹立方向을 설정하기 위하여 첫째의 基準을 提示한 것이다. 그러나 現代文化의 幅이 넓으면 넓을 수록 오늘날의 國際間的 文化競爭이 熾烈하면 할 수록 現代文化精神의 自己樹立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狀況을 克服하는 길이란 우리들의 모든 潛在能力을 總動員하고 그 全部에 現代의 能力을 賦與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科學的 認識能力에 基礎한 文化哲學

을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둘째의 基準은 우리 傳統文化의 體質이 가지는 長短點을 徹底하게 反省하면서 오늘날의 文化가 그 基本體質에서부터 거듭 나오기 위한 再檢討의 基準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의 基準은 究竟 첫째의 基準이 안고 있는 問題들을 再確認하고 提起는 하였으나 解決되지 않은 그 問題들을 다시 檢討하는 後續過程을 推進시키는 性格을 가지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 3.

앞서 物質文化라 하고 精神文化라 하는 것은 文化全體가 갖는 性格의 一面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지만 한 문화를 형성하는 수 많은 要素들도 그 全體 안에서 相互間에 일으키는 連鎖反應관계와 이를 통한 다른 要素들과의 複合關係로 말미암아 제각기 두 가지 이상의 機能을 가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禁繩에 솟을 다는데 이것은 솟이 不純物을 吸收하여 腐敗를 막는 솟의 自然的 性質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疫鬼를 쫓는 原始宗教的 機能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雜人들의 出入을 금하는 社會的 機能까지 발휘하게 한다. 音樂이나 舞踊은 情緒生活의 滿足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늘날 軍隊의 軍歌나 學校의 校歌도 마찬가지이지만 옛날의 部族祭禮에

있어서 部族傳統의 確認과 團合을 強調하며 때로는 生産意慾·戰爭意識을 刺戟한다. 이러한 例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다른 要素가 精神的인 것이든가 物質的인 것이 서로 複合하여 때로는 物質文化能力을 刺戟하고 때로는 精神文化的機能을 強化한다. 經濟的 基盤 없이 精神文化基盤이 成立될 수 없다는 常識이 그 대로 通用되는 것이다.

한 文化가 제각기 다른 多樣한 文化要素간에 調和關係를 이루면서 발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經濟能力을 가진 要素들이 보다 활발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物質文化가 발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社會의 均衡關係가 위협을 받게 되면 精神能力을 가진 文化要素들이 動員되면서 그 調和를 回復하게 된다. 反對로 精神文化만 強調하다가 生産力의 進展이 막히면 다시금 經濟的 活動의 主要性이 강조되면서 物質文化가 高潮되게 마련이다. 時代에 따라 強調되는 文化가 다르고 그 文化擔當層이 달라지고 社會的 性格까지 變動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文化史의 모습이다. 그러한 발전을 추구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文化要素를 마련하면서 多樣한 文化機能을 갖지 않고서는 文化幅을 增大시킬 수 없어 前時代의 生活能力의 限界를 克服할 수 없고 民族的 競爭能力을 喪失하게 되는 까닭이다.

文化의 各分野에서의 新陳代謝機能을 꾸준히 계속시킬 수 있는 彈力性을 갖지 못한다면 窮極에는 破綻밖에 올 것이 없으므로 現代文化에 있어서 가장 警戒하는 것은 文化의 硬直性인 것이다. 北韓의 共產政權이 그들의 獨裁를 合理化하기 위하여 時代錯誤의 共產主義를 標榜하면서 文學·藝術·學問·思想 등의 文化的 機能을 硬直化시키어 莫大한 文化能力的 損失을 보고 있다.

文化의 劃一性 硬直性은 一時的 守舊는 可能하지만 새로운 發展을 막는 것이므로 마침내 破綻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우리 韓國社會가 北韓社會와 比較하여 보다 나은 文化의 多樣性과 彈力性을 가진 것이 文化優位를 차지하려 하는 것이고 文化史의 正統性을 갖게 하는 第一의 關鍵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傳統文化의 啓發에 置重하였던 것은 한편으로 日帝侵略時期에 形成된 殖民地近代化의 非自主性을 克服하고 한편으로는 基層文化에 잠겨 있던 潛在能力을 活性化하는데 目的이 있었다. 이 文化運動이 상당한 效果를 거두어 文化意認面에 있어서 커다란 刺戟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運動으로 말미암아 一部에서는 傳統文化는 그대로 全部가 價値가 있고 그 全部가 精神文化인 것처럼 錯覺하는 寒心한 傾向이 일어

나고 있다. 어떠한 文化가 한 時代의 社會·文化를 발전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뒤 社會가 內外兩面의 刺戟으로 더 複雜化되고 時代의 文化潮流가 달라지면 그 文化는 이미 社會全體·文化全體를 運營할 能力을 喪失하고 基層文化로 沈澱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文化는 그 文化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自己 親族系統과 그 親族의 居住地域 안에서나 價値의 効用性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넓은 社會에 대해서는 說得力을 상실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禁繩의 風俗은 鐵器時代 初期까지도 全社會의 運營機能을 가졌던 巫覡信仰의 所産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出産한 아기를 위한 할머니의 정성의 하나로 그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모든 文化는 항상 진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文化도 時代의 限界性·時効性이 있을 수 밖에 없고 各時代마다 歷史的 課題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各時代마다 그 歷史的 課題를 인식하고 그것을 遂行할 能力이 있을 때에만 그 시대의 主體勢力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遂行能力이 없이 時効性이

지난 옛 傳統의 權威를 固執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文化體質에 殘存시켜서는 그만큼 現代文化能力을 발전시키는데 방해만 받게 된다. 모름지기 文化의 生理를 알고 各時代에 나타나는 文化全體의 限界性을 부단히 克服해 나아가는 能力 그것이 精神文化의 本質的 機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나간 朝鮮王朝時代에 民族이나 國家全體의 安危는 생각지 않고 變動하는 國際情勢에 대해서는 盲人이 되든 朱子學의 奴隸가 되든 그것은 상관치 않고 自己黨派나 族閥을 위한 싸움에서 口實로 自己學派의 學說이나 強調하는 心性은 精神文化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썩은 선비들이 黨爭을 위하여 四書五經의 아름다운 말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支配秩序維持를 위한 것이었지 文化의 限界性을 克服하고자 하는 創造的 精神活動은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할 必要가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옛 일들을 구태여 지적하는 것은 文化의 발전은 「日新·又日新」이란 句節의 現代의 意味를 바로 깨닫는데 있다는 것을 強調하고자 함이다.



# 3. 1 運動精神과 歴史的 教訓

物理的 力量의 強化를 前提로 한 國民의 總  
 元 裕 漢

元 裕 漢

△弘益大學校 師範大學 教授▽

이 해로써 우리 겨레가 일제 식민통치  
 를 벗어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걸기한 3·1운동 60주년을 맞게 되었다.  
 3·1운동 1周甲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겨레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지기  
 위해 그 거족적 운동의 배경, 운동정신,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 1. 3·1운동의 배경

1876년에 丙子修好條約이 체결되기  
 전의 韓日 양국간의 접촉은 조선정부의  
 전통적인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극히 제한  
 되어 있었다. 이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하여 일본제국은 한국침략의 발걸음을 내딛  
 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제국은 1894년의  
 淸日戰爭과 1904년의 日露戰爭에서 승리  
 함으로써 淸露勢力을 배격하고 한국내에  
 서의 모든 이권을 독점하였다. 日帝는  
 1905년에 韓日協商條約을 강제로 체결,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뒤 이어서  
 日帝는 서울에 統監府를 설치하고 그들의  
 한국침략의 궁극적 목표인 한국 병합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1907년에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서 高宗皇帝를 퇴위시켰다.  
 그 해 8월에는 한국의 마지막 보루인 군  
 대를 강제로 해산시킴으로써 한국은 방  
 위력 없는 허수아비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日帝의 한국침략정책이 급진  
 전됨에 따라서, 丙子修好條約 이후 지속

되어 온 한국민의 거레와 國權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투쟁은 한층 더 가열될 수밖에 없었다. 즉 해산 당한 한국군대는 서울에서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이고 지방에 내려가서는 義兵과 합류하여 무력투쟁을 계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安重根의사는 일제의 한국침략 원흉인 伊藤博文을 사살하고, 田明雲 등은 한국침략의 협력자인 미국인 스티븐스(Stevens)를 암살하였다. 한편 지식계층은 언론 또는 교육을 통해서 한 민족의 애국심과 항일투쟁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한국병합의 임무를 띠고 統監에 임명된 일본육군대장 寺內正毅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여 우리 거레의 항일투쟁을 억압하였다. 또한 그는 부임 즉시로 皇城新聞 등 여러 신문을 정간시켜 한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도록 하였다. 뒤이어 그는 당시 총리대신 李完用 등 친일파 정객들과 더불어 한국병합계획을 모의, 마침내 1910년 8월 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던 것이다.

한국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합병되자 통감부는 總督府로 확대 개편되고, 합병조약 체결당사자 寺內正毅는 초대 總督에 임명되었다. 立法, 司法 및 군대통수권을 장악한 총독은 國內 질서유지를 빙자하여 헌병경찰제도를 수립, 강화하는 등 강압적 무단정치를 자행하였다. 日帝는 강력한 헌병 경찰조직을 이용해서 1912년에 5만명 이상, 1918년에는 14만

여명의 한국인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일제가 범죄를 날조하고 악독한 고문을 자행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1911년에 있는 소위 百五人事件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일제가 꺼리는 기독교 계통의 한국인 저명인사 6백여명을 무조건 검거하여 105명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일제는 정치적 집회나 屋外의 대중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취체령을 비롯한 많은 사상관계 법령을 제정, 실시하였다. 이로써 당시 한국인의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탄압 뿐만 아니라 일제의 경제적 수탈방법도 악랄한 것이었다. 대표적 예로서 일제는 東洋拓殖會社라는 식민지 착취기관을 설치하고, 토지조사사업을 빙자해서 한국인의 전통적 경제기반인 토지를 몰수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일제의 경제적 수탈은 林業·鑛業·貿易 등 각 부문에 걸쳐서 철저하게 자행되어 우리 거레의 경제기반은 몰락하고 생활은 궁핍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이로써 日帝가 합병조약서문에서 밝힌 '상호 행복'이라 한 것은 곧 한국민의 행복을 희생한 일본인 행복의 증진을 의미했을 뿐이었다.

합병 뒤에 우국지사 중에는 울분을 못 이겨 자살으로써 굴욕을 씻은 이도 있다. 國內에서 정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만주·상해·시베리아 및 美洲 등 해외로 망명, 그 곳에서 거레의 자유와 국권 회복에 노력하고자 하는 애국지사의 수도



늘어났다. 또한 합병 전에 제릴라전을 통해 일제에 항거하던 義兵들도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자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건너가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간도지방에서는 李哲榮·李始榮 등이 軍官學校를 설치하고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李相高 등은 시베리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上海에서는 申奎植 등이 중국의 혁명가 孫文 등과 연결하면서 항일 독립운동에 힘썼다. 安昌浩는 美洲에서 興士團을 조직하여 민족운동을 꾀고 하와이에서는 李承晩이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일제의 탄압 등 모든 악조건을 무릅쓰고 해의로 망명한 애국지사들과 연결하여 일대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연합군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Wilson)은 戰後의 문제처리에 있어서 民族自決主義를 포함한 14개 조항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약소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윌슨대통령의 주장은 국내의에서 전개되는 우리 겨레의 항일 독립운동에 활력소를 불어넣게 되었던 것이다. 1919년 2월 上海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파리 강화회의에 金奎植을 대표로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張德秀를 일본에 파견하여 한국 유학생들과 연락

을 취하게 하고, 呂運亨을 러시아에 보내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후원을 요청케 하는 한편 金澈 등을 국내에 입국시켜 비밀리에 활동하게 하였다.

한편 1919년 1월 22일에 비운의 황제 高宗이 돌아가시고, 그 死因이 일제에 의한 毒殺이라는 풍문이 떠돌아서 일본인 또는 일본국에 대한 한국민의 적개심은 고조되었다. 뒤이어 2월 8일에는 드디어 일본동경 유학생들 사이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봉화가 오르게 되었다. 당시 동경유학생 6백여명이 모여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日本議會 등 각계 요로에 보냈다. 이러한 海外에서의 독립운동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고, 3월 1일에 마침내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3·1독립운동을 계획 주도한 民族代表 33인은 天道教·佛敎·基督敎, 儒林을 달할 것 없이 宗派를 초월해서 구성되었다. 또한 3·1운동에는 종교·신분·남녀·지역의 차별없이 우리 겨레 모두가 참여한 거족적인 항일 독립운동이었던 것이다.

3월 1일에 만세 시위를 벌인 것은 비단 서울 뿐만은 아니었다. 평안남북도, 황해도와 함경남북도 등을 비롯해서 전국 각 지방에서도 일어났고, 또한 확대 파급되었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만만도 독립

만세 시위에 참가한 인원이 2백만명이 넘었고, 參集回數는 1천5백여회에 달했으며, 그리고 전국 218개 郡 중에 211개 郡에서 만세시위운동에 가담했으리만큼, 독립운동은 거국적이었다. 만세시위운동은 비단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만주·시베리아·중국·미국 등 해외에서도 국내에 호응하여 독립선언식과 축하회를 열어 독립만세시위는 세계 각 처에까지 파급되었던 것이다.

3·1독립운동으로 일제 관헌에게 체포된 한국인은 26,948명이었고 기소된 사람은 10,441명이었으며, 피살자는 7,509명, 피상자 수는 15,961명이나 되었다. 또한 일제 관헌에게 훼손된 민가 수는 715동, 교회당 47동, 학교가 2동에 달했다. 이로써 일제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써 3·1독립운동을 진압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2. 3·1운동의 정신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국내는 물론 우리 겨레가 거주하는 세계 각 처에까지 파급된 거국적인 3·1운동의 정신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우리의 민족적 정신이며, 민족적 이상의 표시이기도 한 3·1운동의 정신을 '獨立宣言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대강 살펴 보려고 한다.

독립선언서의 첫머리에 「吾等은 茲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

을 宣言하노라」 했듯이 우리의 거국적인 요구는 국가의 독립에 있고 또한 누구나 모두 독립을 갈망했던 것이다. 당시 국가의 독립이 우리 겨레의 유일한 활로이고, 또한 민족적 榮光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립된 국가를 가짐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것은 自主民의 독립국가인 것이다. 독립한 국가는 自主民의 국가이어야만 그 국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1운동 정신의 중요한 조건은 한국민 각 개인이 모두 自主民으로서 독립국가の一員이 되도록 활동하는 것이며, 그 정신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自主民은 인류의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후대에 전승해 주고, 또한 그 자유를 다른 사람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싸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독립선언서에서는 우리 겨레가 독립하려는 목적을 표시하며 인류의 기본적 자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독립선언서에서 「我生存權의 剝奪됨이 무릇 幾何이며」라 했듯이 민족의 생존권을 향유케 하려면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제적 자유는 독립국가의 자주민이 반드시 누려야 할 생존권의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선언서에는 「心靈上 發展의 障礙됨이 무릇 幾何이며」라는 귀결이 있

다.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3·1운동의 정신 속에 自主民의 기본적 자유인 良心의 자유에 대한! 우리 겨레의 절실한 요구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심의 자유를 알지 못하거나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독립국가에서 산다 하더라도 자주민은 될 수 없다고 하리 만큼 양심의 자유는 독립국가의 자주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세째,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보면, 「民族的 尊榮의 毀損됨이 무릇 幾何며」라는 귀절이 있다. 이 내용은 민족적 尊榮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치적 독립없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거나 압박을 받으면서 민족적 존영을 말할 수는 없다. 독립된 국가의 체면을 유지하고 독립된 정부의 위신을 세우는 것이 바로 민족적 존영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므로 독립국가의 자주민은 마땅히 정치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 독립선언서에서 「新銳와 獨創으로서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補裨할 機緣을 遺失함이 무릇 幾何노」라는 귀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귀절의 내용을 통해서 3·1운동은 세계문화의 대조류에 기여보비할 기회를 얻어 신예와 독창으로 우리 겨레의 세계적 공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사를 일관하는 세계문화의 潮流는 시대나 지역, 또

는 사상의 차이에 따라 어느 정도 경향을 달리할 수는 있겠으나 인류의 최고 이상인 공존공영을 위해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모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데 이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최고 이상인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불안·위구와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는 독립국가의 자주민이 반드시 누려야 할 자유의 하나인 것이다. 3·1운동 정신의 하나가 바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안과 위협에서 벗어나 독립국가의 자주민으로서의 자유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다섯째, 우리 선열들은 각 개인의 정당한 발전을 기하러 했던 것이 獨立宣言의 理想의 하나였다. 각 개인의 정당한 발전이란 자유 정신을 발휘해서 각 개인이 무식·고통·질병·기아·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 풍부한 生을 누릴 수 있는 인격의 완성, 건전한 생활의 보장 그리고 지위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섯째, 3·1운동의 이상은 가련한子弟에게 亡國人的 치욕적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자손들로 하여금 이 樂土에서 영구히 번영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데 있었다. 즉 우리 선열들은 자기들이 살고 일한 결과로 말미암은 행복을 그 자손들이 이어받아 누릴 수 있고 이 세계 이 나라 이 사회를 보다 살기 좋게 만들려는데 이상을 두었던 것

이다.

일곱째, 3·1운동의 이상은 他人을 원망치 않고 자기 자신을 策勵하려는 데 있었다. 국가의 독립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우리의 원수 때문이라고 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독립을 주장하고 획득함으로써 국가적 독립과 민족적 번영을 기하려는 데 이상을 두었던 것이다.

나의 불리한 환경의 책임을 他人에게 전가하고 속수무책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기의 건설과 새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것이 곧 3·1운동의 이상의 하나였다.

여덟째, 3·1운동의 이상은 우리 겨레의 정당한 민족적 요구를 천명하려는 데만 있지 않았다. 도리어 우리 겨레의 적대자인 일본으로 하여금 부자연 또는 불합리한 착오상태를 改善正하여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正經大原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데 이상을 두었던 것이다. 원수를 힘으로 쳐서 이기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무지한 적을 감화와 진리의 힘으로써 어두운 良心을 밝혀주고 잃어버린 열치를 되살리게 하는 것이 적은 물론 적과 상대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3·1운동에서는 우리의 원수인 일본을 향하여 무저항과 정의의 힘으로써 원수를 항복시키려 했던 것이다.

아홉째, 3·1운동의 이상은 우리 겨레의 독립과 번영에만 있지 않고, 일본으

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고 4억 中國人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東洋의 평화를 얻으려는 데 있었다. 즉 일본으로 하여금 동양의 평화를 정복으로써 얻으려는 어리석고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상부상조를 통해 동양의 평화를 얻게 하려는 데 理想을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양의 평화를 얻고자 한 것은 곧 세계평화를 지향하려는 보다 높은 理想을 달성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3·1운동의 이상은 세계적 평화에 있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파괴하는 자를 응징함으로써 세계평화의 획득, 유지를 위한 理想을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 3.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우리 겨레가 조국의 독립과 自主民으로서의 自由를 획득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봉기한 3·1운동은 결국 日帝의 총검 아래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3·1운동은 우리 겨레의 항일 독립운동사 내지 한국현대사에 있어서는 물론, 세계사에서 볼 때도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日帝는 한국합병 이후 10년간 우리 겨레는 자치독립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日帝의 식민통치에 감사하며 즐거이 복종하고 있다고 악선전하여 왔다. 그러나 3·1운동은 이러한 日帝의 악선전은 허위였고, 그들의 식민통치는 잔학한 것이었다는 점과, 우리 겨레의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고 또한 자치 독립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세계만방에 널리 인식시켰다. 이로써 日帝의 무단적 식민통치는 파탄에 직면하게 되어 회유책으로서 소위 문화정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겨레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다는 점이 세계에 확증됨으로써 日帝 敗戰 뒤의 한국독립은 국제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3·1운동은 그 이후 우리 겨레의 독립의욕 내지 항일 독립투쟁의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부터 항일 독립투쟁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60萬歲시위와 光州학생운동과 같은 집단적 독립운동, 또는 義士 각 개인의 日本 要人에 대한 投彈義舉,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한 獨立軍의 항일무력투쟁이 3·1운동 이후 계속해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이다. 만주지방을 활동근거로 한 獨立軍의 항일투쟁 중 대표적인 예로서는 1920년의 汪清縣鳳梧里 전투와 和龍縣 靑山里 전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3·1운동이 가져온 중요한 역사적 사실의 하나는 上海 大韓民國臨時政府의 수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상해 임시정부는 국권을 상실한 日帝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韓民族史의 正統을 계승하게 되었고, 그 조직이나 체제가 民主共和制라고 하는 근대적 정치체제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상해 임시정부수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 겨레의 항일 독립투쟁을 종래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독립운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넷째, 3·1운동 이후 國內에 있어서의 한국민의 민족의식과 국가관념이 한층 제고되어 教育·言論·實業 등 각계 인사들은 민족문화의 향상과 민족경제기반 확립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東亞日報·朝鮮日報 등 兩大新聞이 발간되는 등 民族의 言論활동이 종래보다는 활발해지고, 開闢, 廢墟 등의 잡지가 출간되는 등 문예활동도 활발해지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치적 독립 못지 않게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껴서, 민족자본 내지 민족기업의 육성을 위해 外國商品을 배격하고 國產品愛用을 장려하는 物産獎勵運動을 전개하는 한편 民族企業으로서 京城紡織會社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다섯째, 3·1운동은 이상과 같이 韓民族史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볼 때에도 그 역사적 의의는 적지 않은 것이다. 즉 中國에서는 3·1운동에 자극되어 中國社會의 現代로의 전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5·4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英國의 식민통치하에 있던



印度에서는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 독립운동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타야그라하 사브하운동이 1919년 4월에 일어났던 것이다. 5·4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中國의 민족운동가들이 그러했듯이, 네팔 등 인도 민족 독립운동 지도자들도 한국의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3·1운동은 中國의 民族運動이나 印度의 민족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지나반도, 필리핀과 아랍 일부지역의 민족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4. 3·1운동의 역사적 교훈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민족사에 있어서는 말할 것 없고 세계사에서 볼 때도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3·1운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는 한 民族의 생존과 발전 번영을 위해서 국가의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한 번 잃은 국가의 독립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치열한 투쟁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도 뼈에 사무치게 느낀다. 이러한 3·1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의 대전제가 되는 국가의 독립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민족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작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3·1운동을 통해서 종교·계급·남녀·지역의 차별을 초월한 우리 겨레의 단결력과 총화단결된 겨레의 위대한 역량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겨레의 굳은 단결력과 위대한 역량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우리는 국토가 분단되고 겨레가 양단된 오늘의 민족적 비극도 총화단결로써 극복하고 통일된 민주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3·1운동이 그 당시 강대국의 반식민지, 또는 식민지상태에 놓여 있는 中國, 印度 등 여러 나라의 민족운동 내지 민족독립운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겨레의 세계사적 기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그러나 우리는 3·1운동이 본래 목적했던 바 독립을 쟁취하는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냉정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겨레가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大義와 名分으로 보아서 떳떳했고, 그래서 세계적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大義와 名分에 합당한 독립의 요구가 성취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겨레의 物理的 力量이 미비했다는 점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뼈저린 3·1운동의 교훈을 명심해서 우리는 物理的 力量의 強化를 전제로 한 국민의 총화단결을 통해서 우리 겨레의 당면과제인 남북통일과업을 수행할 준비와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며 또한 밖으로는 강대국들의 세력다툼 속에서 약소국들이 진통하는 냉정한 국제사회에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盡忠의 死生觀 土臺이다.  
自己責任을 完遂하는 길만이



馬

△戰友新聞編輯室長▽

郁

전쟁에서 승리의 대용물(代用物)이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어떤 전쟁이고 간에 이기겠다는 의지(意志)없이 싸운다는 것은 치명적(致命的)인 타격을 받게 마련이다.

그래서 옛부터 군대의 훈련(訓練)은 그 군대의 기백(氣魄)이라고 했다. 적당하거나 그 회수가 만만치 않으면 보잘 것 없어지고 거듭되면 고되더라도 성공(成功)으로 이끌 수 있다.

군인이 군인됨을 나타내는 척도(尺度)가 바로 그가 지닌 사생관(死生觀)에 기준을 두게 된다. 잘 훈련된 군인은 그 사생관에 있어서 다르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의 마당에 입해서만이 그의 참된 태도를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 삶의 보람과 犧牲精神

그럼 여기서 군인이 지녀야 할 사생관은 과연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多樣)할 뿐만 아니라 장기 지향적(志向的) 생활지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참다운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극히 어렵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한 시점(時點)에 다달아서는 그 죽음의 태도가 다를 뿐 생(生)의 종말을 갖는다는 데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구차스럽게 사는 사람은 죽을 때 비굴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일이지만 의(義)를 존중하고 자기 책임(責任)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죽음의 마당에서도 태연(泰然)할 수 있고 또 자기 죽음의 값을 찾으려는데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 주고 있는 사실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 어느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옳은 일에 자기희생을 기꺼이 바치며 살아온 사람은 자신의 사리사욕(私利私慾) 때문에 그의 신념을 저버린 일이 없고 또한 죽음의 길을 가장 값있게 선택(選擇)했던 것이다.

원래 사람의 생사문제(生死問題)를 원초적(元初的)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인간의 태생은 어느 철학자(哲學者)의 말대로 「희망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던져진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초부터 생활경의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생활을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을 도야하면서 환경에 적응되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能力)을 길러 오는 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사회관(社會觀)과 인생관(人生觀)을 가지게 된다.

그와 같은 성장과정에서 확립된 생활신념(生活信念)은 자기생활을 가치화하고 자기 존립(存立)의 의의를 드높이는데 자기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까닭에 살

아서는 그 보람을 찾으려 하고 죽음에 임해서는 그 값어치를 찾으려는데서 뜻있는 생(生)과 사(死)의 상관성을 찾게 된다.

일찍이 동양의 아성(亞聖)이라고 부르던 맹가(孟軻)는 삶과 죽음의 선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갈라놓았다.

「생선도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요. 웅장(熊掌)도 또한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을 때는 생선을 버리고 웅장을 취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고자 하는 것도 나의 욕망(慾望)이며, 의(義)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나의 욕망이지만 이 두 가지 일을 다하지 못하고 한 가지 밖에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삶을 버리고 의(義)를 택하겠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는 또 「의로운 것은 사람이 나아갈 길이다.」라고 하여 사람의 참다운 삶의 길은 대의(大義) 뿐이며 또한 죽음을 택하는 길도 의로운 길을 제쳐 놓고 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삶의 보람과 죽음의 가치(價値)는 대의를 찾는 데에만 이 그 참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군인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한 목숨을 초개같이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영예롭고 또 명예인 것이다.

초년병 때는 그렇지 못했으나 한 해 두

해 병영생활에 젓자 진정한 용기(勇氣)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임전(臨戰)이면 무퇴(無退)하고 자기 책임(責任)을 완수할 줄 알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신념(信念)이 생기게 된다.

즉 인간으로서, 특히 군인으로서의 사생관이 정립되어 충성(忠誠)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의지(意志)가 굳어지게 마련이다.

### 忠誠心 바탕 위의 死生觀

승리 밖에는 대용물이 없다는 전쟁에서 군인이 취해야 하는 제1차적인 기본 임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승리를 확보해야 한다.

적의 침략(侵略)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보호하자면 적의 어떠한 침공상황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희생(犧牲)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의 희생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생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말은 곧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옛날부터 충성(忠誠)을 생명과 직결시키는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옛부터 충축진명(忠則盡命)이라 했고 우국지사(憂國志士)는 나라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한다고 했다.

「나는 4천년 우리 조국을 위하여 또한 5천만 우리 동포(同胞)를 위하여 동양

여러 나라의 평화를 교란하는 잔악한 적을 죽였으니 나의 목적은 이와 같이 바로 크다.

나는 국민의 의무(義務)로 내 몸을 죽여 어진 일을 이루고자 할 뿐이다. 내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결행(決行)한 바이니 아무 한림이 없다. 나의 염원은 오직 조국의 독립 뿐이다.」

이 말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獻身)한 순국투사 안 중근(安重根)의사의 말이다.

의사는 1909년 할빈역에서 당대 일본의 침략원흉인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살해하고 법정에서 한 말로서 그의 참뜻을 우리는 넉넉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생관(死生觀)이 뚜렷하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주저함이 없이 옳은 일을 향해 결행하는 용기이다.

사람이 한 평생을 두고 한 번 밖에 가질 수 없는 그 고귀한 생명을 초개와 같이 내 놓을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국가의 존망(存亡)을 자신의 존망과 똑같이 생각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진심(真心)의 발로인데 그 참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심(忠誠心)이라고 한다.

군인이면 반드시 이와 같은 참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먼지도 말한 바와 같이 군인은 외부(外部)로부터 무력(武力)으로 침공해 오는 적을 직접 무찔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된 마음이 없어가지고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인은 비오듯 하는 총탄과 포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쓴다는 것보다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한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지키려니까 적의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결코 자신의 생명의 고귀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나라를 지킨다는 임무감에서 자신의 책임(責任)을 죽음으로써 다한다는 때에는 빼놓을 수 없는 강렬한 정신 요소의 작용이 있기 때문인데 그 정신요소(精神要素)란 진중보국(盡忠報國) 바로 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강고와 하사관, 병에 이르기까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쳐, 같이 싸우는 동지(同志), 즉 전우애(戰友愛)로 뭉쳐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전은 국민총력전(國民總力戰)이다. 그러나 맨 앞에서 적과 싸워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군인에 틀림 없다.

국민은 협동과 생산으로 우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 지원을 받은 우리의 정신이 똑바르지 못하면 결국 패배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옛부터 싸움터에선 적의 무기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의 정신을 쳐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 우리가 초전필승(初戰必勝)의 정신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데 연유를 두고 있는 것이다.

## 平和엔 戰爭 이상의 意志가

우리의 소원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전쟁이 없는 사회, 즉 평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북녘엔 아직도 적화야육(赤化野慾)을 못버리고 있는 북한 공산당이 도사리고 있다.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갈구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평화도 전쟁과 같이 평화를 강요하는 의지(意志)가 있어야 한다. 평화를 강요하는 유효(有效)한 권력이 있는 곳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평화들이 땅에 정착시키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진중보국, 곧 충성으로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는 말이다.

원래 책임이란 말아서 해야 할 임무를 말하는 것이다.

군인 누구나 자기의 위치에서 말아서 해야 할 임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은 비단 군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서나 그가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 책임같이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책임은 가까운 예로서 인체의 오장(五臟)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폐(肺)는 심장이 그 맡은 임무를 다 하지 않을 때 인간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그 조직의 기능(技能)을 살릴 수 없다.

특히 우리 군인에게 있어서 책임완수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이유로서는 군인이 맡은 책임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부대의 성공과 실패는 물론 나라의 존망(存亡)까지도 책임을 완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간단한 예로서 불침번(不寢番)의 책임이나 항공기 정비의 책임을 생각해 보자.

만약 불침번이 그의 맡은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 비행기의 정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의 재산과 생명의 희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때문에 부대의 기능은 각자 맡은 바 책임완수가 집대성(集大成)됨으로써 크게 발휘될 수 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라도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그만큼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군인이 맡은 책임은 그 어떤 경우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그것을 완수해야 한다.

모두가 그러하지만 군인의 희생은 언제나 목적의식이 있는 생활과 연결되었을 때 그 희생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생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의 공익(公益)에 이바지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이 사회 공익에 반(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참다운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 희생의 고귀성은 언제나 자기 생활의 번함없는 연장으로 장식되어야만 불멸(不滅)의 명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육신(肉身)은 비록 죽어 없어져도 명예(名譽)는 장손만대에까지 꺼지지 않을 불처럼 그 빛을 남기게 됨은 두말 할 것 없다.

삶과 죽음의 연결을 단절시키지 않는 데서 인생의 참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인간에게 있어서 사생관을 뚜렷이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값지게 만들고 죽음을 영광스럽게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곧 충성이며 그 충성 위에 올바른 사생관이 정립된 군인생활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의 올바른 길이라 하겠다.

# 北傀集團의 對南戰略性格

하야 하겠다.  
 業動員論보다는 정신적·사상적인 政治動  
 員論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事實에 尤의  
 우리는 北傀의 對南戰略이 物量的인 產

尹  
 亨  
 鎮



79. 飛

## 1. 序論：國家政策과 國家戰略

北傀의 對南戰略을 論하기에 앞서 共產主義者들에 있어서 戰略의 개념이 무엇이나를 이해하는 것이 必要하다.

서구식 개념에 있어서 戰略은 고대 希臘·로마시대 이래로 語源的으로 지휘관(장군)의 「術(Art)」을 意味하며 政治的 결정에 따르는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用兵作戰에 관한 지휘관의 術으로서 주로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경우에 戰略은 戰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군사정책의 下位概念으로써 이에 봉사하는 군사전략의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점차 정치·경제·군사·사회·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정책이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통합 조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非군사적 분야에 있어서도 전략적 고려가 불가피하게 요청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계통의 전문가들은 國家戰略(National Strategy) 그리고 영국 계통의 전문가들은 大戰略(Grand Strateg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표현에는 다소간 차이가 없지 않으나 그 뜻하는 바는 근본적으로 동질적이다.

國家戰略이나 大戰略은 그 나라의 국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행동방침, 즉 국가정책의 下位概念

으로 개념상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資源의 체계적인 배치와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術」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국가 정책과 국가 전략(또는 大戰略)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前者를 上位概念으로 이해하고 後者를 下位概念으로 이해하여 垂直的인 縱的關係로 이해하는 것은 시인 우위의 원칙 위에서는 서구의 정치원칙에서 오는 개념상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정책과 전략의 구별은 거의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양자의 관계는 垂直的 종적 관계라기보다는 橫的 보완관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統一路線과 大衆路線

공산주의는 政治 이데올로기이므로 정책과 전략이 다같이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규제되며 노선과 실천활동이 軍事化되어 있다. 따라서 서방국가에 있어서와는 달리 공산주의자에 있어서는 개념상으로도 정책(정치)과 전략(軍事)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戰略은 共產化를 위한 계급투쟁과 지도지침의 제시가 그것이다. 계급투쟁을 위하여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이 군사수단이든 비군사수단이든 간에 개념상 아무런 구별도 있을 수 없으며 정치가 전략에 봉사하는가 하면 逆으로 전략이 정치에 봉사하기도 하여

이 모든 요소들이 혼연일체로 되어 있다. 이 논리는 곧 혁명(정치)이 전쟁(군사)이고 전쟁이 또한 혁명이라는 논리에 귀결된다. 물론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독창물이 아니며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命題를 辨證法的으로 확대 원용한 것이다.

마르크스主義는 본질적으로 계급노선이지만 그 실천과정에서는 점차 대중노선의 형태를 외형적으로 취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통일전선이며 정부형태에 있어서 계급 정권을 수립하기 이전의 단계에 있어서 연립정권으로 나타난다. 국제 공산주의운동을 위한 戰略戰術論의 개발에 깊이 집착하게 된 것은 經濟決定論에 사로잡힌 마르크스라기보다는 러시아의 共產革命을 위하여 실천가로서의 입장이 앞섰던 레닌이며, 그는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을 철저히 연구한 것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19세기 유럽에 있어서 노동운동이 일기 시작한 당시에 있어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노동운동에 편승하였고 레닌의 非조직적 운동이 실패에서 오는 경험의 소산으로 經濟決定論에 立脚한 歷史的必然으로서의 사회혁명의 관념을 黨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론으로 계승하고 이것이 후일에 스탈린에 의하여 戰略戰術論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레닌의 조직이론은 코민테른을 참모부로 하는 세계

공산당의 행동통일을 기한다는 의미에 그것이 통일전선이었으나 본질적으로 직업가들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主義였다는 점에서 대중노선과는 일단 구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레닌이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의 전개를 추구하였으나 투쟁수단의 軍事化를 완성치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통일전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대륙의 경우에 있어서는 레닌의 영향을 받은 毛澤東이 레닌의 조직이론 외에 투쟁노선과 수단의 軍事化를 자기 나름으로 체계화하였다. 抗日전쟁과 國共內戰이라는 특수상황을 여건으로 노선·수단·조직의 軍事化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毛澤東이 조직으로써 黨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고도화된 조직과 투쟁수단으로써 전쟁이론을 자기 경험을 토대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통일전선이 그 이전의 그것이 정치적 통일전선이라고 한다면 毛澤東의 그것은 군사적인 통일전선이다. 조직·노선·수단의 軍事化가 毛澤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의 기본사상은 본질적으로 戰爭思想이나 戰爭理論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人民戰爭論이다. 人民戰爭論은 전쟁의 주체로서 명분상 인민을 내걸고 黨의 존재를 위장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革命論의 관점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論」으로 표현

하고 있다. 이러한 戰爭論이나 革命論은 共產化 革命을 의제로 배경하고 국내 문제화하기 위한 논거로 일부나 국가의 존재를 거부하고 인민을 대상으로 하여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대중노선이다.

이러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에서 본다면 마르크스의 經濟決定論에 立脚한 非조직적인 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레닌의 조직이론을 거쳐 毛澤東의 정치적 군사적 대중노선으로 변모하여 왔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그들의 전략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한 쪽에는 군사(戰爭)노선 그리고 다른 한 쪽에는 정치적인 大衆革命論을 설정하여 이 양 노선 간에 다양한 전략노선을 구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괴의 대남전략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戰略論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北傀 對南戰略의 革命戰略의 性格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은 혁명노선과 전쟁노선을 병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革命戰略이라고 한다. 북괴의 대남전략은 위에 언급한 전략의 개념적인 도식에 따른다면 대남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術」이라는 평면적인 이해도 가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남한의 적화」를 위한 革命戰爭戰略이다.

「남한의 적화」는 북괴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한 대남정책이라고 보다는 그들

의 기본정책이다. 기본정책으로서의 「남한의 적화」를 위하여 공간적으로 북괴 자체의 내부에 대한 것과 한국에 대한 것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것의三者, 다시 말해서 북한·한국·국제사회의三者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三大力量論」이다. 따라서 북괴의 대남전략은 三大力量을 토대로 「五大綱領」의 관철에 두고 있으나 그 기반에는 항상 군사노선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三大革命力量論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북괴는 군사적 모험에서 실패한 6·25를 제외하고 한 번도 표면상으로 폭력통일노선을 주장함이 없이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였으나 기술 그들 고유의 신념 체계 때문에 혁명과 전쟁을 병용하는 革命戰爭戰略으로 일관하여 왔다. 다만 변화가 있었다면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표현의 차이가 있었을 따름이다. 대남전략의 기반 구축을 위한 작업이 바로 북한의 革命基地化를 비롯하여 남한의 혁명역량강화, 그리고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로 집약되는 三大革命力量強化論이다.

북한의 革命基地化 노선은 이미 해방당초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朝鮮共產黨 五道黨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金日成이 제창한 것이다. 북한의 革命力量 강화는 「남한 혁명」을 위한 革命基地로 북괴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것은 주로 군사노

선과 경제노선으로 집약되었으나 그 중에서 경제노선은 공산체제가 가지는 질적인 非능물성이 있는데다가 기술의 낙후성, 자원의 부족, 그리고 外債의 압력 등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반면에 군사노선에 있어서는 계속 노력을 강화하여 4대 군사노선으로 계승되었다.

소련의 對美 평화공존체제의 전개와 中·소 분쟁의 전개가 북괴로 하여금 中·소에 의한 군사적 공동지원의 가능성을 난감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1962년 12월 노동당 中央委員會 제4기 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 金日成은 군사력 강화 문제를 토의하고 全人民 武装化·全地域 要塞化·全軍 幹部化·全軍 現代化로 구성되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4대 군사노선의 채택에 의하여 군사훈련의 강화와 전 인민의 무장화, 戰爭思想의 고취, 그리고 軍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이미 전쟁준비를 완료했다고 호언장담했다.

북한의 革命基地化 노선은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Socialism in one country)과 유사한 것 같으면서, 적어도 현실에 있어서는 판이하다. 레닌이 계급투쟁의 관념에 집착한 나머지 대내적으로는 自給自足的인 「戰時 共產主義體制」 그리고 대외적으로 「世界革命」이라는 두 개의 혁명노선을 추구하였으나 독일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서 歐洲 혁명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또한 국내적으로 「戰時



共産主義體制의 실패로 자본주의적 요소의 부분적 부활을 의미하는 新經濟政策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테닌은 그의 말기에 들어가 「世界革命」과 「新經濟政策」의 존재 여부 문제로 黨內 이데올로기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남에 「세계혁명」을 고집하는 일파와 그것의 포기를 주장하는 다른 일파 사이에 中間的인 절충안으로써 一國社會主義論을 제기 채택케 하였다.

一國社會主義論은 「世界革命」의 일시적 보류와 동시에 장차에 있을 世界革命에 대비하여 그 기지로 소련의 국내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북괴의 혁명기치 노선은 남한 혁명을 보류하고 북괴 자체의 내부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남한 혁명을 위한 역량의 증강을 위하여 북한을 우선적으로 革命基地化하겠다는 것이다. 「南韓革命力量」의 강화 노선은 단순한 계급노선이 아니라 내부적인 모순과 갈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모든 反美·反政府 세력을 동원하여 통일 전선에 의하여 묶으려는 대중노선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상층부를 동원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통일전선과 불만적인 사회 하층부를 동원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을 병행시키고 있다. 통일전선의 전개는 공산당이 中核이 되고 그 주변에 각계 각층을 동원한다는 점에 피상적으로는 대중노선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한 엘리트 主義라기보다는 숫자의 지배에 의한 세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마치 민족을 대변하는 양 민족노선으로 위장하기도 하며 통일 문제를 민족 내부문제라 하여 유엔의 권한을 거부하던 그들의 입장이 바로 그 좋은 일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南韓革命力量의 강화노선은 대중으로부터 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한 노선이기도 하다.

국내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한 노선인 南韓革命力量의 강화노선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고립화를 시도하는 노선이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노선이다. 국제혁명 역량의 강화노선은 국제적 지지세력이나 동조세력을 획득하기 위한 노선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고립화와 직결되는 노선이지만 근자 몇년전부터는 대외적인 국제사회에서 民族史的 정통성의 쟁취를 위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마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발전을 대변하는 양 역사를 날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괴의 대남전략은 단순한 무력도발이나, 政治心理戰에 그치지 않고 民族史的 문제까지를 들고 나오고 있다. 국제여론의 악화와 더불어 공산권의 내부적인 不調和로 인한 탈출구의 모색에서 정통성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며 따라서 그것은 보다 본질적인 도전이다.

위에 지적한 三大力量이 동시에 비축

되는 시기를 바로 그들은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며 이 시기를 이용하여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들이 南韓革命的 성격의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규정된 것은 이러한 관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력통일전선을 복피가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복피의 대남전략이 革命戰爭戰略이라고 지적한 필자로서는 革命戰爭戰略에서 그 일부인 혁명전략만을 볼 때에 그렇다는 뜻이며 다른 한쪽에는 항상 戰爭戰略이 깔려 있는 것이다.

#### 4. 「五大綱領」提議의 戰略的 底意

三大革命力量 노선은 그 후 다시금 「五大綱領」으로 확대 제안케 되었다. 1973년 6월 23일 체코공산당 제1비서 후사크를 환영하는 연설에서 金日成은 「평화통일 五大강령」으로 확대 제안하였거니와 첫째, 남·북 간에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둘째,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셋째, 각계 각종 인민들과 정당·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大民族會議의 소집, 넷째, 고려연방공화국의 單一國號에 의한 남·북 연합체의 실시, 그리고 다섯째, 單一國號에 의한 유엔 가입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첫번째의 제의는 군사문제 우선 해결에 대한 복피의 입장의 표현으

로써 그것이 그리는 전략적 저의는 미군 철수로서 韓·美 군사관계를 차단시키며 또 한국군 근대화 5개년계획을 중지시켜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국제적으로 平和志向性을 위장하려는 데 있다. 이에 앞서 우리측에서 불가침·불간섭·휴전협정 효력 존속을 골자로 하는 불가침 협정의 체결을 제의하였음은 사전에 복피의 허를 찌르는 제의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의 제의는 한 마디로 말해서 한국을 흡수·적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합작과 교류에 관한 제의는 복피가 50년대 줄곧 반복 제의해 오다가 그것을 다시 묶어서 「五代綱領」에서 제의한데 불과하다. 非정치 분야에서의 교류에 대한 우리측의 제의를 수락치 않음은 그들의 제의가 政治心理戰上의 가치 외에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政治優先主義의 입장을 고집하는 그들의 기본 태도는 그 표현의 형태야 어쨌든 간에 非정치적인 교류나 합작보다는 정치적 합작에 있음을 간파해서는 아니 된다.

세번째 제의는 대한민국 정부를 협상의 대상으로 거부하고 반면에 광범한 계층을 동원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대중노선을 전개하고 마치 민족주의의 기수인 양 위장하여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시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수행해 보려는 혁명전략의 표현이다. 大民族會議 개최에 대한 주장도 40년대 말 이래

로 주장해 온 政治協商會議의 표현을 달리함에 불과하다. 그들이 남·북한 당국자만이 아니라 全民族的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주장은 소수의 당국자를 이상으로 하기보다는 다수의 대중에 대한 전략적 계산에서 대중의 정치적 동원을 시도하는 전략이다.

네번째의 제의도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이것은 남·북 합작의 노선과 表裏一致하는 것이다. 북괴 전략의 초점이 미군 철수에 두어져 왔음을 고려할 때에 북괴가 聯邦制案이 외세의 간섭없는 통일의 여건이라고 한 것은 韓·美 관계의 단절은 물론 국내적으로는 공산당의 합법화를 시도하여 반공안보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다섯번째의 제의도 政治心理戰的 제의이다. 한국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다면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6·23선언을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單一國號에 의한 유엔 가입을 주장하는 것은 그실 유엔가입을 회피하면서도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을 결코 정치 선전무대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북괴는 유엔 가입에서 오는 실리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지 않는 한, 내심으로는 유엔 가입을 회피하는 반면에 표면적으로는 불가협의 책임을 우리측에 돌리고자 한다.

소위 북괴의 「五大綱領」은 우리측선 평화통일 외교정책이 1973년에 6·23의 선언으로 발표되자 제시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북괴 나름으로 전략적 저의가 있다. 對南革命戰略의 일환으로 전개된 남북대화가 결과적으로는 역으로 북한 사회의 내부에 대한 충격적인 요인이 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전략적 실리가 없는 한 대화 계속이 무의미한 반면에 대화 중단은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6·23 선언이 또한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였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그 반응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괴는 대화 거부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합리화하면서 우리측의 선언에 대한 억제안을 하는 가운데 또한 對南 심리전의 전개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五大綱領」의 제의도 그들의 종래의 제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부에 대한 의식보다도 일반대중에 대한 정치선동으로서의 전략적 저의가 크다고 하겠다.

공산주의 戰略戰術論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상대측의 정부에 대한 의식보다는 대중에 대한 의식이 일차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정부 대표에게 그들의 입장에 관한 어떤 案을 제의하면서도 전략적으로는 대중에 대한 의식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뜻인 바, 이것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전통

적인 전술인 통일전선전술인 것이다.

## 5. 結 語

前項에 言及한 바와 같이 북괴의 대남 전략은 혁명전략과 전쟁전략을 혼합한 革命戰爭戰略이다. 전략의 한 쪽 極에는 「人民民主主義」 혁명전략이 있고 다른 쪽 極에는 무력남침을 위한 전쟁전략이 있어 이 兩極 속에서 그때 그때의 주·객관적인 狀況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쟁전략은 用兵作戰이나 협의의 군사력의 발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군사 전략으로 표현되지만 전쟁 수행을 위하여서는 협의의 군사력의 발동만이 아니라 모든 可用資源의 배분과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産業動員論에 근거할 수 밖에 없으며 북괴는 체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반면에 혁명전략은 대중을 대상으로 대중을 통일

전선에 의해 동원하여 組織化하는 전략이므로 前者의 物量的인 産業動員論보다는 정신적·사상적인 政治動員論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북괴의 對南革命戰略은 物量的인 質·量的인 우월을 남·북관계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物量아닌 인간, 즉 대중을 정치적·사상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심의 장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북괴의 대남 혁명전략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서는 物量的인 국력의 성장이 필요한 조건이지만 결코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物量的인 국력의 성장에 상응, 또는 그것을 앞서는 국민 정신의 조직적 강화가 불가결한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政治的 動員論에 근거하는 정치적 대중노선 및 産業動員論을 토대로 하는 전쟁 전략에 다같이 대처해야 하며 특히 정신역량의 배양을 중요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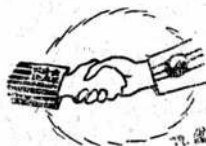
### — 우산없는 집 걱정한 유정승 —

柳文貞公 寬은 공정하고 청렴하여, 비록 벼슬이 수상에 이르렀으나 초가집 한 칸과 배움과 직심으로 담박하게 살았다. 퇴직한 여가에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니 배우러 오는 자가 많이 모여 들었다. 와서 비움은 이가 있으면 머리만 끄덕일 뿐 성명은 물지 아니하였다. 그의 집은 동대문 밖에 있었다. 이 때 金輪寺에 史局을 개설하였는데 절은 성 안에 있었다. 공이 사국의 감수관을 겸임하였는데 항상 軟帽과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며 가마나 말을 타지 않고 어떤 때는 소년과 동자들을 이끌고 시를 읊으면서 왕복하니 사람들이 그 아량을 칭도하였다. 한번은 장마가 한 달이나 계속하여 집에 빗물이 줄줄 새었다. 공이 손에 우산을 들고 비를 막으면서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우산이 없는 집에는 어찌 견딜고」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우산이 없는 집에는 반드시 다른 준비가 있겠지요」하였다. 공이 빙그레 웃었다.

# 韓國과 美國

## 앞으로의 時代

『南北韓의 관계가 장차 어떻게 展開되건 우리는 침략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大韓民國과 계속 협조할 것이다.』



다음은 홀브루크美國務次官補가 지난해 12월 6일 韓國문제에 대해서 행한 미리 준비된 연설 全文이다.

### 편 집 실

極東美國會議 및 韓·美經濟會議과 같은 格이 높은 두 모임에서 동시에 연설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政府에서 東部아시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世界의 그 지역에서의 事態進展과 동향에 직업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는 美國人들 중에서는 소수파에 속한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인의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본인은 現職責을 맡게 된 후 처음으로

오늘 美國과 아시아의 한 單一國家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이 나라(韓國)와 그리고 이 나라의 우리와의 관계가 수년 동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조리있게 엮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본인은 韓·美관계를 긴장시켰고 우리들 서로의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歪曲되게 만들었던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가 앞으로의 時代에 있어서 韓國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또 韓·美關係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時代는 네 가지 主要因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첫째는, 韓·美兩國의 同盟관계입니다. 韓國民들은 지금까지 그동안 이 同盟관계에 차츰 중요한 공헌을 해왔으며, 한편 이 地域의 安保를 위한 우리 군사력의 公約은 계속됩니다.

둘째는, 韓國이 앞으로 성장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경제적 活力이 굉장한 國家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國民의 支持의 바탕이 계속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째는, 北으로부터의 可憐할 위협이 아직도 暗影을 던지고는 있으나 그것은 共產 超強大國들이 北韓의 再侵을 권장하지 않으며 또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으로 해서 누그러졌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최근 數年 동안 韓·美關係의 큰 難題를 다루면서 우리는 우리 兩國關係에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능력을 위해 좋은 조짐이 되는 底力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數年 동안 세 가지 중대한 문제가 韓·美간의 관계에 상당한 손상을 가할 뻔 했습니다. 우리의 진밀한 盟邦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긴장시켰던 이 세 가지

문제란, 첫째, 우리의 撤軍政策에 대한 오해, 둘째, 흔히 코리아게이트로 알려진 일련의 스캔달, 세째, 人權問題였습니다.

1977년-봄 美國의 새 行政府가 駐韓 地上軍의 단계적 철수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 우리의 意圖는 東北아시아와 美國內의 일부 人士들 사이에서 얼마간 오해되었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당초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음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러한 염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을 망정 많이 가라 앉았습니다. 美國과 東北亞에서 現 行政府의 정책이 차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철수는 카터大統領이 그 윤곽을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地上戰鬪部隊에 국한됩니다. 總 3,400명 정도의 1個步兵大隊과 일부 支援부대가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예정대로 2個戰鬪大隊가 더 떠나면 1個 旅團 6,000명의 제1단계 철수가 완료됩니다. 계획된 兵力 再配置가 1981년이나 1982년에 끝나면 약 7,000명의 美陸軍 兵力이 韓國에 남게 됩니다. 이들은 休戰 업무를 맡은 유엔軍 司令部 本部 人員은 물론 情報, 兵站 및 통신병력으로 구성됩니다. 그 밖에 또 9千名의 空軍 兵力도 韓國에 남게 될 것입니다.

美國 議會는 미군 부대가 미국으로 再 배치됨에 따라 상당한 地上軍 장비를 韓

國軍에게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카터大統領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카터大統領은 또한 이兵力 재배치를 軍事的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安保에 영향을 미치는 與件이 크게 변화되면 우리는 그 변화사항을 議會, 韓國政府 및 우리의 다른 아시아盟邦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사태 진전으로 正當化되면 調整될 것입니다.

해롤드·브라운美國防長官은 최근 韓國에서 중요한 論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브라운長官의 訪韓中 우리의(駐韓)空軍 火力을 강화하기 위해 美 F-4戰闘機 1個 大隊가 추가로 韓國에 도착했습니다. 朴大統領과 브라운長官은 또한 韓·美聯合司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는 自體防衛를 위한 韓國의 보다 큰 寄與를 반영한 뿐 아니라 韓·美合同防衛 기획과 調整에 새로운 신축성과 洗鍊味를 부여하게 됩니다.

韓國軍은 이제 자신있게 보다 自立化된 防衛態勢를 내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장일로에 있는 經濟力과 工業力으로 韓國은 그 방위 부담을 더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는 전에 있었던 美軍 감축과 美國의 無償軍事援助의 終了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전입니다.

서울과 와싱턴을 후환들이 놓은 두번째 문제는 코리아게이트事件입니다(이 코리아게이트라는 말은 서투른 비유이지

만 政府에 있는 우리마저도 言論機關에서 만들어 놓은 이用語를 마침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게이트事件은 그릇된 생각, 오도된 행동, 그리고 時宜에 맞는 해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이事件에 관계된 美國人들의 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은 美國의 관할밖에 있는 外國人과 外國機關의 전면적인 협조를 사실상 類例없을만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韓國政府는 상당한 도움을 제공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랐던 만큼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극히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在職중의 不正은 과거에 또 앞으로도 결코 正當化될 수 없었습니다. 行政府에게나 議會에게나, 한가까운 同盟國 政府에게나 그때는 정말 暗黒期였습니다. 그것은 不條理는 몇 해 전에 일어났으나, 이에 대한 調査 임무가 司法府에 부과되었고 또 議會의 자체 노력을 돕는 일이 行政府에게 떨어졌습니다. 이리하여 본 行政府는 때로 두 나라 관계의 위기를 무릅쓰면서까지 그嫌疑에 대한 全面的인 調査를 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가 느낀 유일한 구속감은 우리가 美國 上院이 批准한 條約들에 포함되어 있는 확고부동한 國際 慣例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일부 국면들은 아직

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니다. 아직도 法院과 기타 장소에서 追加의인 조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傷處를 극복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는 우리 同盟의 근본적 유대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읍니다. 東北亞의 安定에 개재하는 우리의 國家 利益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확실히 좋은 일입니다.

近年에 자주 일어나곤 했던 세계 문제는 人權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人權에 관해 表明한 關心을 잘못 인식하고, 韓國內의 이러 저러한 野黨政派들을 지지하기 위한 편파적 表明이라고 해석해 왔읍니다. 반면 우리 국민들은 韓國을 비판하고 인식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완전한 分別力을 보인 것은 아니었읍니다. 이같은 曲解는 지금 양측에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韓國人들은 지금 우리의 人權 立場이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社會도 완벽한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에는 우리 자신의 社會도 확실히 포함됩니다. 그런 까닭에 미국에서는 問題와 業績을 포함하는 韓國의 현실에 대해 보다 균형있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自由 社會와 우리 국가들 간의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유대와 모순되는 慣行들에 대한 정당한 관심을 계속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해에 이러한 문제들을 완과하기 위해 일부 긍정적이고도 건설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보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함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大韓民國이 한 국가로서 強化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또 양국간에 존재해야 하는 건전하고도 긴밀한 協力を 위해서 중요함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韓國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 새 現實

현재 해결됐거나 또는 해결 도상에 있는 과거의 문제들을 살펴 보았으므로 이제는 美國의 매스 미디어에 의해 거의 注目되지 않고 있고, 또 韓國動亂이나 미국 의회 로비事件에 관한 新聞標題를 통해서만 韓國을 인식하고 있는 대개의 美國民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오늘날의 매우 印象的인 현실에 눈을 돌리고자 합니다.

大韓民國에서 지난 16년간의 經濟開發은 전례없는 成功이었읍니다. 自耕自給식 농업경제가 工業技術의 社會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공업 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교육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적 참여였읍니다. 인구 3천7백만명을 갖는데 대학생 수는 내년에 18만 명이 될 것입니다. 서울과 기타 수개소의 중심지에 있는 研

究所와 학술적인 頭腦 탱크는 와싱턴이나 뉴욕에서 가장 우수한 비슷한 연구소의 시설이나 知力과 맞먹습니다.

지난 15년간에 韓國의 實 GNP 성장률은 해마다 평균 10퍼센트 이상이었습니다. 그같은 눈부신 증가율을 감안할 때 겨우 수년 전에 韓國을 안다고 생각했던 美國인들이 이미 이 나라의 많은 곳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포퓰誌에 의한 가장 최근의 세계 최대의 기업체 500개사 명단에 9개의 한국 회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는 이미 랭킹 100位 이내에 올라 있습니다.

2년 전에 世界銀行은 開發途上國家들로부터 세계 貿易에 들어오는 모든 제조품의 17퍼센트가 韓國製였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韓國의 공업화는 이미 옛날의 勞動集約의 성공을 넘어서서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석유화학품, 강철, 조선 및 그밖의 광범한 종류의 중공업으로 급속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昌原에 있는 거대한 重工業團地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논바닥이었던 곳에서 있습니다. 이곳은 매달 적어도 새 공장 하나가 문을 열고 있는 아마도 世界 最大의 단일 중공업 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韓國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1人當 GNP가 1,000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상적인 성장률이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만족할 만한 생활 수

준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韓國 국민은 그들의 福祉가 그들 자신의 정력과 노력의 결과로서 최근 몇년 간에 꾸준히 그리고 극적으로 향상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는 일을 계속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韓國이 이 성장의 결실을 성공적으로 분배하는데 있어서 開發途上世界에서 追從을 不許한다는 世界銀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플레이를 감안한 實質賃金에 성장률은 작년에 20퍼센트였습니다. 國民所得에 대한 노동자들의 所得比率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開發途上國家들의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農家 所得이 도시 가정의 소득과 같은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韓國은 이러한 輸出主導의 經濟活力을 가지고 세계의 貿易國들 사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1977년에 韓國의 輸出總額은 1백억 달러線을 웃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韓國과 기타 臺灣 및 브라질과 같은 몇몇 국가들을 그들 국가들이, 극복하고 더디고 넘어선 『低開發國』의 위치와 구별하기 위해 『新興工業化途上國들』 혹은 『先進 開發途上國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韓國은 수출에 의해 經濟成長을 이룩해 왔지만, 韓國의 전체적인 貿易收支均衡은 여전히 赤字상태입니다. 금년에 韓國은 經常計定에서 처음으로 黑字를 낸

지 불과 1년만에 輸入을 자유화 하기 시작한 意識의이고도 용기 있는 決定을 취했습니다. 輸入自由化에 대한 韓國의 이러한 早期配慮는 그 의도가 나이 어린 業體들에 주어졌던 보호를 줄이려는 것인데, 매우 고무적인 사태발전입니다.

韓國과의 우리의 經濟關係는 새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經濟援助計劃은 韓國의 성공적인 復數經濟와 開放社會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오래 전부터 美國의 經濟援助는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韓·美 兩國間 貿易額은 年間 70억 달러線에 도달했으며, 그리고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韓國이 原子力發電所 및 항공기에서부터 機械類, 原料, 그리고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美國商品의 중요한 판로가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對韓 貿易은 얼마간 赤字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균형잡힌 세계무역을 추구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兩國間(雙務的) 균형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美國의 生産業者들과 實業人들은 증가일로에 있는 韓國 輸入品들의 보다 큰 몫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한 美國實業人들이 韓國에서 자리를 잡아 이러한 기회들을 이용하도록 촉구합니다. 現地(韓國)에 美國人 代表들을 주재시키고 있는 美國商社들은 그들의 對韓販賣를 극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이 韓國은 분명히 經濟活動을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퍼뜨려 주기를 바랍니다.

消費水準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감도 역시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貿易에서 韓國市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려는 韓國側 계획을 환영하며 그리고 韓國의 貿易自由化를 위한 노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제네바에서 요즘 最終段階에 들어가 있는 多國間 通商協商에 대한 韓國의 공헌의 일부가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貿易國으로서의 등장은 일부 美國內 企業들에게 경쟁적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응의 어려움과 싸울뿐 아니라, 그러한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부정적인 保護貿易主義 壓力에 대한 굴복을 피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韓國은 몇몇 特定商品들의 급격한 輸出增加는 保護主義的 반발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에서 말한 保護者와 依賴者와의 관계란 이미 과거지사임이 누구에게나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大韓民國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적이고 活力에 찬 역할을 수행할 위치를 접하게 될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大韓民國은 힘써온 보람 있어 세계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安保協力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많은 기타 이익들이 또한 우리 兩國을 結束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韓國에서 이미 수십억달러의 貿易, 借款, 그리고 投資의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약 1천5백여개의 美國會社들이 현재 韓國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韓國自身은 開發되고 工業化된 국가가 되면서 국제적인 책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美國과 기타 국가들은 이제 國際貿易政策, 通貨改革, 제3세계 원조계획, 核擴散 禁止, 환경오염, 그리고 海洋法 등과 같은 多國間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韓國의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30년간의 밀접한 교류 끝에 우리 兩國 國民들은 복합적인 개인적 및 전문적업 관계망을 발전시켰습니다.

즉 우리의 大學校들은 研究調查協力關係와 學者交換計劃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韓國의 모든 직업분야에서 美國의 주요 大學校의 동창생들이 발전됩니다.

이미 韓國의 숙련된 技師들과 技能工들이 中東 및 기타 지역에서 경제적 사업계획을 벌이고 있는데, 가끔 美國會社들과의 생산적인 協力, 혹은 合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韓國은 과거 他國의 開發援助에 의존했던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써 요즘 他國에 대한 기술원조

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現實은 우리 兩國이 서로를 위해 과거보다 더 유익한 기초에서 盟邦이자 友邦으로서 협력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의견을 같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 見解를 달리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우리가 최근 2년 동안 지녀온 상호 信賴와 존경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大韓民國이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는 開發途上國들의 선두에 서 있다지만, 여전히 평화는 韓半島의 全住民에게는 물론 이 지역의 모든 住民들에게 필수불가결의 要素입니다.

北韓지도자들은 마땅히 韓國의 지도자들로부터 教訓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北韓은 훨씬 더 강력한 自然資源基盤과 더욱 고도로 발전된 下部構造에서 출발했지만, 經濟競爭에서 점점 더 韓國에 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기는 힘들지 않습니다. 韓國의 經濟의 기적을 만들어 낸 文化的 에너지 및 재능과 똑같은 크기의 文化的 에너지 및 재능이 北韓에서는 공격을 위해 장비되고 조직된 가공할 軍事體制 構築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美國의 韓國防衛公約은 끊임없이 軍事的 優位를 추구하는 나머지 기타 모든 고려사항을 희생시키고 있는 北韓의 人間的 浪費 즉, 無益

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南北韓 정부와 자리를 같이 하여 韓半島 긴장 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누차 명백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動的이면서 자신만만한 南韓 社會의 현실을 계속 외면하고 있고, 韓半島의 장래는 大韓民國의 직접적인 참여없이 美國과 더불어 요리할 수 있는 것인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본인은 왜 우리가 北韓의 제의를 수락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왔습니다. 뭐니 해도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적대국들과의 대화를 찬성합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平壤과의 대화의 유일한 중요 사항은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입니다. 南韓의 완전한 참가가 없는 그와 같은 회담은 유익한 목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와 같은 회담은 北韓의 주장을 지지해 주며 우리의 조약 盟邦과 우리 兩國間的 관계에 곤란을 제기해 줄 뿐입니다.

大韓民國은 비공식적인 실업계의 접촉이나, 혹은 정부급 회담의 지원하에 北韓과의 貿易通路를 개설하고자 제의했습니다. 南韓은 전반적인 긴장완화 조치들에 관하여 北韓과 직접적인 대화를 재개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兩 당사자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느 때라도, 그와같은 회담에 선행조건 없이 참가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을 향한 韓國인들의 소망은 피비

린내나는 군사적 정복—南韓의 國力과 우리들의 확고한 安保 支援에 부딪쳐 불가능한 것이 분명한—을 떠나서 상호간의 신뢰를 조성하고, 엄청난 군비 부담의 감소를 가능케 해 줄 단계적인 대화를 통하여 분열된 社會를 통합해 감으로써만이 증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中國, 日本, 소련 및 美國 등 4大強國은 韓半島 평화 및 긴장완화에 중요한 利害關係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대화에 직접적인 관련 국가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4國國, 또는 궁극적으로는 6國國 회담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또 만일 中國과 소련이 개입을 꺼린다면 3者會談으로 하자는 다른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平壤은 계속해서 서울측과의 여하한 현실적 회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中國과 소련이 韓半島의 긴장을 줄이는데 있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 北韓의 주요 同盟國들이 大韓民國과의 관계에서 相應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의 北韓과의 관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제의했습니다. 正式 外交의 承認이라는 어려운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해도 이들 주요 국가들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現實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時點에 가서는 北韓은 南韓의 발전이 그들 자신의 편협하고 壓制的인 政權에 대해서 갖는 함축적 의미를 直視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해온 제의는 事理에 맞는 제의입니다. 그러나 만약 北韓이 그들의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을 고집한다면 北韓은 이웃인 共產 大國들간의 敵對관계와 긴장의 세찬 바람에 시달리는 孤立된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北韓이 韓半島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기회에 긍정적으로 對應해 주기를 바랍니다. 東北亞 전체를 위해서 분단되어 있는 南北韓간의 異見解消을 지향하는 前進보다 더 밝은 전망을 열어줄 수 있는 사태진전은 없습니다.

南北韓의 관계가 장차 어떻게 전개되건 우리는 침략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大韓民國과 계속 협조할 것입니다. 南韓 자체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리고 韓·美 양국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가끔 難題와 긴장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豫期해야 합니다.

우리 두 社會가 서로에 대해서 理解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美國에서의 韓國에 대한 현재의 이미지는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늘일 수 있는 방도를 발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人士들이 대표하는 民間部門은 交流와 접촉을 뒷받침하는 일을 오로지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예로 들면, 相互 交流를 확장하고, 또 美國 大學校에서의 韓國學 開發을 지원하려는 일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理解 增進의 또 하나의 주요한 무대는 매스 미디어가 제공합니다. 美國에는 비교적 다수의 韓國 記者들이 와 있으나 韓國에 常駐하고 있는 美國 매스 미디어의 대표는 없습니다.

우리는 韓國에서 오랫동안 韓國的 現場의 일부가 되어 왔던 대개의 절박한 豫言과는 크게 상이한 긍정적인 상황을 봅니다. 이미 日本과 西方에 의지하는 빈곤한 나라가 아닌 韓國은 오늘날 자신의 역량을 심본 발휘하고 있습니다. 韓國은 아직도 성취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나 그가 이미 걸어온 길은 미래에 대해 희망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최근의 어려움이 이제 수습됨으로써 1979년이 大韓民國과 美國에 대해 양국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게 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양국 관계의 새 현실을 양국 국민들에게 널리 이해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1979년에 우리는 貿易과 高位層 協議와, 모든 일에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일, 즉 韓國과 美國 두 나라에서 다같이 認識에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발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本 行政府는 지금 그같은 노력을 할 용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 北韓의 異質化 實態



北傀는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을 永久分斷政策이라고 歪曲宣傳하고 있지만, 그들 體制의 硬直性이야 말로 傳統文化와 民族意識에까지 分斷을 永續化시키는 動機를 注入하고 있다.

<편집실>

다음은 國土統一院이 統一問題 國際學術會議에서 報告한 「北韓의 異質化」實態(1978年版)를 要約 整理한 것이다. 國土統一院은 北韓의 異質化實態를 實證的으로 究明할 수 있는 資料의 開發을 위하여 77년부터 歸順者와 以北 5道越南民들을 대상으로 科學的인 調查를 실시해 오고 있다.

<編輯者 註>

## 1. 異質化 要因

### 가. 北韓의 政治理念

먼저 民族異質化의 根本要因부터 檢討해 보면, 北韓이 우리의 民族的 傳統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은 우리의 傳統思想과는 無關한 共產主義의 政治理念을 導入하였기 때문이다.

그 過程을 보면, 北韓共產集團은 蘇聯

의 影響力이 絶對的인 50年代末까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一般原則을 내세우면서 社會主義의 改造와 制度의 確立에 力點을 두었으며, 그 후 中·蘇紛爭이 激化된 60年代 前半에 와서는 黨의 思想體系의 確立을 強調하는 한편 捏造된 金日成의 抗日革命傳統을 모든 北韓住民들에게 強要함으로써 金日成 唯一體制의 構築에 拍車를 加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金日成 唯一體制가 確立된 '60年代 中半을 고비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自己 實情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했다'는 金日成 主體思想을 指導理念으로 내세우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黨規約과 憲法에까지 明文化해 놓고 있다.

77年 9월에 發表된 「社會主義 教育체제」에도 明白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金日成 主體思想이란 다름 아닌 共產主義의 새 人間形成의 策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 나. 人間改造運動

그들은 이를 다그치기 위해 소위 「3大革命運動」이란 大의인 人間改造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즉 78年 9月 9日 金日成의 演說을 통해 본 「3大革命運動」이란 思想革命을 통해 全人民을 革命化, 勞動階級化하여 共產主義革命家를 만드는 것이고, 技術革命이란 勞動生産力을 發展시켜 人民經濟의 自立化를 指向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文化革命을 통해서 는 主體思想을 制度化시키고 共產主義의 人間化를 위한 教育制度를 確立하여 革命的 文化의 發展을 期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이 젊은 青年들과 大學生들로 構成된 「3大革命小組」를 各級機關에까지 浸透시키고 있는가 하면, 소위 「3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까지 벌이고 있다.

이는 곧 北韓의 全住民을 金日成 主體

思想으로 武装시키고 思想革命을 이루어 生活의 共產化를 完結시키겠다는 것인바, 이로 말미암아 民族의 異質化는 더욱 深化되어 가고 있을 뿐이다.

## 다. 異質化와 統一問題

이렇게 볼 때, 金日成 體制가 아직 確立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北韓住民의 思想武装도 本格化되지 않아 民族의 異質化가 深化되기 以前인 50~60年代는 그래도 政治的 統一에 의한 民族 再結合의 可能性이 있었다.

그러나 金日成 主體思想이 本格化되기 시작한 60年代 後半을 고비로 民族異質化가 深化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政治的 統一은 勿論이고 同時에 民族 同質化의 問題가 重要한 課題로 擡頭하였다.

따라서 民族異質化의 克服을 基盤으로 한 內面的 統一이 장차 政治的 統一에 先行하는 우리의 當面課題라 하겠다.

## 2. 生活樣式

### 가. 家庭生活(家族形態)

그러면 北韓의 異質化의 實態가 어떠한가를 生活樣式부터 언급하기로 한다. 우선 家庭生活에 대해 살펴보면, 家庭이란 원래 愛情과 尊敬을 바탕으로 한 家族들의 私生活을 保護하는 神聖不可侵의 보금자리이지마는, 家庭을 「낡은 思想과



遺習]의 溫床으로 보고 있는 北傀 共產集團은 家庭을 다만 夫婦, 父母, 子女 등의 構成集團으로만 볼 뿐 아니라 家庭도 단순히 社會의 細胞單位로서만 봄으로써 傳統的 意味의 순수한 家庭은 一切 否認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48年 9月 戶籍制度를 廢止하고 個人單位的 公民證制度를 實施한 이래 家族生活의 보금자리로서의 傳統的 家族는 점차 消滅되어 버렸으며 反面에 家族成員의 宿舍所로서의 勞動單位 家族의 比率이 60年代 前半 以後 急激히 上昇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 子女養育

北韓의 家庭破壞는 子女養育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바, 子女養育은 本來 父母의 神聖한 責任인데도 北韓 共產集團은 이를 拒否하고 金日成을 어버이로 하여 集團養育을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46年 4月부터 탁아소 制度를 實施하여 54年 以後 女性의 勞力動員을 위해 이를 本格化한 이래 北韓의 大部分의 父母들이 자기 아이를 託兒所와 幼稚園에 強制로 委託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傾向은 더욱 增加되어 가는 趨勢에 있다.

더우기 76年 4月에 와서는 이를 어린이 保育教養法으로 法制化하고 소위 「主體型의 人間」을 만든다는 名分下에 嬰兒 때부터 週 또는 月託兒所에 集團 收容

하여 條件反射的인 教育을 實施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린이를 좌우는 式的 便利한 方法이 아니라 非人間的 革命的 育兒方法이며, 家庭으로부터의 女性의 解放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社會的地位를 박탈해 버린 惡法임을 우리는 留意할 必要가 있다.

### (2) 餘暇活用

또한 78年 4月에 制定된 社會主義勞動法은 8時間 勞動, 8時間 學習, 8時間 休息을 規定하고 있지만 北韓 住民들은 100日 戰鬪, 速度戰 등 過度한 勞力動員과 過多한 作業量의 策定, 그리고 反復되는 政治學習 등으로 말미암아 짜여진 日課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마음의 여유가 없어 大部分이 個人的인 私生活을 가질 수가 없다.

가령 映畫觀覽의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가 強制 動員되거나 餘暇가 없어 못보는 實情이며 이러한 傾向은 60年代 後半 以後 急激히 上昇되고 있는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 나. 衣食住生活

### (1) 衣生活

北韓 住民들은 人間的 基本的 生活條件인 衣·食·住 生活마저도 黨的인 規制를 받고 있다.

천으로 配給을 받을 수 있는 特殊層 一部를 除外한 모든 住民들의 日常服이

나 作業服을 여름과 겨울에 겨우 한벌씩 配給을 받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傳統的인 韓服이나 洋服은 60年代 以後 점차 그 자취를 감추고 制服化되고 劃一화된 레닌服이 日常化되어 가고 있다.

## (2) 食生活

食生活도 規制를 받게 되어 있어 勞動者, 事務員은 그들의 職位와 等級에 따라 配給量이 다르며 農民은 그들의 年間 勞力日數에 따라 決算分配를 받으나, 收買分을 除外하면 都市 勤勞者의 配給量과 큰 差異가 없다. 特히 旅行者는 糧券을 持參해야만 現地에서의 食事が 可能하다.

이러한 配給量도 戰爭備蓄米 등의 名目으로 15日分中 3日分은 控除당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쌀과 雜穀을 3:7의 比率로 制限하고 있어 50年代는 쌀 代身에 옥수수가 主穀이던 것이 60年代 以後는 加工米인 옥쌀로 代置되어 가고 있다. 이는 北韓의 食糧事情에 대해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우기 肉類는 金日成 生日, 黨創建日 등 소위 社會主義 名節에 한해 적은 양의 돼지고기, 닭고기를 供給받을 수 있는 바, 이것마저도 60年代 以後는 점차 개고지, 토끼고기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쇠고기는 거의 구경조차 할 수 없는 實情이다.

## (3) 不足食糧 解決策

따라서 北韓地域에는 不足한 食糧을

充當키 위해 各種의 不法行爲가 盛行하고 있는 바 農村에서는 6·25 以後 借用 및 國家貸與制가 생겨 暗去來는 줄어들었으나 60年代 以後 탈곡시에는 버가마 숨기기, 강냉이 따고 흔적 없애기, 고구마 덜캐내기 등의 竊취행위가 盛行하고 있는 反面에, 都市에서는 借用이나 國家貸與가 없는 代身에 비싼 가격의 암거래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능촌과 마찬가지로 配給量 속이기, 倉庫털기, 食糧運搬車輛털기 등의 不正行爲가 60年代 以後 점차 盛行되고 있는 實情이다.

## (4) 住生活

또한 住宅마저도 統制의 手段으로서 集團化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級 行政委員會에서 各自의 職位와 社會成分에 따라 差等配定을 받게 되어 있다. 즉 一般住民은 房 하나 내지 2개, 부엌 하나의 10坪 未滿을 配定받으나, 便所는 共同便所인 反面에, 特殊層은 房 2, 부엌 1 그리고 倉庫 兼 單獨便所가 있는 13~15坪 程度를 配定받는다.

그것마저도 新婚夫婦는 結婚後 몇 년이 지나도 住宅配定을 받지 못하는 形便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살거나 더부살이를 해야 하는 實情이다. 이와 같이 生活空間마저도 철저히 制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 (5) 家屋所有形態

따라서 모든 財産의 個人所有가 認定

되지 않는 北韓에서는 個人所有의 家屋은 50年代 前半以後 漸次 消滅되어 버렸고 그 代身에 協同農場이나 國家所有만이 있을 뿐이다.

### 3. 生活習俗

#### 가. 冠婚喪祭

##### (1) 結 婚

다음에는 生活習俗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冠婚喪祭에 대하여 말하자면 北韓共產集團은 우리의 傳統的 冠婚喪祭를 封建社會의 殘滓라 하여 하나의 社會的 要式行爲로 變質시키고 말았다.

우선 結婚이란 人生의 가장 重要한 大事이지만 結婚自體를 「붉은 家庭의 탄생」으로 규정하고 있는 北韓共產集團은 76年 7月 政務院 決定에 의하여 結婚年齡마저도 男子는 30세, 女子는 28세 以上으로 制限하였다.

配偶者 選擇도 男女 當事者의 自由로운 意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各自의 所屬團體나 職場의 細胞黨委員長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愛情이나 外貌보다도 成分이나 黨性을 男女 모두 重視하는 傾向이 增大되어 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結 婚 式

또한 結婚式場도 自宅, 職場食堂, 人民委員會 會議室 등으로 制限되어 있다.

며 根本的으로 旅行自體를 制限하고 있기 때문에 新婚旅行도 黨幹部 등의 特權層이나 그 子弟들에게만 許容이 되며 結婚式 參席人員도 黨에서 철저히 制限하여 50年代 後半以後 急激히 減少하여 30名 程度의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 (3) 葬 祭 禮

또한 北韓共產集團은 故人의 冥福을 빌고 哀悼을 해야 하는 葬禮마저도 勞動力이 消盡된 物體의 處理節次로 看做하여 問喪客을 極少數의 親知나 同僚로 制限하고 있으며 祭禮도 復古主義의 病弊라 하여 迷信으로 看做하며 故人의 生存時 革命業績에 대한 批判의 機會로서 父母의 祭禮만 겨우 認定하고 있는 바, 父母에 대한 제사마저도 黨員은 지낼 수가 없으며 配給制度 등 食糧事情으로 인해 60年代以後 漸次 消滅해 가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 나. 歲時風習

##### (1) 名 節

원래 舊正과 8月 秋夕은 우리 民族의 가장 큰 名節이지만은 北韓共產集團은 이러한 傳統的 名節은 낡은 風習이라 하여 배격하고 새로운 名節을 制定 施行하여 왔다.

그러다가 60年以後 社會主義 名節이라 하여 이를 公式化하였는데 金日成生日 政權樹立, 黨創建日이 그들이 말하는 名

節이며, 이 때는 全住民을 強制 動員하여 社會的으로 大대의인 行事を 함은 勿論이고 白米, 고기 등의 特別 配給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말하는 名節이란 것은 우리나라 固有的 名節이 아니라 共產主義思想 鼓吹와 金日成體制 確立을 위한 集團行事事日이라 하겠다.

## (2) 民 俗

民俗도 傳統的 民俗은 抹殺되고 새로은 共產主義 行事로 變質되어 왔다.

50年代는 共產主義思想 教養을 위한 集團行事事로서 傳統的인 農樂이나 씨름, 줄다리기 등을 活用하기도 하였으나, 60年代에 들어와서는 社會主義 建設의 手段으로서 勞動者의 놀이를 普及시키고 활쓰기의 標的을 美軍과 國軍으로 하는 등 革命的이고 戰鬪的인 놀이로 變質시켰는가 하면, 特히 金日成 偶像化의 手段으로서 抗日 빨치산 「戰跡地踏査」, 「忠誠의 편지 이어 달리기」 등의 行事事로 變質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오늘날 北韓에서는 民族固有의 傳統的 民俗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모든 行事事들이 金日成 偶像化의 手段으로만 利用되고 있다.

## 다. 信仰生活

### (1) 基本立場

共產主義者들은 唯物論의 立場에서 宗

教를 阿片으로 看做할 뿐 아니라, 共產主義思想에 대한 最大의 害毒要素로 規定하고 있다. 特히 1959年 金日成은 「우리는 왜 宗教를 反對하는가」라는 反宗教 運動 指針書를 發表하고 宗教人들의 反革命的인 行事事를 조작, 鬪爭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憲法에 規定하여 마치 宗教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制限, 彈壓, 抹殺의 3段階를 거쳐 宗教를 抹殺하였다.

### (2) 信仰生活 抹殺過程

이와 같은 北韓의 宗教抹殺過程을 具體的으로 보면, 48年 以前인 初期에는 日曜日에도 宗教人들에 대한 勞力動員, 共產黨員들의 教會占據에 의한 宗教集會의 妨害, 그리고 46年의 土地改革과 產業國有化를 계기로 모든 宗教團體 所有의 山林과 土地의 無償 沒收 등을 통해 北韓住民들의 仰信生活에 대해 陰性的으로 制限을 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6.25를 契機로 53년에 이르기까지는 宗教機關의 建物 自體마저도 그 用途를 變更하는 한편 動亂中에 파괴된 教會와 寺刹들은 아예 撤去해 버렸다.

이렇게 해서 54년부터는 宗教人들에 대한 直接的인 彈壓과 迫害를 加하여 宗教를 完全히 抹殺하였는 바 그 代表的인 例가 58年의 中央黨 集中指導事業時에 宗教人과 그 家族들을 特殊監視 對象者

로 分類하고 敵對階層으로 낙인을 찍어 政治的 社會的 統制를 加한 措置이다.

### (3) 實 態

따라서 現在 北韓의 경우 宗教財産이란 存在조차 없지마는 教會는 託兒所, 倉庫, 事務室 등으로 變造되어 버렸고 남아 있는 寺刹은 社會安全全部의 管理下에 黨幹部들의 休養所로 代替 活用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가 하면, 過去の 宗教人들과 그 家族들은 黨員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一切의 公職에서 除外되며 심지어는 住居移轉, 旅行, 上級學校에의 進學마지도 철저히 감시 統制를 당하는 등 계속해서 社會的 身分의 差別待遇를 받고 있는 實情이다.

다만, 極秘裡에 聖經 등 宗教書籍을 保管하고 있거나 祈禱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것이 발각시에는 즉각 處刑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基督教聯盟, 佛教徒聯盟, 天道教 靑友黨 등 偽裝宗教團體를 만들어 對外的으로는 韓國에 대한 歪曲선전에, 對內的으로는 宗教人들을 相對로 한 統一戰線의 形成劃策 등 對南戰略에 活用하고 있는 것이다.

## 4. 傳統文化

### 가. 言 語

#### (1) 文化語

北韓共產集團은 人間의 純粹한 感情과 思想을 傳達하는 言語마저 「革命과 建設의 強力한 武器」라고 規定하고 金日成의 主體의 言語思想과 黨의 言語政策에 따라 이루어진 平壤말을 所謂「文化語」라고 定義하면서 우리의 傳統的인 標準語의 概念을 否定하고 있다. 이것은 標準語란 말을 쓰면서 서울 말과 混同되기 쉽다는 말하자면 순진히 政治的 意圖에서 發想된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경우 言語가 慣習적으로 變化 改善되는 것이 아니라 黨의 政策으로 改革 實施되고 있는 바 그 變遷過程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54年 9月 朝鮮語 綴字法을 制定하여 1933年 以來 施行하여 오던 한글 맞춤법 統一案을 廢棄하였고, 66年 6月에는 「朝鮮말 規範集을 편찬하고 平壤中心 말을 所謂「文化語」로 確定하였으며, 그 후부터 社會主義 理念과 符合되는 言語의 普及에 力點을 두어 왔다.

#### (2) 言語의 變化

이러한 政治的인 言語改造에 따른 北韓言語의 實際 變化狀況을 보면, 50年代에는 解放後 咸鏡道出身 共產主義者들의 得世에 따라 「아이되겠오, 아바이, 마스다」 등 咸鏡道사투리가 平安道 말과 混用되다가 大衆化되었다.

그러나 60年代에 들어오면서 100日戰鬪, 비닐론速度, 千里馬速度 등 金日成의



敎示나 黨의 政策示達에 의한 新生活들이 많이 登場하였으며 特히 70年代에 와서는 이러한 用語들과 함께 빨치산, 同志, 英雄 등 革命的이고 階級性을 띤 用語들이 常用化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의 言語는 咸鏡道 사투리 등 地方語 中心에서 革命的이고 煽動的인 言語로 變化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3) 外來語

한편 外來語의 變化狀況을 보면 50年代는 日本語가 漸次 사라져 가는 反面에 露語가 들어와서 廣範하게 使用되기 시작하였으나 60年代는 露語는 技術部門과 一般用語로서, 中國語는 制度部門의 전문 용어로서, 日本語는 水産部門의 용어로서, 그리고 英語는 機械部品名으로서 서로 混用되기에 이르렀으며 70年代에 와서는 갑빠니아, 구루빠, 追尾主義, 自力更生 등 露語와 中國語의 一部를 所謂 「文化語」로 固着시켰다.

소련의 影響力이 絶對的이던 50~60年代는 露語의 使用比率이 支配的이었으나 그 以後 中國語의 使用이 漸次 上昇하고 있음은 外來語의 變化를 통해서도 北韓과 中·蘇와의 關係를 알 수 있다.

### (4) 日常用語

따라서 言語가 政策的으로 改造되고 있고 中·蘇文化의 影響을 絶對的으로 받고 있는 北韓의 日常用語를 통해 본

그 特徵을 살펴보면 敵對分子, 反動分子, 殘餘分子 등 敵對階層을 나타내는 用語, 最後의 勝利者, 黨의 革命思想, 不屈의 革命精神 등 革命性을 나타내는 用語, 그리고 金日成의 忠直한 아들, 어버이 首領 등 金日成을 讚揚하는 用語들이 많이 使用되고 있다. 그 結果, 民族固有의 아름다운 傳統의 言語는 그 자취를 감추어 가는 反面에 革命的인 用語에서 金日成 讚揚用語로 變化되어 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 나. 歷史

### (1) 史觀

또한 5千년의 民族史를 解釋하는데 있어서도 현저한 異質化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北韓共產集團은 人類의 歷史를 唯物史觀에 立脚하여 階級鬭爭史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民族史를 「黨性的 原則」에 의해 解釋하여 金日成 體制를 正當化하는데 利用하고 있다.

그들은 解放後 歷史觀이 不在하였던 初期에는 46年の 朝鮮民族鬭爭史에서 提示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民族史를 社會主義 理論에 立脚해서 韓國共產黨史 中心으로 解釋하였으며, 그 후 마르크스의 5단계 經濟發展論의 導入이 論議됨에 따라 56年과 58年の 「朝鮮通史」 上·下卷에서는 唯物論에 立脚해서 解釋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0年代에 들어서면서 金日成의 偶像化를 위해 近世史, 現代史를 中心으로 한 58年의 朝鮮民族解放鬪爭史로 改編하고 金日成의 革命傳統의 浮刻에 力點을 두었으며, 特히 黨歷史研究所가 確定한 62年의 朝鮮通史改正版은 金日成體制的 確立을 위한 共產主義의 革命意識의 反映을 그 骨幹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2) 歷史歪曲

우리의 民族史를 歪曲하고 있는 몇 가지 例를 들어보면 古朝鮮, 扶餘, 三韓은 部族國家임이 儼然한 歷史的 事實임에도 그들은 古代奴隸制 國家라고 斷定하고 있으며, 高麗時代의 妙淸과 鄭知常의 亂은 中央과 地方間의 地域的 對立으로 일어난 것인데도 大土地 所有者와 中小封建階級間의 鬪爭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訓民正音은 民衆의 切實한 要求에 副應하여 世宗大王이 創制한 民族固有의 言語인데도 불구하고 封建制度를 強化할 目的으로 만들었다는 등 歪曲을 하고 있는가 하면 徐敬德, 李滉, 李珥는 다같이 性理學의 代表의 人物로서 朱子學의 土着化와 發展에 크게 寄與하였음에도 徐敬德과 李珥는 唯物論者로, 李滉은 觀念論者로 역지 區分을 하고 있다.

더우기 8·15解放은 儼然히 愛國志士들의 獨立鬪爭과 聯合軍의 勝利에 의한 祖國의 光復이었는데도, 그들은 50年代

는 蘇聯에 의한 解放이라고 하다가 金日成 偶像化가 本格화된 60年代에 와서는 이를 金日成의 抗日鬪爭의 所産이라고 날조하고 있다.

## (3) 文化遺産

따라서 先祖가 물려준 文化遺産마저도 單純한 遺物로 認識하고 있는 그들의 遺蹟變造過程을 보면 50年代까지는 江西古墳 등 有名한 文化遺産은 管理人을 配置시키는 등 保存은 하였지만 觀覽은 外國人이나 特殊層에게만 許容하여 왔다. 그러나 60年代 前半에 와서는 威興本宮 등과 같은 文化遺産은 博物館으로 改造使用하였다.

이렇게 해서 60年代 後半부터는 金日成 偶像化와 關聯, 金日成과 그 家族들의 行蹟地는 勿論이고 記念物들을 造作하여 全地域에 設置하였고 70年代에 와서 이를 政令 等に 의해 制度的으로 確定하였다.

## 다. 歲時風習

### (1) 文化·藝術觀

또한 北韓共產集團은 「民族의 形式에 社會主義의 內容의 革命的 文化·藝術」만을 發展시켜야 한다는 命題下에 勞動階級の 利害關係를 옹호하는 內容의 「階級性」과 黨의 路線과 政策에 대한 忠實性을 表現하는 「黨性」 그리고 人民들의 革命思想과 鬪爭意識을 鼓吹할 수 있는

革命性만을 文化·藝術의 基本 內容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傳統的 民族文化와 藝術의 純粹性을 一切 否定하고 오히려 變造 말살해 왔다.

## (2) 民 謠

民謠의 變造 抹殺過程을 살펴보면 6·25 前까지는 우리 民族의 얼이 스민 傳來의 民謠가 北韓地域에서도 불리워졌으나 動亂後인 50年代 前半에 이르러 民謠를 부르는 者를 要監視人物로 指目하고 民謠를 禁止하기 始作했다.

그 후 55年 朴憲永 肅清 以後 一部 民謠의 歌詞를 金日成을 讚揚하고 建設과 革命, 黨의 政策을 宣傳하는 內容으로 變造하였는 바, 例를 들면 『웅헤야』의 民謠를 「復舊事業 웅헤야 일하러 가세 웅헤야」로 變造한 것이다.

그러나 58年 中央黨 集中指導事業을 契機로 하여 變造해서 부르던 民謠마저도 古典民謠는 復古主義라 하여 完全히 禁止해 버렸다.

## (3) 古典文學作品

古典文學作品도 革命性과 階級性을 鼓吹하는 立場에서 評價 普及하여 왔는 바 例를 들면 興夫傳은 착취계급과 人民間의 對立鬭爭을, 洪吉童傳은 封建의 身分制度에 대한 農民蜂起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古典作品마저도 읽어본

사람보다는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며 읽는 傾向도 60年代 以後 急激히 減少, 消滅해가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 (4) 現代文學作品

이어서 現代作品의 讀書狀況을 보면 50年代 前半까지만 해도 질레꽃, 純愛譜 등 解放前의 文學作品을 숨겨두고 몰래 읽었으나 現場 作品活動의 指針을 提示한 50年代 以後로는 「땅」, 「林巨正」 등 寫實主義의 小說들이 많이 普及되었다.

그러나 60年代에 들어와서는 「보친보의 등불」, 「두만강은 알고 있다」 등 金日成의 抗日遊擊隊 活動을 捏造 美化한 作品들이 많이 普及되었는가 하면 金日成 偶像化의 本格的인 展開運動과 더불어 「抗日빨치산 參加者들의 回想記」와 같은 作品들을 全面的으로 普及하여 強制로 읽게 하고 學習하기에 이르렀다.

## 5. 心理構造

### 가. 政治社會化

人間의 心理構造를 理解하는데 있어 가장 重要한 것은 政治社會化 過程이다.

특히 共產主義 社會에서는 人間心理를 길들이는 作業, 즉 「教化」나 「教養」이니 하는 人間의 訓練過程을 重要한 課題로 삼고 있다.

北韓 共產集團은 우선 1次의 으로 어린 이들을 生後 3個月부터 父母와 격리, 集團收容함으로써 肉親愛를 斷絶시키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 주는 首領」이라는 式으로 金日成에 대한 崇拜, 服從心を 培養하고 있다.

다음 과정으로는 靑少年들을 共產主義 革命의 忠實한 前衛隊로 만들기 위해 共產主義 思想, 革命傳統 教養 등의 政治思想 教育과 少年團, 社勞靑 등의 組織生活를 통해 黨에서 틀어 쥐고, 金日成이「要求하는 대로 思考하고 行動하는」 金日成에의 忠誠心を 強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自己의 世界觀이나 價値觀이 確立되어야 할 成人들마저도 金日成體制에 盲從하는 人間型을 만들기 위해 集團勞動과 政治思想 學習의 一體化를 통해 金日成의 唯一思想體系의 確立과 貫徹를 強要하고 있다.

### (1) 靑少年의 意思決定

이와 같이 劃一化된 政治社會化의 結果, 靑少年들의 경우 自己의 行動마저도 自身의 判斷이나 父母의 意思가 反映된 가운데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金日成의 敎示에 의해 決定되고 있는 實情이다.

## 나. 心理動向

北韓住民의 心理動向에 直接間接으로 影響을 주고 있는 것은 「黨」에 의한 社會的 統制 措置이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反黨, 反革命分子를 索出하기 위하여 58年 12월부터 60年 12월까지의 中央黨 集中指導事業時에 北

韓住民의 成分과 家族狀況을 調査確認하였다. 66年 4월부터 67年 3월까지의 住民再登錄事業을 實施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土臺로 1967년부터 1970年 9월까지 北韓住民의 成分을 33階層에서 51階層으로 擴大 分類하였다.

또한 集團主義의 指導方式에 依據하여 勞動黨의 前衛團體인 少年團, 社勞靑, 職盟, 農勤盟 등 各種 社會團體에 全住民들을 義務의으로 強制加入시키고 있으며 個人的인 活動은 一切 禁止하고 있다.

또한 58年 7月 金日成의 現地指導에 따라 北韓의 全世帯를 5戶 1組 連帶責任 單位로 나누고 熱誠黨員 1名을 配置하여 家庭生活까지 監視하고 있으며 72년에 이르러서는 이를 職場分組擔當制로까지 擴大시켜 住民에 對한 二重 三重의 相互 監視體制를 確立하여 놓았다.

한편 食糧과 被服의 配給制를 實施하여 個人的 基本生活를 統制함은 勿論이고 職場配置마저 黨에서 統制하여 住居生活도 制限하고 있으며, 糧券과 旅行證制度를 實施하여 住民의 자유로운 移動을 일체 許容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이 人間의 本性마저 劃一化시키고 있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에게는 個權이란 있을 수가 없다.

### (1) 俗 談

이러한 住民生活의 統制는 北韓住民들의 俗談과 隱語에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우선 北韓에서 流行되고 있는 俗談을 例를 들어 보면 共產黨員을 非難하는 俗談으로는 「헌마지 이잡기」, 「죽은 닭도 훔담 노릇한다」, 「동물은 개가 재물은 개 욱한다」 등이 있으며, 窮乏한 生活像을 反映하는 것으로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兩班이다」, 「팔자 소관이다」 등이 있다.

그리고 統制와 監視를 警戒하는 것으로는 「믿으며 疑心하라」,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俗談이 流行되고 있다.

## (2) 隱 語

北韓住民들의 心理動向을 反映하는 새로운 隱語들이 流布되고 있는데 例를 들면, 共產主義者들을 非難하는 隱語로서는 金日成을 「죽장군」, 진짜 共產黨員의 집을 「도마도네집」이라 하며, 가난을 歎息하는 것으로는 누룽지를 「高級菓子」, 扶養家族을 「300g 人生」이라고 한다.

그리고 成分 分類를 非難하는 것으로는 思想檢討를 「人生無常」, 33階層 成分分類를 「33階段」이라 하며, 共產黨員의 橫暴에 대한 것으로는 黨委員長을 「땀대거리」, 黨細胞委員長을 「홍대거리」라 하고, 共產黨員들의 宣傳을 「나팔을 분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 등이다.

## (3) 不滿의 對象

이러한 統制의 結果, 北韓住民들의 不

滿은 무엇보다도 組織生活, 宣傳과 實際의 矛盾, 勞力動員 등에 있지만은 勞力動員에 대한 不滿은 減少하는 傾向이나 宣傳과 實際의 矛盾에 대한 不滿은 如前하며 두드러진 現象은 組織生活에 대한 不滿이 上昇하고 있다는 것이다. 特히 組織生活의 不滿中에서 가장 큰 比率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自我批判이며 그 다음의 人民班과 5戶 擔當制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不滿은 源泉的으로 北韓住民들이 嚴格한 統制와 規制 속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 다. 思考特性

### (1) 個 性

이와 같이 철저한 敎化와 統制 속에 살고 있는 北韓住民들의 思考特性을 살펴보면,

우선 人間性은 人事를 해도 形式的으로 하는 등 人情이 결핍되어 있고 인식하고 고집이 센 性向을 띠고 있으며 思考樣式은 所有慾과 小英雄心이 強할 뿐만 아니라 家族과 이웃을 서로 不信하고 警戒하는 눈치 意識이 예민하게 發達하였으며, 그리고 行動方式은 無條件 忠誠하는 鬪爭의이고 狂信的인 特性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北韓住民들의 普遍的인 個性으로 말미암아 人間關係는 더욱 疏遠해져



가고 있으며, 人間的 理解가 통하지 않는 것이 一般의 傾向이라 하겠다.

## (2) 黨政策 支持理由

住民에 대한 黨의 철저한 統制는 黨政策 支持理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北韓 住民들이 內心으로는 黨의 政策을 싫어하면서도 表面上으로는 支持하고 있는 理由는 바로 社會成分의 規制와 衣食住生活의 統制에 따르는 利己의 動機에 연유하는 바, 出世와 配給, 그리고 批判이 두려워서가 絶對인 比率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比率는 변함없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 (3) 意識의 二重化

따라서 이러한 樣相들은 北韓 住民들의 意識이 二重化되어 있음을 意味하는 바 그 內容을 具體적으로 보면 被支配層이라 할 수 있는 勞動者 農民들은 겉으로는 金日成 敎示나 黨의 命令에 따라 勞動하면서도 實際로는 먹고 살기 위해 盲從하고 있으며, 集團方式의 共同勞動習慣화된 것 같으면서도 幹部 앞에서만 熱誠을 보이고 있다.

한편 特殊層은 社會적으로 核心이 되려는 名譽慾이 強하지만 언제 축출되거나 숙청될지 모르는 不安感에 사로잡혀 있으며, 金日成의 敎示나 黨의 政策을 充實히 貫徹하는데 熱誠을 보이면서도

一般住民에 대한 監視監督에는 항상 嫌惡感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 現象이다.

## 6. 民族意識

### 가. 民族觀

分斷 30餘年에 民族에 대한 感情도 현저하게 멀어지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北韓 共產集團은 民族觀부터 우리와는 根本적으로 見解를 달리하고 있는데, 그들은 民族主義란 것은 資本主義發生의 產物로 볼 뿐 아니라 資本家階級の 思想이라 斷定하고 보편적인 民族概念을 無視하는 反面에 社會主義의 民族主義理論을 내세워 生産手段의 社會主義의 所有에 基礎하여 이루어진 集團만을 民族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民族觀에 立脚하여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社會階級과 1930年以後의 金日成의 抗日 빨치산 出身들만을 民族의 成員이라 規定하고 있다.

### 나. 民族感情

이러한 結果「民族」이란 用語에 대한 愛着을 통해 본 北韓 住民들의 民族感情은 6.25를 契機로 하여 急降下된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民族感情의 變化는 國際競技에서의 韓國選手에 대한 態度에서도 두드러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바 民族的

立場에서의 聲援은 60年代 初에 急激히 降下, 그 以後 약간 上昇하는 傾向을 보여 주다가 계속 減少하고 있다. 反面에 同一民族을 異邦人視하는 질투와 競爭心은 60年代 前半 以後 계속 上昇하는 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 다. 南韓觀

따라서 南韓을 보는 눈도 相當히 變化하고 있는데 物資가 豊富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보는 傾向은 계속 減少되어 가는데 反該 60年代 初를 契機로 南韓은 悲慘한 生活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는 傾向이 急激히 上昇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北韓共產集

團이 자라나는 젊은 世代들에게 허위선전과 教育을 통해 歪曲된 南韓觀을 심어 준 結果라고 하겠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을 永久分斷政策이라고 歪曲宣傳하고 있지만, 그들 體制의 硬直性이야말로 傳統文化와 民族意識에까지 分斷을 永續化시키는 動機를 注入하고 있다.

北韓共產集團에 의한 異質化 作用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南北韓間의 生活方式, 思考方式에 크나큰 거리가 생겨 어떤 劇的인 變化가 없는 限, 우리의 統一은 더욱 멀어져만 갈 것이다. 이의 克服이 우리의 統一課題로 登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認識하고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 ◎ 服 從 ◎

군대의 服從은 수동적임과 동시에 능동적이다. 命을 수령하면 이를 수행하며 마치 옛부터 내려온 運命인양 눈을 감고 싸운다.

### ◎ 部 下 愛 ◎

전 장병이 危機에 처하여 파멸이 지휘관을 엄습할 때라도 부하장병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 北韓側이 노리는 南北對話의 底意

臨해야 할 것이다.

當局者會談提議에 대하여 공신력 있고 責任있는 자세로  
北傀는 우리의 誠實하고 實効性 있는 南北韓 責任있는

편  
집  
실

지난 1·19 朴正熙 大統領閣下께서는 年頭記者會見을 통해 北韓側에 對하여 어떠한 時期나, 어떠한 場所에서나, 또 는 어떠한 水準에서든 南北韓 當局이 서로 만나서 아무런 前提條件도 없이 그동안 南北韓이 提示해 온 모든 分野의 問題들을 直接 論議하기 爲해서 對話를 갖 자고 提議했다.

이러한 우리側의 提議는 어떻게 하면 韓半島에서의 同族相殘을 막고 5千萬 民族의 繁榮을 이룩할 수 있으며, 分斷된 國土를 平和의으로 統一할 수 있을까 하는 諸般 問題에 對하여 民族의 良心으로 돌아가 虛心坦懷하게 서로가 討議해 보 자는 것이었다.

朴正熙 大統領閣下の 이러한 提議가 世 上に 퍼지자 모든 나라에서는 입을 모아 一國의 最高統帥權者가 民族問題를 解決 하기 위하여 直接 나서겠다는 悲壯한 決斷임을 높이 評價하고 이를 歡迎하였으며, 심지어 東京駐在「유고」特派員까지도 「平和統一을 위해 直接對話를 提唱한 現實의 提案」이라고 할만큼 共產國家들 까지도 이를 肯定的으로 報道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大部分의 사람들은 그동안 北韓側이 對話에 臨해 온 行跡을 살피면서 1·19提議가 生産的이며, 劃期的인 決斷임을 재삼 強調하면서도 果然 北韓이 誠意를 보이겠는가에 대해서는 疑問이 있다는 點을 또한 指摘하기를 잊지 않았다.

이러한 世界的인 耳目이 集中되고 있던 즈음에 北韓側은 지난 1.23 所謂「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라는 共產主義 統一戰線 組織을 앞세운 聲明을 내놓고 從來의 「大民族會議」를 「全民族大會」로 名稱을 바꾸고 이러한 不透明한 會議을 開催하자고 맞서면서 南北韓 政黨, 社會團體, 海外僑胞組織 團體, 個別人事들이 이에 參加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同 聲明에 依하면 7.4 南北共同聲明의 理念과 原則을 再確認할 것과 相互 誹謗 中傷中止 및 敵對 軍事活動의 中止를 要求하면서도 어째서 共同聲明에 立脚한 南北間의 合意事項이 白紙化되었던가에 對해 얼버무려 놓았다.

그러면 왜 北韓側은 南北當局에 依한 合意와 南北共同聲明 精神에 立脚하여 對話를 하자고 舉論하면서 實質的으로 國民들로부터 主權을 委任받아 統治權을 行使하고 있는 當局間의 對話에 對해서는 一切 言及하지 않고 있는가.

이는 한 마디로 말하면 北韓側이 80年代를 내다보는 民族指導者의 構想으로 提示된 「1.19 朴正熙大統領 閣下 提議」에 對하여 政治宣傳의 眼目에서 이를 對處하려 하고 있다는데 根本 動機가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말하자면 1.23字 北韓의 「祖國戰線 中央委」聲明은

① 지난 時期 7.4共同聲明 合意事項

에 對하여 그들이 一方的으로 破棄했던 行爲를 어떻게 隱蔽할 것인가.

② 公信力이 있고 責任이 있는 當局에 依한 對話要求에 對하여 어떻게 拒否 方途를 摸索할 수 있는가.

③ 對話再開問題가 統一 實現에 對한 民族의 興望을 實現하는 것인 만큼 어떻게 誠實함을 假裝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焦點을 맞춘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北韓側이 내세운 「祖國戰線」이란 어떤 性格의 團體인가.

이는 勞動黨의 一黨獨裁를 支援하는 前衛機構로서 勞動黨의 政策을 無條件 支持하도록 強要된 機能만을 遂行할 분단 아니라 過去 6.25南侵 17日 前에 소위 朝鮮勞動黨의 南侵政策을 은폐하기 위하여 對南 平和攻勢를 展開했던 犯罪組織인 것이다.

以上的 여러 가지 問題點을 堪案해 본다면 1.23 「祖國戰線 中央委」聲明이 노린 것은 對話의 正常化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韓國의 南北對話 再開努力을 逆用하여 相異한 政見과 各自의 主觀을 認定하고 있는 우리의 自由民主主義社會를 攪亂하고 나아가 誠實한 對話를 實現할 수 없도록 하자는데 主眼點이 있는 것이라고 斷定지을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韓國은 北韓側이 南北對話 再開에 전혀 無誠意하다는 것을 看破하였으려, 그 理由로

첫째, 왜 勞動黨 및 政權當局을 기를

로 한 소위 唯一思想體系를 強調하면서 南北間의 對話에 있어서만은 이들이 굳이 뒷전에 물러서서 直接的인 回答을 回避하는가.

물론, 왜 實權도 없으며, 또 合意事項에 對한 履行責任도 없는 各種 政黨團體나 個別人事만을 내세워 對話의 主體를 顛倒시키면서 一方의 主張만을 固執해야 하는가.

세제, 이것은 分明 對話의 結實을 無用化하는 가장 위험한 企圖가 숨겨져 있다는 點으로 警戒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不純한 企圖는 初期에 止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韓國側은 1.2 政府代辯人 聲明을 通하여 北韓側의 7.4 共同聲明 合意事項履行 再確認 要求에 對하여 全般的인 履行確認을 意味하는 것으로 寬大하게 包容하고 責任있는 當局者의 回答과 아울러 豫備會談時期를 앞당기도록 促求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對하여 北韓側은 그 다음날인 1.27 所謂「祖國戰線書記局」聲明을 通해 7.4 共同聲明 理念 및 原則과 合意事項에 對한 遵守 云云하면서 오는 4月初 實務級 代表者會議을 召集한 것과 實務級 代表會議을 爲한 招請對象에

- 南北政黨·團體·各界 人士
- 海外組織·個別의 人事
- 南北當局

을 포함시키고 이들 對象에게 招請狀을 發送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하였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基準으로 어떠한 代表를 어떤 合意에 따라 어떻게 選定할 것인지도 전혀 밝히지도 않고 一方으로 無責任하게 내던진 것이다.

이로 볼 때 그들의 一方的인 獨走가 合意를 實現하기 위한 온당한 方法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北韓側은 豫備會談 時期를 좀 더 앞당기자는 우리提議의 一部分을 받아들이는 듯 꾸미고 실제로는 容納되기 어려운 이른바「全民族大會」召集 原則을 무작정 밀고 나갈 것이라는 專橫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北韓側이 主張하는 「全民族大會」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들의 主張대로 한다면 南北韓의 政黨·社會團體·海外僑胞團體, 個別의 人事를 網羅한 協議體를 만들어 統一問題를 協議하자는 것이다. 北韓社會처럼 北韓 勞動黨의 一黨獨裁가 철저히 實現되어 그 누구도 金日成의 主張에 反對하는 者는 無條件 反動的 反革命分子로 處斷해 온 體制라면 모를까 韓國과 같은 複合社會에서 수많은 政黨, 社會團體가 個別的인 政見이나 利害를 中心으로 組織되어 自由活動이 保障되어 있는 社會일진대 韓國의 現實에서 본다면 상당한 疑問點이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그렇게 많은 政黨, 社會團體가 各其·代表를 보낸다고 할 때 現實的

이다.

이러한 北韓側의 行態를 整理해 보면 一方的인 誹謗宣傳中止 宣言과 關聯하여 韓國에는 있지도 않은 소위「統革黨放送」(海州에 位置)을 내세워 實質의인 誹謗中傷 活動을 繼續함으로써 그들이 必要하다면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도록 與件을 造成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民族統一準備委員會」를 새로 내놓음으로써 7·4 共同聲明 合意事項 主管 機構인 南北調節委員會를 無力化시키고 窮極의으로 모처럼 마련된 南北間의 7·4 共同聲明을 全面 破棄하려는 企圖로 밖 에 볼 수 없다.

이런 理由로 해서 우리는 北韓側의 不純한 企圖를 沮止하고 끝내 民族良心에 돌아가 虛心坦懷하게 統一問題를 論議하며, 南北韓 當局間의 合意에 따라 平和的으로 統一을 實現할 수 있는 굳건한 基盤을 다지기 위해 기어이 責任있는 當局間의 會談이 實現되도록 뜻을 박아 만 에 하나라도 北韓側이 責任을 회피하거나 꼬리를 빼도록 餘裕를 주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점을 銘心해야 하겠다.

結論의으로 우리는 平和的으로 南北韓 間의 民族的 和解와 統一을 實現하기 위해 對話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며, 이러한 對話가 궁극적으로 5千萬 民族의 輿望에 副應하는 호뜻한 結實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實質的으로 이 地域에서 統治權을 行使

하고 있는 責任있는 當局이 對坐해야 한다는 確固한 立場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구나 5千萬 民族 全體意思를 具顯함에 있어 不純한 企圖가 固執되어서도 아니 되며, 또한 이것이 容納될 수도 없다는 것은 너무도 當然하다.

이렇게 볼 때 서로 對話를 通하여 論議한다는 것을 大前提로 하여 어디까지나 一方的인 主張으로 一貫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相對方에게 誠實히 理解시키고 共感하도록 意見을 邪心없이 交換하고 平和的 統一에 尤호하게 接近할 수 있도록 努力하는 길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事實이 이러한에도 北韓側은 소위 全 人民의 總意를 代辯한다는 口實下에 共產獨裁의 裝置로 造作해 놓은「祖國戰線」이라는 해괴한 團體를 앞세우고 全體 民族的 良識을 愚弄하고 있음은 痛歎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不純한 姿勢는 韓半島에 주어진 民族的 懸案問題를 全體民族의 意思에 따라 誠實히 論議하고 합리적 으로 解決하기보다는 이미 決定된 共產化의 公式과 計略을 내세워 民族的 總意에 아랑곳 없이 一方的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不純한 態度로 規定지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分明히 北韓側의 誠意 있는 對話姿勢를 促求하고 또 이것을 다짐해 나오도록 要求하고 있다. 이것은 全體 5千萬 民族이 한결같이 念願하는 平和的 統一을 期必코 達成하고자 할 것이라는 우리의 意志인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誠意있는 態度에 對하여 北韓側은 진지하게 對話에 臨할 것을 期待하는 것이다.



으로 會議을 進行하기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좀 더 效率的으로 하기 위하여 어떠한 基準으로 南北韓 代表를 選定할 것이며, 또한 海外僑胞組織團體란 居住地域 中心의 利益集團이라고 볼 때 서로 利害가 다른 그러한 組織을 어떻게 選定 包含시키며, 南北韓 全體 人口가 5,000 萬인데 그 중에 어떠한 人士를 어떤 基準으로 選定할 것인가 하는 것이 都是 納得되지 않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對話의 明白한 主體가 없는 상태에서 北韓側이 一方的으로 選定하는 것이 아니라면 所謂「全民族大會」에 參加하는 代表들을 누가 누구와 마주 앉아 選定한다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以上の 問題點들을 壓縮해서 檢討해 볼 때 北韓側이 提議한 이른바 「全民族大會」란 實現性이 없다는 것이 分明하다고 斷定지을 수 있다. 따라서 南北間에 眞摯한 對話를 推進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責任있는 南北 當局間의 會談이 열려야 되겠다는 結論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側은 1.29字 文公部 代辯人聲明을 通하여 北韓當局과 早期會談 實現을 위해 責任있는 北韓側의 回答를 促求한 것이며, 또한 北韓側이 그들 스스로가 말한대로 7.4 共同聲明 合意事項을 充實히 履行할 意思라면 그 동안 北韓側이 一方的으로 破棄함으로써 癱痺되었던 南北調節委員會 機能까지도 回復시킴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하

루 빨리 南北間의 意思를 疎通하기 위해 거북스러운 放送을 通하여 間接的으로 一方의 意思를 傳達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미 設置되어 있는 서울—平壤間의 直通電話를 活用하는 것이 有用하다는 觀點에서 지난 1.19 朴正熙大統領閣下의 提議와는 別個 次元에서 7.4 南北 共同聲明 精神에 立脚한 調節委員會會議라도 再開해야 된다는 우리側 立場을 1.31字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 代理聲明으로 밝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측의 誠實하고 實効性있는 提議에 對하여 北韓側은 1.31 所謂 中央通信 聲明을 통하여

7.4 南北共同聲明 合意事項中 誹謗中止 및 軍事挑發中止等 一部事項에 限하여 一方의 實踐을 宣言하고, 2.5에는 所謂「祖國戰線書記局」聲明을 通하여 이미 南北韓當局이 合意한 調節委員會를 이른바 「民族統一準備委員會」로 代替하자고 새로운 問題를 提起하면서 調節委員會의 存續意義를 露骨的으로 否定하여 왔다.

따라서 北韓側은 責任있는 當局의 回答는 回避한 채 不透明한 團體인 所謂「祖國統一民主主義 戰線」의 名義로 一方的인 要求만을 羅列함으로써 窮極的으로 大韓民國 政府를 否定하고 걸어오는 對話에 應하는 척 假裝하면서도 必要하다면 언제든지 對話中斷의 責任을 我側에 轉嫁하도록 교묘히 僞裝하고 있는 것

# 空中警報管制體制

## AWACS



梁 宸 錫 譯

AWACS는 “날으는 레이더”란 愛稱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現代 航空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融通性이 많은 防空戰略戰術 武器로서 脚光을 받고 있다.

### 1. 序 言

空中早期警報(AEW: Airborne Early Warning)는 레이더를 搭載한 航空機가 飛行을 하면서 空中 또는 地上의 目標物을 探知하여 友軍에게 警報를 發令하는 機能을 말하며, 空中警報管制體制(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란 長距離 航空機에 目標物의 方位, 距離, 高度를 探知하는 레이더와 遊擊武器를 管制할 수 있는 各種 通

信裝備를 搭載하여 空中에서의 監視警報 및 遊擊管制 機能을 遂行하는 體制를 말한다.

空中 監視用 航空機搭載 레이더는 2次 世界大戰 後期에 美 海軍에서 自爆을 不辭하고 날아 들어오는 日本의 가미가제 特攻機들을 보다 멀리에서 捕捉하여 攻擊을 할 수 있도록 開發한 것이 그 始初이었다. 艦艇에 搭載한 對空레이더는 그 눈이가 制限되고 있어서 海面으로 낮게 侵攻하는 敵機는 不過 10마일 안밖에서

探知될 뿐이다. 이에 比하에 萬一 航空機에 레이더를 附着하여 艦隊前方 깊숙이 높게 띄우면 그 레이더의 可視距離는 엄청나게 延長되므로 敵機의 來襲을 보다 빨리 알아내고 餘裕있게 對戰하여 敵機의 擊墜率을 높이고 我軍의 被害를 激減시키는 兩得의 效果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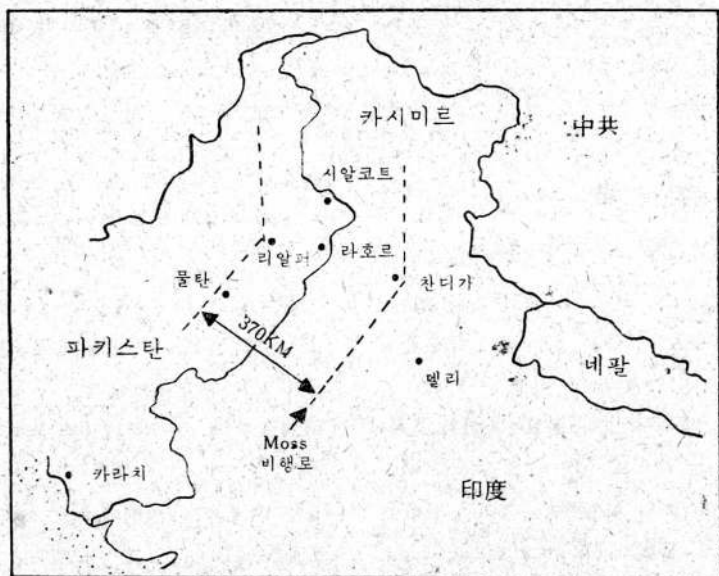
이와 같은 目的으로 開發된 날으는 레이더가 그 後에 많은 研究發展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地域 또는 大陸防空을 爲

한 空中 警報管制體制에 實用케 된 것이다.

이에 筆者는 過去 戰場에서 눈부신 活躍을 하였던 날으는 레이더의 實戰 例를 들어가면서 이 體制에 關한 이모저모를 紹介하고자 한다.

## 2. 印度에 날아온 蘇聯의 거미

1971년에 벌어졌던 印度-파키스탄戰 쟁의 例를 들어 보자(그림 1 참조).



<그림 1>

印度의 攻擊機들은 파키스탄의 內陸 185km 上空까지 깊숙이 浸透하는데 繼續하여 成功하였다. 그것도 夜間에만 날아들어와 目標 上空에서 正確도가 높은 爆擊을 恣行하였던 것이다. 印度空軍은 打撃任務에 아주 適合한 SU-7과 캔베라(Canberra) 爆擊機들 以外에도 AN-12 輸送機를 爆擊機로 改造하여 後尾의 荷積 탱프로부터 16톤이나 되는 다발 폭음의 爆彈들을 人口密度가 높은 地帶에 마구 퍼부었던 것이다. 이 航空機들은 主로 델리의 北方 230km에 있는 찬디가를 離陸하여 接境地帶의 시알코트, 라호르, 디알퍼, 물탄 등의 都市들을 때려 부수었다.

파키스탄의 防空機能은 프랑스製의 미라주 3C 戰鬪機를 保有하고 있었지만 夜間에만 反復적으로 浸透해 들어오는 印度 空軍機에는 束手無策이었다. 그러면 印度 空軍에서는 어떠한 方法으로 이처럼 效果의인 夜間浸透 爆擊任務을 遂行할 수 있었는가?

그 理由는 漸次 풀리기 始作하였다. 이러한 夜間爆擊이 있을 때마다 파키스탄의 對空 레이더網은 1臺의 航空機가 印度 內陸上空에 國境線으로부터 恒常

一定한 距離를 維持하면서 6,000미터의 高度로 繼續 飛行하고 있음을 確認하였다. 파키스탄에서는 이 의로운 航空機에 “거미”라는 別名을 붙였다. 파키스탄의 通信情報(Comint)는 이 거미의 乘務員들이, 印度人 乘務員들을 包含하여 全員 露語로 無線通信을 하고 있음을 感知해 냈다. 이 거미야 말로 모든 印度의 空軍機가 正確한 夜間爆擊을 成功裡에 遂行할 수 있도록 低空飛行과 爆擊地點 指定의 길잡이 노릇을 해 주었던 것이다.

파키스탄의 情報通은 또한 이 거미 航空機가 아주 效果의인 電子妨害(ECM) 機能을 갖고 있음도 確認하였다. 위와 같은 모든 情報를 綜合分析한 結果 西方의 傭사비들은 美空軍의 AWACS와 比肩할 만한 蘇聯의 空中警報管制體制가 戰場에서 實用化되고 있음을 判斷해 냈다.

後에 判明된 事實이지만 모스(Moss)라고 불리우는 소련의 AWACS(그림 2 참조)가 인도에 派遣되어 파키스탄 國境線으로부터 185km가 떨어진 安全한 距離를 飛行하면서 印度空軍機들을 誘導管制해 주었던 것이다.

이 모스 AWACS는 TU-114 輸送機를 特殊하게 改造하여 레이더를 装着시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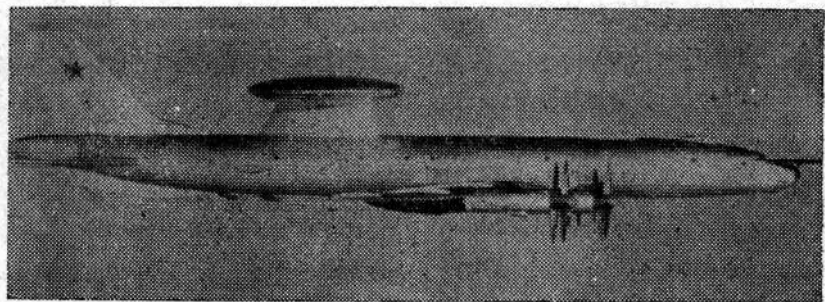


그림 2. 소련의 Moss AWACS

것으로 機體 上方에 레이더 안테나를 收容한 円盤 모양의 레이돔이 붙어 있고 機首에 再給油裝置가 달려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 航空機는 1968년에 도큐멘터리 필름으로 世上에 처음 公開되었다. 이 航空機의 原型 改造는 1960년에 着手하였으며, 1962년에 處女飛行을 實施하였고, 完璧한 體制評價가 끝난 것은 1960年代 中盤이었을 것으로 알려졌다. 20臺의 生産目標中 最初의 航空機는 1970년에야 소련 空軍에 提供되었었다. 이 Moss機들은 現在 北極地方과 北太平洋의 最北端을 繼續 飛行하면서 本來의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이 모스 AWACS에 對하여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71년의 인도-파키스탄戰에 參與한 傭 師伯들은 이 모스가 攻擊用 航空機에 對한 管制과 誘導指令을 하는 機能을 發揮할 뿐 아니라 掩護 및 ECM 航空機에 對한 管制所 役割까지 하고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또한 이 管制機는 約  $7.5\text{m}^2$ 의 레이더 斷面積을 가진 AN-12와 같은 大型 航空機들만 管制하는 것이 아니라 斷面積이  $1\sim 2\text{m}^2$ 인 小型 航空機들까지도 管制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련의 레이더 技術은 그 當時에 이미 低空으로 飛行하는 航空機를 追跡하는 能力까지도 마스터했을 것임이 分明해진다.

이 戰爭으로 얻은 技術情報로는 모스에 依하여 管制되는 爆擊機들의 浸透 깊이가 國境線으로부터  $185\text{km}$ (約  $100\text{NM}$ )



이었고, 모스가 國境線으로부터 같은 距離만큼 떨어져 飛行하였으므로 總 370km (200NM)의 레이더 有效範圍를 갖는다는데 意見を 같이 하고 있다. 美國의 AWACS에 挑戰하기 爲한 試圖로서 現在는 550~650km(300~350NM)로 그 有效距離가 擴張되었을 것이라 믿어진다.

### 3. 越南戰에서 活躍한 EC-121

수퍼 컨스티레이션 航空機에 레이더를 装着한 美空軍의 EC-121 空中 監視管制機가 越南에 派遣된 것은 1965年 4月이었다. 越南戰 初期에 越盟 上空으로 出動하는 美軍機들은 레이더의 保護 없이 盲目的으로 敵地 上空에서 不利한 作戰을 遂行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反하여 越盟機들은 그들의 地上 레이더 管制下에 作戰을 할 수 있는 有利한 高地를 占領하고 있었다. 그러나 古物이 다 된 것이긴 하였으나 이 EC-121이 展開되고 부터는 狀況이 달라졌다.

EC-121은 當初 設計된 대로 海上用 空中監視機였기 때문에 그에 装着된 레이더는 海面 크라타에는 效果가 좋았으나 地面上의 強한 크라타 속에서는 航空

機의 探知가 무척 힘이 들었다. 各種 通信電子裝備도, 舊型으로서 性能이 말이 아니었으며, 信賴度도 없었다. 乘務員들마저 海上警報任務에 對한 經驗만 있었기 때문에 越盟 上空에서 벌어지는 戰術 空軍作戰과 數 많은 航跡의 處理問題로 精神을 차리지 못했었다.

여러 가지로 많은 制約이 있었지만 EC-121은 地上이나 海上의 어떠한 對空 레이더 體制로서도 감당해 낼 수 없는 機動性を 發揮하여 繼續 移動하면서 敵機에 對한 來襲을 警報해 주고 邀擊管制 任務을 奇蹟의으로 遂行해 주었다. 처음에 이 EC-121은 地面反射波의 影響을 最大로 줄이기 위하여 통킹灣 上空을 50 피이트의 아주 낮은 高度로 飛行하였으며, 敵機를 探知하였을 때는 弱한 出力을 가진 無電機로 共通周波數를 通해 一方放送을 하였으니 友軍機가 全部 이 放送을 受信하였는가 確認할 길도 없었다.

또한 EC-121은 그 自身이 갖고 있는 能力 以上으로 機能이 發揮되기를 가끔 強要받았으나 裝備와 戰技의 改善은 아주 느리게 進行되었다. 越南戰이 終結될 때까지는 裝備가 補強改善되었으며, 戰技도 가다듬어졌고, 더 效果的인 高度와



地點에서 旋回飛行을 하였고, 無線中繼用 航空機가 追加로 配置됨으로써 EC-121은 獨立된 周波數로 各 編隊에게 모든 情報을 送受信할 수 있게끔 되었다.

越南에서 9年間的 實戰을 通하여 EC-121은 25臺의 MIG 擊墜 補助記錄을 세웠으며, 延 14,000時間에 達하는 9,800회의 任務飛行을 遂行하였다.

EC-121은 敵機의 최후선 攻擊對象이 있으나 越南戰에서 단 한臺의 損失도 없이 安全하였다. 그 理由는 이 날으는 레이다가 主航空作戰의 空域으로부터 最少 200마일은 떨어져서 飛行하였기 때문이었다. 萬一 EC-121이 敵의 地上 레이다에 捕捉되어 敵의 遊擊機가 다가 오는 것을 探知하면 EC-121은 敵의 레이다 追跡이 不可能하도록 살짝 下降하거나 我軍의 미사일 巡洋艦 뒤로 알맞게 後退하면 被擊되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最近 美空軍에서 새로이 開發하여 就役시킨 E-3A AWACS는 越南 航空戰에서의 空中 警報管制機의 主要한 役割과 教訓에 힘입은 바 컸다고 볼 수 있다.

#### 4. 開發 및 實用化 趨勢

○ 英國의 AEW 님로드(Nimrod)

英國에서는 現用 早期警報機인 낡은 섹클톤 MR.2의 交替를 서두르고 있다. 開發을 進行中인 新型機 Nimrod는 코메트機를 改造하여 레이다를 装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마코니-엘리웃 航空電子社가 레이다의 開發을 맡고 호커 시들리 航空社가 航空機 改造를 擔當하고 있다. 이 早期警報機는 英國의 海上 空中監視와 NATO 國家의 地·海上 空中監視와 國家의 地·海上 空中監視를 目的으로 開發中인데 펄스 도플러 레이다와 컴퓨터를 連結하여 目標物의 探知와 追跡을 自動化하여 1980年代 初에 就役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 美海軍의 E-2C 호크아이(그림 3 참조)

美海軍의 空中 早期警報機가 航空母艦에서 處女飛行을 한 것은 1950年 10月이었다. 그 後 繼續的인 開發을 거듭하여 1965년에는 越南戰에서 最初의 E-2機가 航空母 艦 키티호크와 메인저號에서 離艦, 越盟의 海岸에 沿하여 飛行을 하면서 주어

인 本來의 任務를 遂行하였다.

當初에는 信賴性이 貧弱(平均 故障發生 周期 MTBF : 3時間)하였고 海上의 標的은 그런대로 잘 探知하였으나 地上의 標的은 강한 地表反射波로 因하여 探知 및 追跡이 아주 困難하였다. 이러한 缺點을 補完하면서 E-2는 E-2A, E-2B 를 거쳐 新型 레이더 AN/APS-120을 裝着하면서 E-2C 호크아이(Hawkeye)가 탄생한 것이다. 이 호크아이는 1971년에 原型的 試驗飛行에 成功하였으며, 1972年 12月부터 美海軍에 로키드 航空社로부터 納品하기 始作하였다. 이 E-2C의 APS-120 레이더에 自動 레이더 處理 시스템을 統合시킨 APS-125가 附着되어 지금은 地上用까지도 包含하여, 完璧한 空中警報管制機의 機能을 갖고 있는 것

으로 判斷된다.

最新의 E-2C는 航母로부터 200NM의 行動半徑을 갖고 約 3萬피이트의 飛行高度에서 10萬 피이트까지의 高度探知를 해낼 수 있지만 飛行時間이 4時間이라는 制約을 받고 있다. 이 航空機는 地上에서의 適用을 爲하여 航母用으로 必要한 카타팔트 링크 等の 諸般 機械裝置를 除去하고 補助 탱크를 附着하여 9時間까지의 飛行時間을 갖도록 實用化되었다.

○ 美空軍의 E-3A AWACS(그림 4 참조)

이 E-3A는 1978年 여름 韓國에도 飛來하여 公開된 바도 있으며, 그 性能과 役割이 比較的 잘 알려져 있어 具體的인 說明이 不必要할 것이다. 다만, 이 航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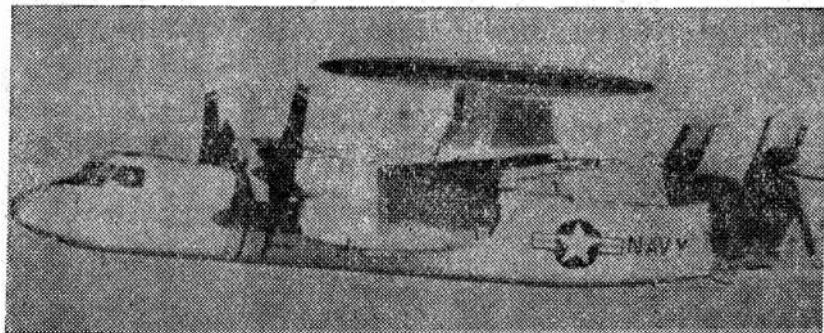


그림 3. E-2C



그림 4. E-3A

機는 보잉 707 航空機에 웨스팅하우스社 製의 펄스 도플러레이다를搭載한 最新 銳 空中警報管制機로서 空中에서의 再給 油 없이 11時間半을 飛行할 수 있으며, 3萬 피이트의 高度에서 約 300NM의 레이 다 有効距離를 갖고 600臺까지의 同時航 跡을 自動處理하는 어마어마한 機能을 갖고 있다. E-3A는 警報管制 機能 以外 에도 空中指揮所, 戰術統制本部, 地上軍 支援 管制本部로서의 機能까지도 遂行할 수 있는 指揮統制 通信網과 諸般 戰鬪資 料의 送受信 및 處理가 컴퓨터에 依하여 自動적으로 支援되고 있다.

이제까지 NATO와 이란에서는 이 E-3A의 購買를 推進中에 있으며, 日本防 衛廳에서는 1978년에 E-2C 6臺를 購入 키로 美그라만社와 契約하였으나 最近에

는 第2의 로키드 스캔달에 휘말리고 있 으며, 이스라엘도 機種을 選定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5. 展 望

地上 레이다는 그 位置가 地上의 높은 곳으로 制限되어 있어 低空으로 浸透하 는 航空機의 捕捉範圍가 相當히 짧은 短 點이 있을 뿐만 아니라 敵機나 地上攻撃 으로부터 쉽게 被襲되어 그 機能을 喪失 當하기가 容易하다. 機動性이 있는 地上 레이다라 할지라도 展開運用에는 寸刻을 다루기 때문에 느린 感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날으는 레이다인 空中警報 管制機는 비록 莫大한 購入費와 維持費 가 所要되지만 위에서 言及한 地上레이 다의 短點을 解消시켜 준다.

美空軍의 境遇 戰略의 으로는 平時에도 AWACS가 恒時 接敵地域과 脆弱地域에서 물샬틈 없는 哨戒飛行을 續行하면서 戰略 長距離 爆擊機와 米사일 間에 緊密한 情報交換을 함으로써 敵의 無謀한 侵略을 事前 封鎖할 수 있다는 豫防的이고 心理的인 效果를 거둘 뿐만 아니라 紛爭地域이나 戰爭突發地域에 莫強한 打撃空軍力과 同時에 急派하여 實力行使를 敢行하는 숨은 功勞者가 된다는 點에서도 높이 賞단한 價値가 있는 것이다.

戰術的인 面에서도 充分한 戰術機와 이 날으는 레이더만 있으면 戰術空軍作戰을 主導하는 指揮統制 機能이 圓滑히 維持 管理된은 勿論 모든 空中狀況을 꿰뚫어 보는 千里眼을 갖고 하늘의 싸움터로 自信있게 臨할 수 있을 것이다.

1980年代 末이나 1990年代 初에는 窮極의 으로 停止人工衛星에 依한 空中監視機能으로의 轉換이 豫想이 되지만 現時點에서 볼 때 날으는 레이더의 價値에 對하여는 한 번 吟味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參考 文獻>

1. International Defense Review, 1975年 10月號(스위스 發行).
2. E-3A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美國 보잉 航空社 發行 팜플렛.
3. USAF Manual 11-1, Volume III.
4. M. Skolnik著 레이더 핸드북(1970年 發行)



# 공·군·만·상

鄭 雲 燮

## <상경하애>

- R중위, 어디 아픈가. 내가 대신 해 줄테니 좀 쉬지.
- K대위님의 저런 마음씨에 언제나 사기가 솟는단 말야!



## <물자 절약>

- 내가 보낸 편지 이면에 다시 쓴 우리 미스 방의 절약에 놀랐지!
- 결국 제 애인 자람이군



# 공·군·만·상

## <하늘을 주름잡는 사나이>

- 새로 입관된 P소위입니다.
- 역시 청년 장교다운 기백이 있어 마음에 드는군



## <때는 불이로다>

- 전화벨 소리만 나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H중위를 보니 비밀이 있나 보군





# 아시아 · 태평양에서의

## 미국의 군사 대비 체제



崔 在 九 譯

이 글은 Asia-Pacific Defence Forum(1978. Fall)에 실린 미 태평양 사령관 Maurice F. Weisner 제독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Weisner 제독은 이 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인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관련된 제반 정세, 미국의 이해관계, 미·소의 군사 현황 및 전략, 미군의 역할에 대하여 태평양 사령관으로서의 그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1세기 이상을 아시아와 태평양은 미국이 정책상 관심을 두어 온 전진적인 활동 무대의 중심지였었다. 과거 10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세계의 격변지인 이 지역을 아주 노골적으로 정책관심의 초점으로 부각시켜 놓았다. 월남전과 그 이후 최근의 분쟁들, 군사 혁명, 무장 봉기, 그리고 정치적인 격변 등은 끊임없이 번덕스럽게 변화하는 아시

아의 정세를 입증하는 것들이다.

### 지역의 특징

아시아와 태평양을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중심이 된다. 이 지역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그 광대 무변성이다. 태평양 사령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은 지구 표면의 절반이 넘는 1억 평방 마일이다. 이 지역은 태평양과 인도양 전

체를 포함하는데, 이는 전세계 대양 면적의 70%를 상회한다. 엄청나게 넓은 이 지역을 실증하자면 항공모함 기동부대로써 정상적인 순항속도로 항행할 때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서 필리핀의 수빅만까지는 11일이 걸리고 인도양의 작전 지역까지 도달하는 데는 이보다 6일이 더 필요하다. 공중으로는 군용 제트 수송기로 미국의 서해안에서 필리핀까지 18시간이 소요되고 인도양의 중심지인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8시간이 더 걸린다.

아시아-태평양의 광대함은 서로 상이한 문화, 종교, 경제 및 정치체제의 다양성에 의해서 서로 조화되어 있다. 경제적인 부문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경제적인 규모에 의해서 그래픽식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거인 공업국인 일본(GNP: 6,250억 \$)을 정점으로 버어마(GNP: 30억 \$)에 걸쳐 심지어 GNP 2,500만 \$ 이하인 몇몇 십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더구나 이러한 규모는 많은 나라에서 상이한 발전 단계에 놓여 있고 급격한 변화의 고민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으며, 분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증하고 있는 등 다분히 가변

적인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변화물배경으로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아시아-태평양 세력의 중요한 4대강국(미·소·일·중공) 사이엔 균형이 존재하는데 보다 확고한 안정과 지역의 독립에 희망적인 징조가 보인다. 그러나 아프리카 일각에 있는 이디오피아와 소말리아 간 분쟁에의 소련 및 쿠바의 개입은 4대 세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 균형에 깊이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안정의 열쇠는 일본이다. 일본의 영향력은 무역·투자 및 다양한 형태의 경제 원조를 통해서 이 지역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지금 일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다 무거운 지도적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본은 즉각적인 국가 방위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는 어떠한 무장도 포기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당분간 일본 정부와 국민이 어떠한 방위문제, 특히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방위 문제도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비록 일본에서 방위 문제에 관한 공식적

인 대화가 지난 2년 동안에는 좀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일본은 오직 방위에 필요한 군사력만 유지하고 군사 분야에서 그들의 기본 정책은 계속 미국과의 안전 보장 조약에 의존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동남 아시아 지역은 동남아 국가 연합(ASEAN) 내에서 결합력 있는 힘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ASEAN은 발전된 지역적 안정, 보다 많은 지역적 독립 및 협력을 이룩했다. ASEAN은 많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미국 그리고 EEC와 경제 협력을 위한 대화에 들어갔다. ASEAN의 야심적인 개발 계획은 장래에 있어서 보다 큰 지역적 경제 통합의 전조가 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의 다른 안정 요소로는 확고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자유중국과 더 나아가서 자유중국과 대등하게 활발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이다.

### 미국의 국가 이익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절대적인 이해 관계는 거의 감소되지 않았다. 거기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강력하고 점증적인 경제상 이익이 있다.

지난 6년 동안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미국 무역은 EEC와의 경제 교역을 능가했고 지금은 미국의 전체 무역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77년에 이 액수는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한 약 620억 \$에 달했고 앞으로 더욱 증가 추세에 있다. 아시아 제국에 대한 1977년도의 미국의 수출은 240억 \$에 달했는데 이는 1976년도보다 12%가 증가한 것이다.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직접 민간 투자도 약 160억 \$로 늘어났으며, 이 지역의 정치 및 군사적인 안정에 힘입어 보다 광범위한 투자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요한 전략적 천연 자원의 보고이다. 이 자원의 중요성은 점증하는 자원난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고조된 경쟁의 시대에 더욱 맹렬해졌다. 미국은 아연, 티타늄 수입의 90% 이상과 비슷한 양의 망간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미국 산업에 필요한 주석의 대부분, 천연 고무 및 텅스텐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통상 무역상으로는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할 뿐더러 미국의 군사 및 우주 개발 계획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석유와 다른 동력 자원들은 이들 전략적, 경제적 이해 관계를 좌우한다, 세계의 산업 및 경제적 이용을 위해서 유통되는 석유의 경우를 볼 때 중동의 연간 석유 생산량의 90% (1977년도 가격으로 800억 \$ 상당 이상에 해당)가 인도양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미국의 석유 수요의 거의 15%가 포함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서구 수요의 65%, 호주 및 일본의 석유 수요의 약 80%가 인도양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선진 공업 제국 및 한국, 자유중국, 필리핀 같은 개발 도상국들도 인도양을 통한 석유 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 공약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 자유중국 및 필리핀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 뉴질랜드와 맺은 ANZUS 조약과 더불어 미국이 이 지역 국가들과 맺은 조약의 일부이고 마닐라 조약으로 알려진 동남아 집단 안전 조약에 의해서 태국을 포함한 5개국과 서로 연계되어 있다. 미국은 헌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이들 동맹국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경

우에 돕도록 이 조약들은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및 안보상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동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적인 변화의 진정한 본질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정책의 주기적인 재평가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동남아 대륙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도 중-소간의 불화는 계속되었다. 1971년에 발표한 상해 공동 선언에 기초한 미-중공간의 관계 정상화는 미국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남아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지상 전투 부대를 감축하려는 세부적인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들 모든 변화와 새로운 차원의 대두는 미-일 관계를 더욱 결속시키도록 만들었다.

## 미국의 방위 요구

이들 미국의 제국이 이익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위 요구에 관한 시험에 필요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기본적인 군사적 역할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위협을 주는 침략 및 폭력 사태에 대한 억

제력으로서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미군의 존재는 이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외부의 간섭없이 평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가능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군은 만일 상기한 역할에 실패할 경우 조약상에 명시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고, 미국과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발휘할 수 있고, 또 발휘해야 할 믿음만한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이러한 역할 임무를 전진기지 전략 수단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다. 그 전략은 병력 수준에 있어서 몇번의 큰 변동은 있었지만 2차대전 이래 지속되어 온 역사적인 배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현재 이 병력 수준은 하와이 서쪽 방면에 주둔병력으로서 194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14만의 미군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괌, 일본, 한국 및 필리핀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엔 공군·해군 및 지상 전투 부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PACOM 구성 병력의 일부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다. 미국의 전진기지태세는 아시아-태평양의 중요한 4대 세력의 이익의 교

차점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북아시아, 동남 아시아에 정착해 있다. 태평양 연안 내에서 미국으로서 가능한 기지 구성을 수정할 수 있는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한다 해도 필리핀에 있는 기지만은 공중으로나 해상으로나 우리의 상호 안보에 필수적이며, 인도양에서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나 병참선들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므로 변할 수 없다.

인도양의 미국 전진 전력은 두척의 구축함과 페르샤만에 취역 중인 기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태평양 사령부 기동 전대가 인도양에 전개되는데 이에는 항공모함 또는 순양함과 3~4척의 구축함이 포함된다. 디에고·가르시아의 미국의 시설은 제한된 시설이지만 중요한 것이다. 이 기지는 기본적인 통신 중계소 및 재급유 항공기를 위한 보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섬은 황량한 섬이지만 전진기지로서 약간의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 남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중요성, 중요한 공중과 바다의 항로로서의 위치, 호주와 뉴질랜드 일대의 섬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의 이유 때문에 미국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솔로몬, 길버트 및 타발루의 신생 세 독립국들과 더불어 적도 이남에서 독립국들이 생기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광범한 아주 좋은 어장을 지배하고 있다. 소련과 중공은 이미 이들 신생국들과 밀접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그 지역의 중요성과 그에 관련된 미국의 이익을 인식하고 그 지역에 대한 외교적인 관계를 재고시켰고 피지에 새로운 대사관과 원조 사무실을 개설하는 한편 남태평양 위원회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태평양 군도(미크로·네시아)의 전략적인 신탁통치 지역에서 미국은 영구적인 정치적 정착과 1981년까지 유엔의 신탁 통치로부터의 분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부 마리아나 연방을 창설하려는 협약도 이미 완성되었다. 지역 내 나머지 섬들도 미국과 자유스러운 연합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미크로·네시아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 공산 세력의 형세

이제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현실에 대하여 약간의 고찰을 해보고 특히

검증하는 소련의 군사력과 이 지역 전역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 능력에 대하여 언급하려 한다. 소련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사력 증강의 절박한 필요성은 거의 변하지 않고 한층 다양해지고 빈틈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소련은 군사적인 계획에서 계속 유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한 바로는 극동에서 소련의 군사적 계획은 철저히 팽창하고 있다. 소련 병력의 거의 3분의 1이 소련의 극동 방면에 전개되어 있다. 소련 지상군은 중-소 국경을 방위하고 있고 해군과 해병대 사령부가 울라디보스톡에 있으며 공군 기지와 군수산업체들이 이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다. 과거 10년 동안에 이들 지상군은 현대화되었고 그들의 기동력도 기계화된 장갑차와 헬리콥터로서 보강 증진되었다. 소련의 극동 전술공군에는 실질적으로 항속거리, 요격능력, 무장적재 능력 및 전자방해 수단 등이 향상된 새로운 타입의 전투기가 추가되었다. 소련의 중 폭격기 중에는 울라디보스톡 부근의 기지에서 하와이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제트 및 터보



프롭 폭격기들도 있다. 장차 소련 공군의 가변의 중폭격기인 백·파이어로서 보강될 것이 예상된다. 소련 태평양 해군은 기동성, 항속거리 및 무장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소련은 이 지역 전반에 걸쳐 이들 병력을 전개시키고 소련 해군력을 투입하는 능력 및 의도를 과시하고 있다. 10년 전 소련 태평양 함대는 연안 방어력으로서 주로 운용되었고, 일본해 너머에서는 가끔 목격되었었다. 근대 소련 해군의 창설자이며, 참모총장인 골루코프 제독은 소련 함대를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로써 지휘 방침을 정했고, 오늘날 소련 태평양 함대는 정기적으로 동·남지나 해상, 필리핀 해상, 남 태평양, 인도양 및 미국의 서해안에 인접한 해역에까지 전개하고 있다. 1968년 소련이 최초로 인도양에 해군을 전개시킨 이래 이 지역에 대한 소련함정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이디오피아, 남 예멘 사태에의 소련의 개입을 배경으로 하여 더욱 증가되었다. 인도양에서의 해군력 제한을 위한 미-소간의 협상이 개시되었을 때 소련은 인도양에 단지 14척의 함정이 있을 뿐이었다. 그 이후 거의 매

일 증가되다시피 하여 12척의 전투함을 포함하여 30척 수준까지 도달했다. 소련은 홍해와 아덴만에서의 제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침을 적극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거리에 걸쳐서 그들의 군사력을 투입하려는 출기찬 노력의 일환이다.

북한은 공격 훈련을 받은 방대하고 무서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군의 대다수를 상당한 전방 지역인 DMZ로부터 15마일 이내에 배치시켜 놓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이 DMZ로부터 남쪽으로 25마일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상정한다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공산 베트남의 관할 하에 있는 군사력은 동남아에서 가장 방대하고 막강한 실력을 갖춘 세력 중의 하나이다. 베트남 전쟁 이래 그들은 끊임없이 많은 수의 지상 상비군을 유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라오스에도 3만여명의 베트남 군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지역에서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그들의 군사 능력에 있어서 광범위한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공산국가들로부터의 주된 군사 위협에서 자신들을 방어하는 능력에 있어서 그렇다. 비록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이 직업적이며, 유능하고 고도로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저 수수할 정도이며, 대규모 무장 공격에 대항해서 싸우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의 아시아 우방과 동맹국들은 그들 자신의 방위부담을 어느 정도 감당하려는 의지와 보다 많은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우리를 도와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보조자로 보고 있으며, 지역적인 안정을 파괴함이 없이 전체적인 억제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제반 상황과 이 지역에 포용되어 있는 군사력의 현황에 대한 광범한 평가를 전후하여 미국의 방위 요구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접하게 한다. 즉 우리의 전진기지 전략은 건전하며, 안전한가? 미국이 이 지역 전 해역에 걸쳐 기지를 유지하고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것인가?

전진 배치된 미군 병력으로 미국은 제

반 돌발사태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것은 우간다에게 이디·아민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위협했을 때 아프리카 동해안 쪽으로 항공모함 기동전대를 전개했던 것처럼 병력의 시위일 수 있거나 1975년 타이만에서 캄보디아에 의해서 나포되었던 미국 상선 마야구에 즈호를 구출했을 때와 같이 병력의 사용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의 전진 기지들은 우리에게 작전상 융통성을 허용하며, 우리의 조약상의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을 제공해 준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공산 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무장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의 도움 없이 홀로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위협 분석은 그 위협이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로써 복합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핵 위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은 잘 알려진 대로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 핵 위협 부문에서 시험이 요구되는 하나의 시나리오는 아마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해서 그 불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소련과의

재래식 분쟁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태평양과 인도양을 통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병참선의 장악을 위한 싸움이 전개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태평양 사령부 관할하에 있는 지역에서의 꾸준한 소련 해군력 증강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상응하는 최저 수준의 전진전개 병력으로 중요한 병참선을 지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우리는 분쟁의 초기 단계에 그 병참선들을 계속 개방 및 확보하는데는 반반의 가망성 밖에 가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임무를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우리의 전력 구조에 수정되어야 할 약간의 결함이 있다. 어느 지휘관이나 다 그렇겠지만 나는 적을 격퇴시키는데 보다 많은 확실한 가망성을 기대한다. 우리는 점증하는 소련의 군사 능력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보다 많은 공군과 해군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향상되고 발전된 대 잠함 작전 체제, 질적 능력이 제고된 전략 공수 능력, 보다 장거리까지 미칠 수 있고 안전한 지휘 통제 체제, 그리고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경보병과 공중 공격력이 필요하다. 애기를 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와 같은 좀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설정된 어떤 선이나 국경을 가로질러 침범해 오는 적군의 특색을 기록한 모범적인 전쟁 작본을 심사 숙고해 보지 않았다. 이 점을 마음에 두면 우리의 아시아-태평양 방위 요구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 평가와 전진기지 전략은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막으려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발적인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방지하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히 국가 권력의 기본적인 개념에 속한다. 우리 국가 권력의 한 구성 요소로서의 군사력의 사용과 효용성은 전체적인 국가 이익과 목표와의 전후 관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억제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의 방지나 공공연한 군사적인 침입 의욕을 꺾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강한 개념이다.

미국의 전진기지 전략의 결정적 공헌은 미국의 힘과 결의를 인지시키는데 있다. 인지 문제를 거론할 때 이는 본래가 변적이고 상대적이며, 쉽게 해석되지 않

으므로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태평양 사령부가 맡고 있는 책임 중의 하나는 이들 인식을 평가하는데 있어 국가 정책 수립자들을 돕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 지역 제반 국가들의 지도자들, 미국의 대사들 그리고 기타 파견되어 있는 일단의 사람들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소련, 중공, 북한 및 공산 베트남의 동태를 주시하고 평가한다. 우리는 미국 전방기지의 미군의 존재가 미국이 공약한 바 지역적인 안정의 정착체로서 우방국들, 동맹국들 그리고 잠재적인 적대국가들에게 모두 광범위하게 이해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겪어 온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방위 태세에 있어서 실제로 혹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깨어지기 쉽거나 변화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전진기지 태세에 대한 아시아의 인식

미국의 전진기지 태세가 미치는 영향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상응하는 인식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국가 목표

와 중대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아시아 우방과 동맹국들은 미국의 존재를 지역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으로서 소련 군사력에 대한 필요한 균형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베트남과 소련의 군사적인 강세와 의도를 조심성있게 주시하고 있는 아시안 국가들은 그들의 야심적인 경제개발계획과 국가건설을 계속 진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분위기를 미국이 유지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안전분위기가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국자본의 계속적인 유입에 전체조건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시안은 그 자체가 분명히 군사적인 기구는 아니다. 일본은 미군의 존재가 일본의 투자 및 개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역 안정의 후원자로서 뿐 아니라 현재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및 방위정책을 가능케 해 주는 미·일안보관계의 지주로서 인식하고 있다. 일본 경제에 대한 생명선의 피침위협은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와 태평양에서의 군사력의 추세에 특히 민감하도록 만들고 있다.

중공 역시 적어도 당분간은 미군의 존재를 이 지역에 있어서 필요한 균형요소로서 보고 있는 징후가 있다. 이러한 인

식은 증공으로 하여금 그들의 군사력 증강을 계획하려는 보다 많은 능력의 발전을 어느 정도 연기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북경정권은 몇몇의 개발도상국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소련과의 경쟁에서 압력을 덜 느낄 것이다.

소련은 아마도 미군의 존재를 여러 각도에서 관찰할 것이다. 소련은 미군의 존재를 유럽에서의 분쟁에서 소련의 군사적 선택과 융통성의 발휘를 제한할 수 있는 극동에서의 소련 대항 세력으로서 미군의 능력을 과시하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련은 또한 미군이 이 지역에서 소련의 군사력을 팽창하는데 방해물로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미국의 전진기지태세는 공중과 해상의 통상로가 큰 위협이나 지속적인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성을 감소시켜 준다. 그러므로 소련은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기회가 감소함을 인식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국의 전진기지태세에 관련된 인식에 대한 어떠한 평가라도 상응하는 군사력과 결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균형과 안정에 중요한 요

소이며, 미국의 전진배치된 군사력이 이러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이 지역 전체에 걸친 분쟁과 더욱 보편화된 불안정 경향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불변의 사실을 강화해 준다. 분명히 군사력만이 미국 국력의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제 정책들도 미국 국가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똑같이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정부의 경제 및 정치적인 제 정책들이 아시아지역 전체의 안정과 인간다운 제 조건의 충족의 기초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후원에 힘입어 궁극적인 성공을 달성하리라고 믿는다. 요약하면 아직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및 전략적 이익을 끊임없이 제고시켜 주는 안정과 증대된 상호 의존을 위한 밝은 징조가 엿보인다. 카터 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 세력으로서 잔류해 있을 것이라고 언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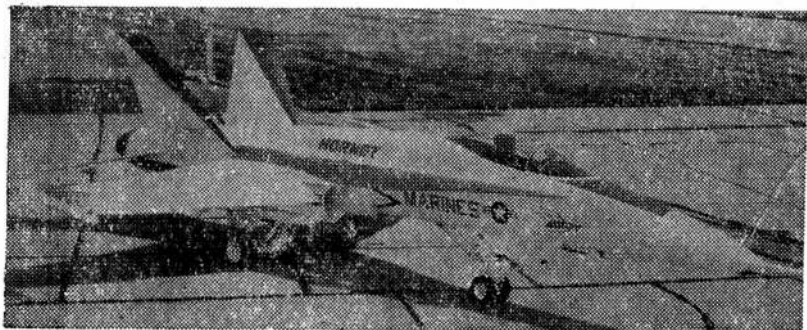
우리의 군사적인 대비태세는 전진기지 전략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적인 변영에 계속 공헌할 것이다.

# 最新銳 戰鬪機

F-18 Hornet



尹 炯 基 譯



현재 McDonnell Douglas사에서 시험을 마치고 비행시험에 들어간 Hornet는 전에 해군의 선박 등에 사용하였던 이름으로 별로 새로운 뜻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생소한 이름도 아니다. 그러나 동 명칭이 미전투기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는 처음이다.

Hornet라는 말이 항공학적인 뜻보다

는 해상학적인 뜻을 더욱 가지려면 동체 그 자체를 모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F-18원형은 60년대 후반의 Northrop사의 P-530 Cobra의 기원을 가진 설계를 최신식으로 세련시킨 것이고, 두가지의 YF-17원형으로 이미 성공리에 비행시험을 마쳤다.

YF-17은 미공군의 경량전투기 계획에



서 제작한 두 기종 중의 한 기종으로 공중전투기(ACF) 경쟁에서 계속 평가하여 왔다.

1975. 1. 13일에 General Dynamics사의 F-16 전투기를 선택하겠다고 미공군이 결정함으로써 일시적이거나 P-530/Cobra/YF-17 제작회사인 Northrop사에게는 비보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몇개월 전에 미리 미의회는 다목적 임무용 경량전투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중전투기 설계의 부산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도록 미해군에 지시하였다.

해군항공기 개발은 고도로 전문화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락설계를 변형시켜서 미해군이나 공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그 성공의 비결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공군의 ACF경쟁에 참여한 두 회사인 Northrop사와 General Dynamics사에는 해군경험에 대한 Totem Pole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각 회사는 NACF의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군항공기 설계에 조예가 있는 회사와 팀을 구성하여 McDonnell Douglas사와 No-

rthrop사, LTV사와 GD사 두 팀으로 구성하였다.

McDonnell Douglas사의 최초설계는 Model 267이라고 알려진 반면 Northrop사의 최초설계는 지금까지도 아직 다른 명칭을 갖고 있으며, 이 설계에 McDonnell Douglas사의 입력의 최초결과를 통합시켰다. 1975년 초에 몇가지를 추가로 재설계한 후에 NACF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 설계를 선택하였다고 그해 5월에 미해군은 발표하였다. 반면 경쟁회사인 LTV/GD사의 Model 1600, 1601 및 1602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결점이 발견되었다.

승리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이 부여되었다. 즉 해군 및 해병대 전투기용 F-18, 해군공격기형 A-18 또는 복좌작전훈련기용 TF-18 등으로 불렸다. 여러 가지 이름이나 Hornet과 같은 암호로 알려진 다른 항공기를 생각해 낸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다.

미해군이 F-18을 선택한 것은 Northrop사가 경량전투기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오래 동안의 끈질긴 노력을 한 대가였다. 그러나 선택하기까지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으며 McDonnell Do-

uglas사를 F-18계획의 주계약자로 지명하고 Northrop사를 「제휴계약자」로 지명하여 계획의 약 40% 몫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약간의 비방을 초래케 되었다. McDonnell Douglas/Northrop사의 전투기를 선정할 때에 미해군은 NACF

RFP(Request-For-Proposal)상에 주요 성능의 Parameter를 충족 또는 초과하느냐를 주목하였다. 이들 Parameter는 다음과 같으며, 1975년에 F-18을 평가한 것이다.

	REP	F-18
Max Mach No.		
Intermediate power	M 0.98~1.00	M 0.99
Time to accelerate M 0.8 to 1.6	110~80sec	88.3sec
Combat Ceiling	45~50,000ft	49,300ft
Specific excess power (ps) M 0.9 at 10,000ft	750~850ft/sec	756ft/sec
Sustained buffet-free load factor	5.0~5.5g	6.6g
Structural load factor	7.5g	7.5g
Single-engined climb	500ft/min	565ft/min
Minimum carrier Approach speed	115~125kt	131kt
Fighter Escort radius	400~450N/M	415N/M
Strike radius	500N/M	655N/M

F-18의 총중량은 내부연료 10,500Lb (4,767kg)을 포함하여 32,857Lb(14,794kg)이었다. 동중량은 YF-17중량보다

40% 이상이 더 무거웠다. 중량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단일품목은 3,100Lb(1,407kg)의 연료를 더 적재하

는 것이었고 기체구조상으로도 여분으로 2,654Lb(1,164kg)가 더 무겁고 기타는 엔진과 전자장비 및 무장설비 등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의 도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F-18의 계획된 최소한도의 항공모함으로의 접근 속도는 설계상의 한계점의 범위 내에 있지 않았고 이는 약간의 설계상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였다. 경쟁 중인 설계도는 여러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LTV/GD사는 1975년에 미 의회에서 해군과 활발한 막후교섭을 하였으나 결정을 뒤엎을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인 동기를 찾지 못하였고, F-18 계획에 대한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왔다.

물론 중간에 3년 동안에 실계를 약간 발전시켜 왔으며 앞에서 인용한 Data는 지금 제작한 항공기와는 정확하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F-18의 미래에 관한 어떤 여타의 의견점들은 1975년 말에 해소되었다. General Electric사는 F-18용으로 선택한 F-404엔진의 FSD에 관한 계약서한을 받았으며, 동 계약서한은 Award Fee계약조건이 되어 있는 Cost-Plus-Incentive fee계약에 대한 과정 때문에 변경되

었다.

1976. 1. 22에 McDonnell Douglas 사도 FSD항공기 11대분에 관한 똑같은 계약서한을 받았으며 전체 계획비용은 14억 3,000만불(75년 달러 기준)로 7개 회계년 동안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FSD F-18의 최초비행은 1978년 7월로 되어 있었다.

미해군은 신형전투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해군의 전투비행단과 경량공격비행단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었다. 전투기에 대한 현대화는 F-14 Tomcat 등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었으나 Grumman사의 전투기의 가격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해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투기의 대수에 대하여 엄격하게 한계를 규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1974년 중엽에 미해군 항공모함 비행단의 24개 대대에 F-14 18대로서도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미해군은 일선 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F-18 6개 대대를 필요로 하였다.

그 외에도 미해병대는 80년대 중반에 F-4로 무장한 12개 전투기대대 모두를 재무장할 것을 필요로 하였다.

USNR의 F-18, 4개 대대와 USMCR의

F-18 2개 대대를 추가로 창설하였고, 연간 4.5%의 소모율을 감안할 때 전체 전투기 요구대수는 455대로 추산할 수 있다(해군용 185대, 해병대용, 270대)

공격대형의 항공기 표준 기종을 F-18로 적어도 90% 갖추게 될 것이 예상되며 해군 일선함대의 24개 대대와 USNR의 6개 대대의 A-7은 A-18로 대체될 것이다.

따라서 총 항공기대수는 4.5%의 소모율을 감안하여 345대가 될 것이고 McDonnell Douglas/Northrop사는 FSD 생산모델 11대를 포함하여 총계획으로 800대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FY-79에 시작하게 될 항공기 생산기금을 포함하여 800대 항공기에 대한 전체 조달비용은 109억 6,800만불(75년 달러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때 Fly-away cost는 614만불, 조달비는 819만불, 계획단가비는 987만불로 각각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가격은 3년 동안의 개발기간 중에 각각 변화하여 1978년 초에 그 가격은 각각 633만불, 833만불, 1,016만불로 변화였다(1975년 달러 기준).

1987년까지 10년 동안 달러 상승률을

감안할 때 이들 가격은 Fly-away cost는 1,108만불, 조달비는 1,530만불, 계획단가비는 1,760만불로 각각 추정하였으며 이는 143억불의 FY-79 예산요구서의 총계획비 추정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정도 규모의 계획은 항상 재검토의 대상이 되며, 완료되기 전에 수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800대분에 대한 요구가 변화된 바 없으나 생산기종은 그 대수가 바꾸어 전투기 430대, 공격기 310대, 훈련기 60대로 되어 있다.

또한 미해병대는 경량공격기대대가 보유하고 있는 A-4M Skyhawk와 AV-8A Harrier 항공기의 대치기로서 A-18과 AV-8B 항공기의 상대적인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연구를 하였다. 미해병대는 해병대의 기본이 되는 유연성 때문에 AV-8B에 완전히 위탁된 상태였으며, 336대의 AV-8B 대신에 새로이 필요로 하게 될 360대의 A-18을 구입함에 있어서의 가격상의 어떤 이점을 찾지 못하였다.

### F-18의 상세한 설계도

Cobra프로그램 매니저인 Lee Begin

이 개발한 Northrop사의 P-530 개념을 이용한 F-18에 대한 최초의 설계도는 잘 알려져 있으며 「전투기 설계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에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다시 말하면 F-18의 특이한 특색은 Quarter-chord line에서 알맞게 후퇴각을 이룬 사다리형의 주익 이외에도 50%까지 양력을 최대로 증가시킬 수 있고, 양력과 초음속 Trim Drag 및 Buffet강도를 이용하여 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LEX(Leading-Edge Extension)과 연결된 혼성의 Wing Planform을 이루고 있다.

또 영각과 Mach 수의 기능으로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전연 및 후연 Flap과 같이 Wing에 있는 Camber를 사용해서 더욱 더 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동체는 날개의 감소된 면과 날개 아래의 증가된 단면 외에도 각기 다르게 조종되는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에서 말한 두 면은 Positive lift를 발생케 하고 양력 때문에 항력을 감소시킨다.

기체와 엔진 Inlet설계를 통합시킴으로써 Intake로 흐르는 기류의 각을 항공기 영각의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Wing은 Inlet Face Mach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Compression Wedge로서 역할을 하며 LEX는 Wing의 꼭대기가 지 동체의 경계층을 전환시켰다.

이와 같은 설계상의 특색의 효과는 YF-17로 충분히 입증하였으며, 동 YF-17은 미공군의 최초평가기간 이후 수차 공중시위를 가진 바 있고 우수한 기동성을 과시한 바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수평비행시 34°까지 양각에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20노트(37km/h)에서 항공기를 충분히 조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60° Zoom에서도 63°까지의 각을 성취하였다.

YF-17은 General Electric사의 YJ-101터보제트 엔진 2개로 추진되며 동 엔진은 각각 약 15,000Lb(6,810kg)의 추력을 내며 A/B가 되어 있고 보조익과 방향타 및 한 조각의 미익 조작용으로 Fly-by-wire체제를 사용하며 미익에 대하여 Pitch and roll을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준다.

외부의 9개의 Store Station에는 M-61 Cannon을 무장할 수 있으며, 기수부분에는 소형(22in/56cm)의 다목적 모우드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다.

FSD로 주문된 F-18은 중요한 기체역학적 면에서도 YF-17과는 다르다. 그러나 미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약 12%까지 설계를 전반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이는 주로 4,400 Lb(1,997kg)의 연료를 여분으로 동체에 적재하고 기수부분에 28in Radar Dish를 장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동 레이다는 35마일(56km)까지의 거리를 탐색할 수 있는 최소규모이다.

또한 캐타펄스발사와 제동착륙에 견딜 수 있도록 기체구조를 보강시켰으며, 최대중량을 10,500Lb(4,767kg)까지 증가시키는데, 익면하중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Wing면을 증가시켰다. 또 착륙장치를 개조하였으며 24ft/sec까지 강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해군의 표준에 맞추도록 설계하였으며, 동체에 수축형 Probe 장치 외에도 비행중 Probe-and-drouge 식 급유시설장치가 되어 있다. 13,700 Lb(6,220kg)에서 19,800Lb(8,626kg)으로 외부하중을 증가시키기는 하였지만 무장설비는 YF-17과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동체 중앙 및 Wing-tip station을

포함하여 날개 아래의 6개 대신에 4개로 동체보다 낮은 "Corner"에 새로이 2개의 Station을 장치하여 Store Station의 위치를 약간 변화시켰다.

Trailing Edge Flap은 이륙시 30°, 착륙시 45°로 편향되며 반면 Leading Edge Flap은 최대로 35°로 편향되어 있다. 기동 Flap으로 사용될 때에는 Leading 및 Trailing Edge의 편향은 각각 25° 및 20°이다.

F-18은 General Electric사의 F-404, Low Pass 터보팬 엔진을 택하여 Bypass Ratio를 증가시키고(0.2에서 0.34로) Turbine Inlet 온도를 증가시켰으며(50°까지) A/B부분의 반경을 약 1in(2.54cm) 증가시켰다.

항공기가 공대공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동체의 각 Corner Station에 Sparrow AAM으로 무장을 하며, 그때에 Side-winder(또는 Sparrow)는 각 Wing Tip에 장착한다. 이 때에 3개의 "Wet" Station(중앙 및 Wing 내쪽)에 Drop Tank를 사용하여 전투행동반경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공대지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동체 Corner Station에 LST(Laser Spot Trac-



ker) Pod 1개와(우현에) FLIR Pod (좌현에) 1개씩을 각각 장착한다. 이 때에는 중앙 및 4개의 Wing Station에 여러 가지의 무장 즉 4개의 Wing Point에 MER-7과 중앙에 TER장치를 하도록/사용할 수 있으며, MK-82 500Lb폭탄 19개를 장착할 수 있다.

F-18기체 전면에 흑연/이폭시 구성물질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실제로 다른 어떤 최신전투기보다 더욱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앞미늘음으로 된 Leading Edge Cap과 Rudder Panel의 앞부분을 제외하고 수직 꼬리표면 전부를 흑연/이폭시 구성물질을 사용하였다.

후미 동체 앞부분에 있는 미익표면과 Speed Brake, 동체배면후미, 주항공기표면, 전연연장부분 및 Landing Gear Door부분은 다른 물질을 사용하였다. 중앙면에서 볼 때 흑연/이폭시 구성물질과 다른 구성물질은 전체중량의 22.1를 감소시켰다.

레이더는 Hughes사가 개발한 AN/APG-65 레이더로서 동 레이더는 공대공 및 공대지 무기투하시 Hand-off, Head-up식으로 한 사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 완전한 디지털식 다목적 모

우드체제이다. F-18에 사용하기 위하여 완전한 전권후 무기체제를 제작하였다. 사용된 전자장비는 CDC AYK-14의 중요한 디지털 임무용 컴퓨터 2개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Master Mode를 Control하기 위함이고, 또 공대공 무기 계산과 공대지 무기계산, 항법조종 Display 관리 및 엔진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항법장비로는 공기 Data 컴퓨터와 TACAN 및 APN-194라디오 고도계와 함께 ASN-130을 사용하였으며, UHF Data Link 및 IFF를 포함하여 UHF라디오 2개를 사용하였다.

대지공격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F-18은 미공군에서 사용하는 Pave Penny와 유사하며 레이저광선에 의해서 명칭이 부여되는 목표물을 포착할 수 있고 조종사에게 조종지령을 하여 줄 수 있는 Laser Spot Tracker가 장치된 Pod를 장착할 것이다. Podon 장치된 전방감시 적외선 Set는 항공기의 전면에 있는 보다 낮은 전방지역에 대한 Video사진을 제공하여 조종사가 주·야간에 지상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목표물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중요한 비행계기장치는 HUD(Head-Up Display)와 MFD(Multifunction Display), 무기투하 및 항법모우드선정 이외에도 MMD(Maintenance Manitor Display) HSP(Horizontal Situation Display) 및 UFC(the Up-Front Control)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18계획의 목적은 처음부터가 전투기와 공격기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주기능간의 공통점은 98% 이상이였다.

## 생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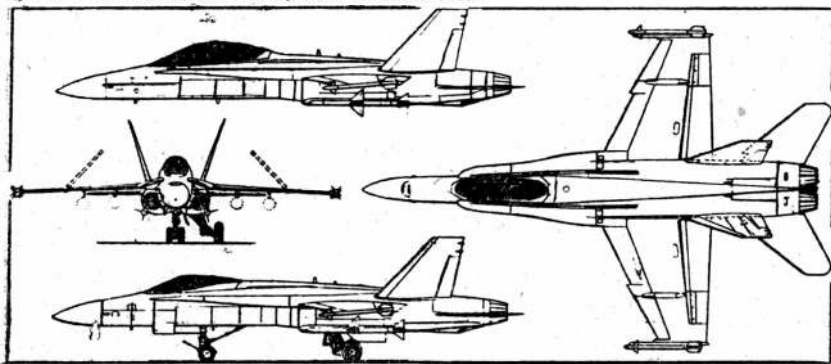
F-18 Hornet는 McDonnell Douglas St Louis공장에서 조립하며 거기에는 Northrop기술팀이 참여하여 왔다. Northrop사는 동체의 중심 및 후미부분과 2개의 수직 Fin, 수압, 연료, 환경조종

제2전원 및 가동체제 등을 개발하여 Hawthorne에서 제작한다.

McDonnell Douglas사는 동체전면과 Wing 스테일레이터(미익), 착륙 및 제동기어, 전자장비, 승무원석 및 비행조종체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개발용의 TF-18A는 1979년 한여름과 후반에 각각 비행하도록 되어 있다. F-18의 조종사 시험용의 생산은 추진될 것이나 1980년 봄에 최초비행을 하기 위하여 FY-79년도 기금으로 생산한 항공기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제한을 받지 않는 생산은 1981년에 가서 시작할 것이다. 항공기 조달은 연간 증가에 따라 증가될 것이다. 한 제안에 의하면, FY 1980년에 15대, FY 1981년에

The three-view drawing depicts the F-18A in its basic form showing the nine external stores stations and wing-fold provision. The additional side-view (top) shows the two-seat TF-18A



48대, FY 1982년에 96대, FY 1983년에 108대, FY 1984년에 186대씩 조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 생산은 보다 서서히 증가시킬 것이며, 최초 2년 동안에는 30대가 생산되고 최초 2년이 지난 후부터는 41개월 동안에 100번째 항공기가 인도될 것이고(즉 70대 항공기가 인도될 것임) 1985년에 가서 월간 F-18을 11대씩 최대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해병전투기 대대에 최초로 작전인도가 되며, 1983년에 12대의 항공기와 완전히 훈련된 조종사를 가지고 IOC(Initial Operating Capability)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미해군은 해병대보다 1년 후에 작전용 Hornet를 인수받게 될 것이며, 이보다 앞서 미해군과 해병대를 위한 조종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최초로 함대대치대대가 창설될 것이다.

지상기지용 Hornet(Land Based Hornet); Hornet의 판매시장은 실제로 팬텀의 5,000대 이상의 기록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몇몇 출처들을 평가하여 왔다. 비록 이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이 그 절반만 적중되는데 불과하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Hornet판매의 대부분은 지상기

지형이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이는 이러한 양의 해상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McDonnell Douglas사와 Northrop사간의 협정조건에 따라 후자인 Northrop사는 주로 지상기지형 Hornet를 개발 및 판매하도록 책임을 맡고 있으며, 동 Hornet는 F-18로 부르며, St Louis에서보다는 오히려 Hawthorne에서 조립할 것이다.

항공모함작전에 필요한 몇가지 부품을 제거하여 약 27,500Lb(12,485kg)의 정상적인 이륙중량과 43,000Lb(19,522kg)의 최대중량을 줄 수 있도록 약 2,500Lb(1,135kg)까지 F-18형의 기본중량을 감소시켰다.

날개접이 시설을 제거하고 주 Landing Gear를 간단하게 하였으며 Nosewheel을 2개에서 1개로 바꾸고 F-18의 결합된 Flap과 보조날개를 위하여 경첩장치가 된 Flaperon으로 대체하고 Arrestor Hook를 제거시킴으로써 중량을 감소시켰다.

미해군임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F-18A에 추가시킨 전체의 Wing Fuel Tank는 F-18에도 사용할 수 있고

1,200Lb(545kg)의 연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F-18L에 Hughes사의 AN/APG-65 레이다 사용이 제외되었으며, F-404 엔진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므로, F-18L은 F-18A 보다 더욱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 공대공 Configuration을 하고 Reheat를 사용할 경우 F-18L은 800ft(244m), 즉 60,000ft/min(305m/sec)이 상으로 상승하며 Mach 2의 최대속도를 낼 수 있으며, A/B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Configuration을 하고 Reheat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륙거리는 1,250ft(381m)이다. 임무행동반경은 AAM 2발과 Drop Tank 2개를 장착하고 800N/M 이상이다.

날개접이 기계장치를 제거시킴으로써 F-18L은 각 Wing에 Store Station Pylon을 추가로 장치할 수 있으며, 총 11개까지 장치할 수 있고, 최대로 20,000Lb(9,080kg)까지 외부에 무장을 할 수 있다. 외부에 16,000Lb(7,264kg)를 적재하였을 시 이륙거리는 1,950ft(594m)이다(Reheat 사용). 공대지임무시에는 통상 동체 코너 Pylon에 LST 및 FLIR

Pod와, 각 안쪽 Wing Pylon에 610gal(미국)의 Drop Tank 1개 및 각 Wing Tip에 Sidewinder 2문을 장착하는 외에도 각각 500Lb의 MK-82폭탄 16발(중앙과 중앙 Wing Pylon에 각각 4발, 바깥쪽 Wing Pylon에 2발)을 장착한다.

1976년에 이란 정부는 F-18L형 250대를 구입하겠다는 관심을 표하였으며 Northrop사로 하여금 특수 F-18L형 설계업과 장기간의 Lead-Time품목요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800만불)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래는 유실되었다. 이는 1977년에 카터행정부가 채택한 무기수출통제정책이 지금까지 미군이 작전상 사용하지 않았던 항공기를 비우호국가에 판매함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조종정책의 다른 귀절이 최신무기체제를 갖춘 아주 다른 기종의 수출용 단독개발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F-18L의 위치는 어딘가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상기지원 Hornet의 수출은 1983년에 가서야 허용된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F-18L형을 미군의 어느 부대에서도 구입할 전망은 거의 없다. 다

시 말해서 미해군의 지상기지 작전용 F-18의 판매는 수출정책에 따라 지금까지를 어떠한 문제도 야기시키지 않을 것 같이 보이나 McDonnell Douglas사와 Northrop사 간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구입국들이 지상 기지용의 사용을 위한 최대로 우수한 항공기를 구입하지 않고 있음을 뜻할 수도 있다.

반면 F-18을 판매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F-18은 캐나다의 NFA (New Fighter Aircraft) 계획을 위하여 캐나다에 의해서 선발후보자명부에 등록

된(CF-18L로) 기종 중의 한 기종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정부는 Northrop사로 하여금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서독, 그리스, 터키 및 일본 등을 포함한 총 8개국가와 수출협정교섭을 하고 이들 국가들에 기술적인 Data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들 국가중의 일부는 판매전망이 극히 희박한 국가들이기는 하나 다른 국가들은 F-18에 아주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 박 대통령각하 말씀 중에서 ◎

오늘날에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봉사가 충이며, 인간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효이며, 이것이 한국 사상의 근본인 인본주의이다. 우리의 교육도 이를 되찾아 여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증대되는 蘇聯爆擊機의 威脅



盧 昇 濬 譯

蘇聯의 Backfire爆擊機는 現在 美·蘇間의 戰略武器制限會談의 決定的인 要素가 되고 있다. 美國이 戰略爆擊機의 生産을 中止하고 現狀을 維持하고 있는 反面에, 蘇聯은 論爭의 焦點이 되고 있는 Backfire爆擊機를 繼續 製作하고 있으며 美大陸의 目標物들에 對하여 加一層의 威脅이 될 수 있는 第二의 爆擊機를 開發中이다.

## I. 序

蘇聯의 繼續인 Backfire爆擊機의 生産과 이 爆擊機를 戰略武器制限會談(SALT)의 規制對象에 包含시키기를 拒否하는 蘇指導者들의 態度는 美國의 安保에 增大되는 威脅을 提起하고 있다. 여기에 더 큰 問題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蘇聯이 Backfire보다 더욱 強力한 新型 爆擊機를 研究中이라는 事實에 對한 最近의 明白한 證據들이다.

最近의 推算에 依하면 蘇聯은 지금까지 100臺 以上の Backfire를 生産하였으며 現在 年間 30臺 以上을 生産하는 中이다.

軍事專門家들에 의하면 蘇聯은 美國의 全域에 核爆彈을 投下할 수 있을 程度로 超音速爆擊機를 大規模로 갖추고 있으며 그에 反하여 爆擊機의 攻撃에 對한 美國의 防衛力은 最小限의 水準으로 減縮되어 온 것이다.

카터行政府의 政策樹立家들은 Back-



fire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을 提示하고 있다.

① 蘇聯은 B-1戰略爆擊機의 生産計劃을 中斷한 美國의 先例를 追從하지 않고 있다. 蘇聯의 指導者들은 有人浸透爆擊機가 現代戰에서는 非效率의이며, ICBM들과 미사일潛水艦들이 活用되고 있는 狀態에서는 不必要한 것이라는 美國의 主張을 無視하고 있다.

美行政府의 戰略家들의 論理에 對한 蘇聯側의 拒否反應은 政治的으로 카터行政府가 浸透爆擊機의 將來를 穩當하게 判斷하고 있는가 하는 어려운 疑問을 提起한다.

② 遲延되고 있는 戰略武器制限會談에 있어서 蘇聯은 Backfire의 生産을 繼續하여 거의 武器協定에 到達할 수 없을 程度로 높은 障壁을 形成한 채 美國과 協商을 하여 왔다.

1974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던 포 오드大統領과 브레즈네프書記長과의 頂上會談에서 蘇聯은 核運搬手段의 保有上 限線을 公히 2,400基로 하자는 原則을 受諾하였다. 美國防省에 의하면 이에는 大陸間미사일과 潛水艦發射미사일, 重爆擊機 및 空對地彈導미사일이 包含된다.

그러나 그 후의 協商過程에서 蘇聯은 美國의 戰略爆擊機를 이 上 限線에 包含시켜야 하며 Backfire爆擊機는 大陸間武器體系가 아니라는 理由로 排除시켜야 한다는 立場을 取해 오고 있다.

## II. 爆擊機의 航續距離 問題

Backfire爆擊機의 航續距離問題는 戰略武器會談의 成功與否를 決定하는 要因의 하나가 되었다.

1970년에 처음으로 西歐의 軍事專門家들은 Backfire機가 中央아시아의 카산(Kazan)에 있는 航空機製作倉의 駐機場에 있는 것을 發見하였다. 그러나 美國의 專門家들은 이미 이보다 1年前에 蘇聯이 새로운 戰略爆擊機를 開發中이라는 事實을 美政策樹立家들에게 警告한 바 있다. 이는 나중에 Tupolev社가 設計한 航空機이며 Tu-26이라는 固有番號가 주어졌음이 判明됐다.

美空軍의 指導者들은 처음부터 Backfire가 大陸間 爆擊機라는 것을 主張하였다. 美國政府의 發表에 의하면, 1971년에 美國의 여러 情報機關들은 Backfire가 美國大陸에 對한 爆擊任務를 遂

行할 수 있는 航續距離를 갖고 있다는 點에 意見이 一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2년에 CIA를 爲始한 몇몇 情報機關들은 이에 異論을 提起하였다. CIA는 製造技術上的 여러 問題들을 들 어 Backfire는 過去에 主張되던 것보다 는 짧은 航續距離를 가지며 따라서 美國 本土를 攻撃할 수 있는 戰略武器로 看做 할 수는 없다고 主張하였다. 이렇게 갈 라진 의견은 1972년의 SALT-I의 暫定 協定(Interim Agreement)의 締結 當時 에도 있었다. 戰略攻擊武器體制에 對한 SALT-I의 暫定協定에서는 美·蘇兩國 이 保有할 수 있는 長距離戰略미사일의 數를 制限하였으나 爆擊機에 對하여는 制限을 가하지 못하였다.

蘇聯의 協商者들은 現在 進行되고 있 는 戰略武器에 關한 協定에서 Backfire 가 規制되어서는 안 된다고 主張하여 왔 다. Backfire의 航續距離에 關하여 그들 은 여러 가지 다른 答辯을 하여 왔다. 그 한 例로, 蘇聯의 官吏들은 Backfire의 航續距離는 오직 2,200km(1,375마일) 밖에 안 되므로 大陸間的 戰略作戰을 위 한 武器는 아니며 海洋統制와 유럽 및 아시아의 目標物들을 위한 武器라고 主

張하였다.

Backfire의 性能에 關한 論爭이 그치 지 않는 理由는 무엇인가? Backfire에 關하여 蘇聯이 維持하고 있는 秘密성과 다른 모든 軍事的 活動들이 그 主된 理 由가 되고 있다. 한때, 美國의 一部官吏 들은 蘇聯의 Backfire와 美國의 B-1을 相互 直接 調査해 보자는 提案마저 考慮 했었다. 이러한 提案이 實際로 提起되었 다는 公式報道는 없다.

Backfire에 關한 情報를 蒐集하려는 모든 努力에도 不拘하고 美國은 事實上 오직 몇장의 寫眞을 얻는데 그치고 있다. 이 몇장의 사진과 약간의 데이터를 基礎 로 美國의 航空學專門家들은 Backfire의 性能을 究明키 위하여 컴퓨터를 利用하 는 등 모든 努力을 하고 있다.

### Ⅲ. Backfire의 航續距離 에 關한 研究

美國의 空軍, 海軍 및 航空會社들은 CIA에 의하여 入手된 情報들을 資料로 하여 Backfire의 性能을 算出해 낼 것 을 要請받았다. 英國空軍과 大英航空會社(British Aerospace Industry)도 그 들의 意見을 問議받은 바 있다.

一部 政府機關들은 그들이 民間레벨의 專門家들에게 提供한 情報들이 거의 그들의 獨自의인 利益을 摸索하기 위한 것이라는 非難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一部에서는 空軍이 製作이 中斷된 B-1爆擊機의 生産再開과 같은 獨自의인 計劃에 對한 支持를 얻기 위하여 蘇聯의 空中威脅을 誇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CIA는 SALT-II會談의 成功的인 妥結과 같은 外交的 政治的 目的을 成就하기 위하여 蘇聯에서 進行되고 있는 不吉한 趨勢를 過小評價하는 것이 아닌가 疑心되고 있다.

Backfire를 研究한 專門家들 間에 相互論難이 있는 反面, Backfire는 大陸間 爆擊機라는 空軍側의 主張을 支持하는 理論的인 合意가 形成되고 있다.

CIA의 한 幹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Backfire의 航續距離에 關하여 空軍側이 옳았다는 것을 是認한다. 그러나 空軍이 Backfire가 製作될 때부터 充分한 證據로 確保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Backfire는 5,000마일 이상의 航續距離를 가지며 2만 파운드 상당의 미사일

이나 폭탄을 運搬할 수 있고 美國大陸이나 쿠바 및 隣接第三國의 目標物을 攻擊할 수 있다. 空中再給油를 받을 경우에 Backfire는 蘇聯의 極地帶의 基地로부터 飛行하여 美國內의 어떠한 目標도 攻擊하고 本國으로 歸還할 수 있다.

全長이 132feet이며 27만 파운드의 最大離陸重量을 가지는 Backfire는 美國의 戰略爆擊機인 FB-111 보다는 크고 舊型인 B-52보다는 작다. 美國의 新型 爆擊機인 B-1은 全長이 150feet이며 總重量이 389,800파운드이다.

機翼을 後退시켜 날개의 길이가 86feet가 된 狀態에서 Backfire는 最高度에서 Mach 2.5의 速力을 낸다. 遠距離飛行을 위하여 날개를 뺐을 때, 그 길이는 113feet가 된다.

美國의 B-1爆擊機는 最大速度 Mach 2.2 및 6,100마일의 航續距離를 갖도록 考案되었으나 實際로 生産된 爆擊機의 最大速度는 Mach 1.6으로 減少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B-1의 날개길이는 後退時 78feet이고 펼쳤을 때 136feet이다.

美國의 分析家들은 지금까지 Backfire의 改造型으로서 最小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의 型을 判明해 온 바 있다.

“A”型은 큰 Landing Gear Pod를 가지고 있다. 美國과 西歐의 專門家들이 이 點과 날개의 여러 要素들이 航續距離問題와 關聯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 型은 4,500~5,000마일의 航續距離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나중에 觀察된 “B”型은 流線型的 Landing Gear Pod를 갖고 있으며 날개가 많이 變形되었고 航續距離를 約 5,400마일 程度로 延長시킬 수 있는 새로운 Inlet Ramp가 設置되었다. 이 型은 空中再給油裝置가 되어 있다.

“C”型은 더욱 流線型的 胴體로 發展되었다. 航空專門家들은 Backfire의 變化要素들은 航續距離를 延長하기 위한 再設計의 값비싼 努力들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 Ⅳ. Backfire의 任務

美國의 政策樹立家들은 Backfire가 어떠한 任務을 가지는가에 關하여 確實한 立場을 取하고 있지 못하다. 미사일과는 달리, 航空機들은 그 諸元을 分析하여 任務을 明確히 判斷해 내기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西歐의 一部 軍事專門家들은 Backfire

를 유럽 및 아시아의 目標物들에 對한 威脅의인 武器로 보고 있다. 一部는 Backfire들이 蘇海軍航空隊에 配置되는 것을 注目하고 이 爆擊機들이 美國 및 其他國의 海軍을 攻擊하기 위한 것이라고 豫想한다.

그러나 大概의 分析家들은 Backfire의 긴 航續距離와 지금까지 行해졌던 實際의 飛行狀況 등을 考慮하여 一部 혹은 모든 Backfire들이 美國本土內의 目標物을 攻擊하는 任務을 맡아 왔다는 結論에 到達하고 있다.

改造된 “B”型의 空中再給油飛行을 包含하여 Backfire의 飛行에 關한 새로운 證據들은 諜報衛星에 의하여 捕捉되었다. 一部 軍事專門家들의 意見으로는 Backfire의 航續距離에 關한 誤算은 이미 美國의 防衛에 큰 威脅을 提起하여 왔다는 것이다. 몇몇 情報機關들이 立場을 바꾸어 Backfire가 制限된 航續距離를 가지고 있다고 主張하였을 때, 國防省은 實質的인 爆擊機의 威脅이 없다는 前提下에 상당한 部分의 防空레이다 및 遊擊機를 撤收하는 등 對敵爆擊機防禦體制에 있어서 大規模의인 減縮을 斷行하였다.

그러나 이제 Backfire의 航續距離에 관한 全般的인 合意가 形成됨에 따라, Backfire는 沈滯中인 SALT의 가장 큰 難關이 되고 있다.

## V. Backfire와 SALT

SALT協定에서 蘇聯의 爆擊機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카터行政府가 當面하고 있는 政治 外交의 으로 가장 深刻한 問題들 中의 하나이다.

一部 行政府官吏들은 最近 數個月 以內에 戰略武器에 關한 새로운 協定이 條約의 形式보다는 行政協定の 形態로서 議會에 提出될 可能性이 높음을 示唆해 왔다.

Dewey F. Bartlett(共和 Okla)를 爲 始한 일부 上院議員들은 이에 反對하여 왔다. 條約이 批准되기 위해서는 上院의 2/3의 同意가 있어야 하나 行政協定은 兩院의 單純多數決에 의하여 通過될 수 있기 때문이다. 行政協定の 反對者들은 1972年 9月 30日에 制定된 公法 92條 448項을 引用하고 있는데, 이 條項에는 「議會는 大統領이 美國의 大陸戰 略戰力을 蘇聯에게 주어진 上限線보다 더 劣等하도록 制限하는 條約을 將來에 追求

하지 않을 것을 促求한다」라고 明示되어 있다.

協商의 交錯狀態를 解決하기 위하여 現在 研究되고 있는 또 하나의 方案은 蘇聯으로 하여금 爆擊機의 生産率을 增加시키지 않는다는 約束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蘇聯의 指導者들이 Backfire의 現在의 生産率 自體를 밝히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어려운 일이다. 蘇聯에게 美國에 가까운 北極基地에 Backfire를 配置하지 말 것을 要請하는 提案은 이마 行해져 왔다.

最近의 報告에 의하면 美合參은 蘇聯의 爆擊機의 威脅에 對處하기 위하여 美國의 防空體制改善을 위한 追加豫算을 백악관으로부터 約束받은 대신 Backfire 문제에 關한 反對를 撤回할 것을 要請받았다고 하나 國防省은 이 事實을 否認하였다. 國防省의 소식통에 의하면 合參은 이에 同意하기는 커녕 強力한 反對를 提起하였다는 것이다.

작년 8月, 美國의 두 議員이 이와 비슷한 提議를 하였다. 즉 Bob Carr(民主 Mich)議員과 Thomas J. Downey(民主·N.Y.)議員은 蘇聯의 主張에 應하여 Backfire을 SALT-II의 協商對象에서

除外시킴자는 提案을 하였다. 그 대신 두 대의 OHR(Over-the-Horizon Radar)을 발주하여 캐나다地域에서의 遠距離早期警報(Distant Early Warning) 레이더體制를 改善시키며 F-14 및 F-15를 主軸으로 하는 100대의 遊擊機를 新規발주하여 遊擊戰力을 向上시키자는 것이었다.

上記와 같이 追加的으로 航空機들과 레이더들을 발주하기 위하여는 總 40億 弗의 費用이 所要될 것으로 推算된다.

## Ⅵ. Backfire의 後繼者

Backfire가 美國의 SALT協商者側의 問題가 되지 않는다. 假定하더라도 Backfire의 뒤를 잇는 새로운 爆擊機의 出現問題는 美國의 軍事計劃家들에게 더 큰 混亂을 惹起시키고 있다. 國防省의 高位層은 작년 國會의 委員會에서 이 問題를 外面的으로는 簡略하게 言及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爆擊機에 關하여 아직은 有用한 諜報가 별로 入手되지 않았다. 情報分析家들 間에는 그 存在自體조차 論爭의 對象이 되고 있다.

소련수상 Leonid Breznev와 其他 蘇

聯指導者들의 새로운 爆擊機에 對한 言及은 이러한 混亂을 더욱 크게 하였다. 上記한 論及中의 하나에 의하면 새로운 爆擊機는 TU-160으로 命名되었으며 TU-26 Backfire 및 TU-144超音速旅客機를 비롯한 수 많은 爆擊機 및 旅客機를 製作한 바 있는 Tupolev設計所(Tupolev Design Bureau)에서 製作中이라는 것이다.

인을 만한 諜報에 의하면 이 爆擊機는 Backfire와 비슷한 정도나 그 以上の 航續距離를 가지며 미사일과 폭탄의 運搬量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더욱 效率의인 제트엔진으로 製作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分析家들은 이 爆擊機는 現在 蘇聯의 遠距離空軍(Dal'nyaya Aviatsiya: Long-Range Air Force)에 配置되어 있는 TU-16 Badger와 TU-22 Blinder 爆擊機들의 破棄計劃에 따라 앞으로 3년 내지 5년 안에 量産體制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1973년에 Backfire製作工場團지에 새로운 새로운 組立工場은 蘇聯의 爆擊機生産計劃에 대한 美國의 關心을 高潮시켰다. 이 새로운 工場이 Backfire를 增産하기 위한 것인지 새로운 爆擊機를 生産



하기 위한 것인지의 與否는 아직 明確하지 않다.

最近에 完成된 이 工場의 規模는 Backfire를 두 배로 增産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國防省의 專門家들은 Backfire의 現在 生産率을 月 2대 내지 3대로 推算하고 있으나 確認되지 않는 한 報告에 의하면 最近의 月生産量은 훨씬 增加되었다고 한다.

Backfire를 後續하는 새로운 爆擊機에 對한 報告를, Backfire增産의 可能性, SALT를 둘러싼 相互反應打診 등의 最近의 事態進展은 防禦計劃에 있어서 爆擊機의 重要性을 高揚시켰다.

SALT協商에 關하여 美政府의 한 官吏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蘇聯의 爆擊機들이 오늘날 論爭의 가장 큰 對象임은 分明한 事實이다.

B-1, FB-111 및 Backfire의 諸元 比較

機種 諸元	B-1	FB-111	Backfire
總重量	389,800 pounds	100,000 pounds	270,000 pounds
最大速度	Mach 2.2	Mach 2.5	Mach 2.5
最大航續距離	6,100 miles	3,300 miles	5,000 miles(추정)
爆彈運搬量	75,000 pounds	31,500 pounds (內部 및 外部)	20,000 pou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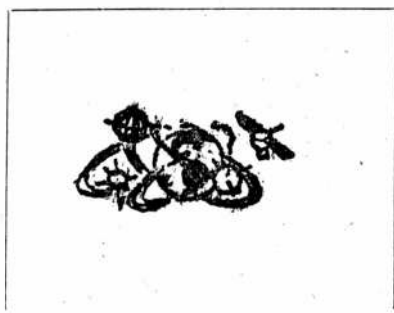
### 生活人的 智慧

#### — 難解한 말을 쓰지 않는다 —

말을 할 때는 상대에게 의미가 통하지 않는 즉 상대가 알 수 없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부지불식간에 어려운 말을 쓰는 버릇은 나이가 든 상사들에게 많다. 전부터 입버릇처럼 한문자를 사용하거나 학식을 자랑하는 듯한 어려운 말을 일상의 직장에서나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요컨대 언어는 자기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고 상대를 움직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게 쉽고 알기 쉬운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

氣  
象  
業  
務  
의  
自  
動  
化

李  
龍  
鳳  
譯



개 요

1961년 고 케네디(Kennedy) 미국대통령이 제17차 UN총회에서 세계각국간 천기예보와 기상관측에 관한 협력을 호소하자, 국제연합 전문기관으로 130여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서 작업위원회를 구성, 1967년 4월 UN총회의 승인을 얻어 세계각국이 기상업무 및 연구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확실히 입수케 하는데 목적을 둔 세계기상감시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세계기상감시(WWW: World Weather Watch) 실천계획은

가. 범세계적 관측망 구성(GOS: Global Observing System)

나. 범세계적 자료처리조직(GDPS: Global Data-Processing System)

다. 범세계적 통신조직(GTS: 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

라. 범세계적 인공위성체제(GSS: Global Satellite System)이다. 그밖

고, 이와 병행해서 지구대기 개발계획 (GARP: Global Atmospheric Research Programme)을 진행하고 있다.

GARP는 열대기상연구(Tropical Meteorological Study)와 공공이익을 위한 기상변조(Weather Modification)를 중점사업으로, 1979년에는 FGGE계획(일차 지구대기 개발실험: (First GARP Global Experiment)을 수립, 세계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아래서 그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기상업무는 사상과 국경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사업이 되었으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항공기의 급속한 발달은 고도의 기술적인 항공기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 공간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기상관측의 자동화에서→②원기도 해석의 객관화→③예보의 수치화→④기상정보의 자동화로 연결되는 기상업무의 전산화(Computer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1.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ASWS: Automated Surface Weather System)

인간이 갈 수 없는 우주대기 및 무인 고도 등의 기상측정을 위해 설계된 체계를 응용한 것으로 종래의 수동적 매시 정기관측을 탈피, 매초마다의 비행장 주변의 기상상황을 자동측정처리하는 장비

이다. 즉, 비행장 주변의 풍향과 풍속, 온도와 오점, 활주로시정과 운고 및 고도수정치 등을 자동관측 자료화하여 기상관측의 정밀화 및 인력의 절감을 달성하며, 연내에 우리 공군도 운영을 개시, 항공기상관측의 100% 효율화에 기여하게 된다.

### 2. 자동기상지원 시스템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일인 십역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Fig. 1과 같이 기상예보실에 1대의 TV카메라를 작동시키고, 기상지원 요구부서마다 TV Monitor(19inch)를 설치하면, 하시를 막론하고 1인의 기상예보자(Briefer)가 수십개의 부서에 기상지원을 만족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연내에 독자적인 CCTV 전계로서 항공기상지원의 신속화와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 3. 기상 레이더 (Meteorological Radar)

레이더는 원래 군사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상측기로도 사용하게 되었다. 레이더에서 관측되는 기상현상으로는 강우지역과 그 이동강도, 운층의 높이 및 구조, 동결층의 높이, 저기압의 이동과 속도, 고층풍의 측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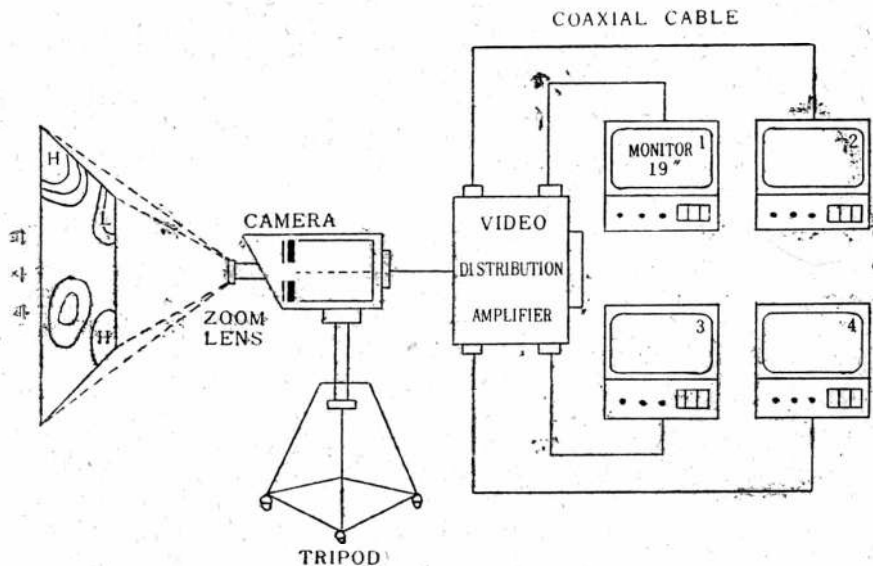


Fig 1. CCTV 설치모형

현재 보통 기상관측용으로 쓰고 있는 레이더의 전파의 파장은 3~10cm 정도이다. 포물면 반사경에 의해 전파는 단면적이 원형 또는 타원형의 비임(Beam)으로 발사된다. 전파는 4° 이내의 폭을 갖는 펄스(Pulse)로서,  $1.5 \times 10^{-6}$ 초 내외의 계속 시간을 갖는 것이 매초 400 정도 발사된다.

이 펄스는 대기속을 똑바로 진행하다가 도중에 강우구역이 있으면 물방울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다. 전파의 진행속도는 알고 있으므로, 전파가 발사된 후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을 재면 물방울이 발사지점에서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전파를 사방으로

퍼뜨려서 발사하지 않고 어느 한 방향으로 집중하여 발사하도록 하여, 전파가 반사되어 오면 그 방향이 강수구역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 반사파의 성질은 PPI 스코우프와 PHI 스코우프라고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와 같은 브라운관에 표시된다. 강수구역의 수평분포를 표시하는 것이 PPI 스코우프인데, 이것은 강수구역의 관측점으로부터의 수평거리와 방위각을 나타낸다. 또 RHI 스코우프는 관측점으로부터의 수평거리와 강수 구역의 높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기상레이더로는 강수구역의 거리·수평분포·수직분포 및 강수강도 등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기상레이더는 단기 예보에는 절대적인 기상측기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또 레이더로 관측할 때 태풍이나 한랭전선, 뇌우 등에 동반되는 강우 구역을 발견하려면 되도록 높은 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관상대에서 1970년에 서울근교에 있는 관악산에 탐지거리 400km인 기상레이더를 설치하여 기상예보에 이용하고 있으며, 1977년 공군 기상레이더 운영개시에 이어 연내에 기상레이더반이 증설되면 대공군의 기상레이더반과 함께 기상레이더정보의 오각형이 구축되어 물질없는 악기상 경제체제를 이룩하게 된다.

#### 4. 기상 위성 (Meteorological Satellite)

기상업무도 이제는 우주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1960년 최초로 인공기상위성 타이로스(Tiros) 1호가 지구궤도에 진입함으로써 기상업무의 우주시대는 개막되었던 것이다.

이 타이로스 기상위성은 높이 약 700km, 적도에 대하여 약 58°의 기울기를 갖는 경사궤도에서 1시간 39분만에 지구를 1회전하면서 텔레비전 카메라로 지구를 덮은 구름사진을 찍어 지상으로 송신해 주도록 되어 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기상관측망의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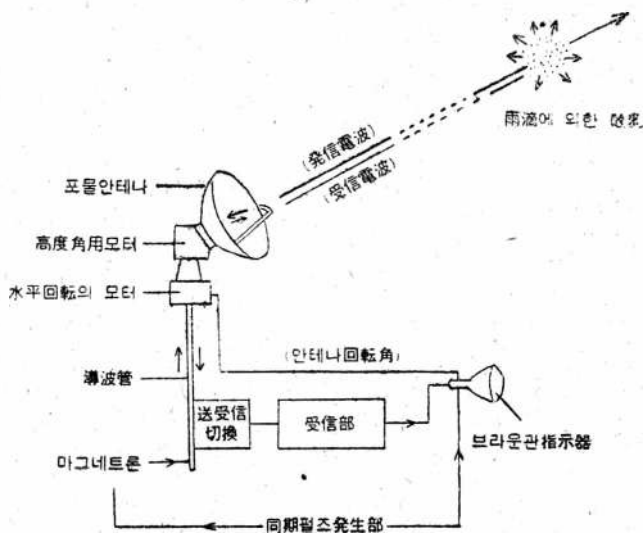


Fig 2. 기상레이더의 모형

포를 보면, 인간이 사는 육지에는 비교적 많은 관측망이 구성되어 있으나 지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해면상에는 몇 곳의 도서관측소와 정점관측선이 있을 뿐이다. 또 육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나 추운 극지방에는 관측소가 거의 없으므로, 종래에는 이런 곳의 대기 운동이나 기상현상의 변화를 파악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그러던 것이 기상위성이 가동됨으로써, 육지나 해상 또는 사막의 구별없이 광범한 지역의 구름사진을 연속적으로 지상에 보내줌으로써 관측상의 취약지역을 보완하여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층 기상관측에서 탐지되지 않았던 많은 허리케인(Hurricane: 멕시코만의 태풍)을 이 기상위성이 발견하여, 해마다 수 10억 달러의 기상재해를 초래하는 허리케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은 1965년 7월까지 10개의 TIROS를 쏘아 올렸으며 기술적으로도 많은 개발이 있었다. 1966년 2월부터 실용 기상위성으로서 TIROS를 개량한 ESSA 1호가 쏘아 올려졌으며 1969년 2월까지 9개의 ESSA형의 위성이 쏘아 올려졌다. 그 후 NOAA형이 쏘아 올려지고 있다(고도 1,400km 정도의 원에 가까운 타원궤도).

TIROS-8호 및 짝수번호의 ESSA에는 자동송화장치인 A. P. T가 장치되어 있으므로 V. H. F. 수신장치와 Facsimile

수신장치가 있으면 궤도가 수신소근처를 지날 때 관측자료를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주 궤도위성 외에 정지위성(GMS)이 있다. 이것은 적도상공 36,000 km의 고도에 지구회전방향으로 쏘아 올려진 것으로 지구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위치에 있다. 정지위성을 이용하면 전지구의 약 1/3 지역에 관측자료를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만약, 정지위성을 5개 적당한 간격으로 쏘아 올리면 지구의 대부분을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으므로, WMO가 중심이 된 세계기상감시(WWW)계획에 의거 이미 4개의 정지위성이 각각 135°W(1975—미국), 75°W(1974—미국), 140°E(1977—일본), 0°(1977—유럽)에 쏘아 올려져 있으며, 70°E에 소련에서 발사할 것만이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우리 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우주시대 로 돌입, 우주개발과 더불어 GMS도 쏘아 올려 세계의 기상학에 이바지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현재 APT(자동 전송 사진)수신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내에 정지위성 수신소를 설치, 보강하게 되면 연속적인 대기의 분포를 관별하여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 5. 전자계산기(Computer)

현대과학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전자계산기의 개발이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기상업무에도 이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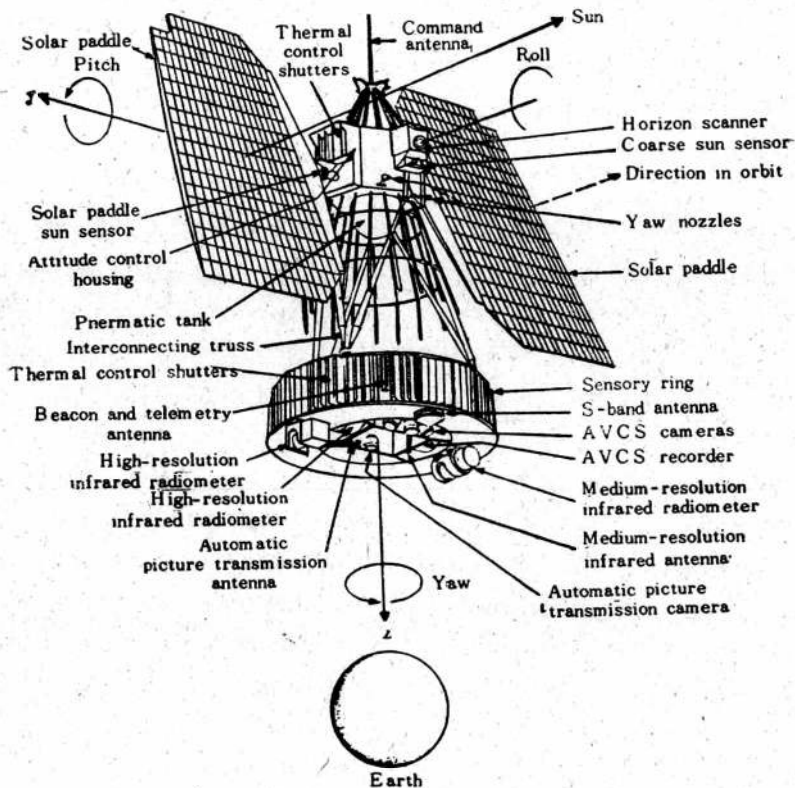


Fig 3. 1960년 발사된 기상위성 Nimbus 2호의 중요부분

기상통계에서 예보업무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기상자료를 단시간에 처리하게 되었다. 전자계산기가 직접 기상관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상자료의 처리와 일기예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등장한 것이다.

북반구에는 현재 2만개소 이상의 지상 및 고층해상관측소와 운항중에 있는 수천척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기상관측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측자료는 세계 각처에 있는 기상대에 전보형식으로 보고된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다량의 기상자료를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천기도에 기입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일기의 변화를 바로 쫓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기상대에서는 기상자료는 텔레타이프 인쇄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속도 전자계산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전자계산기는 틀

린 데이터라든가 또는 관측기계의 고장이  
나 송신도중에 틀려진 자료 등을 판단하  
여 골라내고, 정확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천기도상에 등압선을 그린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정확한 천기도가 그려지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자계산기는 2~3  
일 후의 예상천기도까지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기상학은 급속한 발  
전을 보아, 복잡한 대기의 운동을 이론  
적 수식으로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치예보는 이와 같은 이론식  
을 토대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치예보법으로 24시간 후의  
예상천기도를 그리는 데는 무려 1천만회  
이상의 가감승제의 계산이 필요하게 되  
는데, 이 계산은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계산기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엄청난 계산도 불과  
수분이면 예상천기도 작성에 필요한 계  
산을 마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는 기상통계에만 전자계산기  
를 이용하는 전산화의 초보단계에 머물  
고 있으나 부단한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  
을 개발하여 항공기상지원에 만전을 기

하게 될 것이다.

## 결 언

우리의 항공작전 개념이 Mach(음속)  
로 바뀐에 따라, 존각을 다루는 고도의  
항공기상지원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  
한 요구는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기상  
업무의 전산화로서만 만족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술한 기상업무 전산화  
의 주역들을 신속히 개발, 연구 발전시  
킴으로써 하루 속히 전산화 체제를 이룩  
해야 한다.

기상업무의 전산화가 이룩되는 날, 자  
동 지상관측자료와 Computer가 생산하  
는 천기도, 수치예보 및 기상레이더와  
기상위성자료를 토대로 기상예보를 판단  
하여 CCTV를 통해 기상지원 요구부서  
에 통보하는 일인 운영체제 즉, 전산화  
된 기상대에서 전산화된 비행계획에 따  
라 일인이 관측에서 기상지원까지 신속  
히 처리하는 항공기상 지원효율의 극대  
화가 달성된다.

<참고문헌>

WMO BULLETIN Vol. XXVII

No. 4.



(詩)



## 님의 침묵(沈默)

韓 龍 雲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  
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놓고 뒷  
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  
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  
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忠武公의生涯와思想

있었을 것인가  
 무너지는 歷史를 바로 볼 수  
 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누가 능히  
 공이 文中에서 武로 방향 전환을

편  
 집  
 실

1. 幼年時代

忠武公은 李朝 仁宗 元年, 西紀 1545  
 년 乙巳 음력 3월 초 8일 子時에 서울  
 도성 안 乾川洞에서 태어났다.

이 乾川洞에 대해서 혹은 지금의 駱山  
 밑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지금의 三濟洞  
 첫머리쯤이라고도 하는 학설이 없지 않  
 았으나 여러 가지 자세한 考證에 의해서  
 지금의 中區 仁峴洞 1街 지역이라고 보  
 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학설이 되어 있  
 다.

더우기 西厓集이나 李忠武公全書 중에  
 있는 공의 行錄 등에,

『공은 社交를 좋아하지 않아, 서울에  
 서 성장했으나 그를 알아 주는 이가 적  
 었는데, 다만, 西厓 柳成龍 宰相이 같은  
 동네에서 젊어서부터 사귀어, 매양 그의  
 장수될 만한 人材임을 칭하했었다』고 적  
 혀 있어, 서로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것  
 을 알 수 있는데 西厓의 집이 墨寺洞에  
 있었던 모양이요, 墨寺洞은 지금의 筆洞  
 2,3街 지대였던 만큼, 乾川洞이 墨寺洞  
 과 서로 연결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서도  
 忠武公의 탄생지를 지금의 仁峴洞 1街  
 부근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  
 는 것이다.

忠武公이 나신 仁宗 원년, 서기 1545  
 년을 표준으로 하고, 다시금 그 때의 역  
 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본시  
 李氏 王朝 開國과 아울러 문학을 숭상함

으로써 國是를 삼은 이래 1세기가 지나  
는 동안에 학자들 사이에 저절로 과별이  
생기더니 燕山 때를 만나서는 간첩한 무  
리들이 일어나 전대의 학자, 估畢齋 金  
宗直의 門人들을 말살하니 그것이 이른  
바 戊午사화로써 燕山 4년(西紀 1458년)  
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朝廷의 신하들과 선비들 사  
이에 오가던 악화된 공기는 마침내 6년  
뒤에 또 한 번의 참극을 연출하니 그것  
이 甲子士禍로서, 연산 10년(서기 1504  
년)의 일이었다.

그 뒤 燕山을 물리치고 中宗이 位에  
올라, 그 동안의 暗黑政治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도리어 그 14년(西紀 1519년)  
에 靜菴 趙光祖 등이 몰락할 당하니 그  
것이 이른바 己卯士禍이었다.

이같이 거듭되는 士禍는 음모의 정쟁  
을 더욱 더 심하게 할 따름인데다가 그  
위에 外威의 2중 투쟁이 겹친 속에서 中  
宗의 뒤를 이은 이가 仁宗인데 在位 8개  
월만에 他界하고 12세의 明宗이 들어선  
뒤에 의적인 大尹과 小尹 사이에 관련된  
殺戮이 대규모로 벌어진 것이 이른바 乙  
巳士禍요, 그 해가 바로 忠武公이 나신  
해다. 이같이 피로써 물들인 네 번의 사  
화가 忠武公 탄생 이전 반 세기 동안의  
역사적 배경이었던 것이다.

高麗 中郎將 敦守로써 始祖를 삼은 德  
水 李氏 종중에서는 忠武公과 栗谷과 澤  
堂 李植 등 몇 집안을 명문으로 치거니

와 忠武公과 栗谷은 이미 제4대 조상 때  
부터 나뉘어 忠武公은 제12대요, 栗谷은  
제13대라, 두 분이 촌수로는 19촌 叔姪  
항이 되며, 栗谷과 澤堂은 栗谷의 曾祖  
父 때로부터 서로 나뉘어, 澤堂은 제15  
대라 忠武公은 澤堂의 먼촌 曾祖별이  
된다.

忠武公의 字가 汝諧인 것에는 이상하  
게도 풀이되는 점이 없지 않다. 이름이  
舜臣, 舜임금의 신하, 舜임금이 여러 신  
하들 가운데서 禹를 지적하여,

『오직 너(汝)라야 화평(諧)케 하라  
라.』(書經)했었다. 汝諧는 실로 거기서  
나온 문자요, 또 바로 그 문자대로 오작  
忠武公이 계셔서 비로소 세상을 바로잡  
았던 것이니 이렇게 보면 이름 글자가  
심상치 않은 豫言을 하기도 하는 모양이  
다. 忠武公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본  
시 혁혁한 家門일 뿐 아니라 일찍 조상때  
로부터 忠誠과 剛直과 공명정대한 것을  
승상해 왔고 또 그것으로써 전통적인 家  
風을 삼아 왔으며 그래서 마침내 忠武公  
과 같은 불세출의 위대한 인물을 낳아  
놓았던 것이다.

忠武公의 증조부 瑤는 일찍이 成宗 때  
東宮(연산군)의 講官으로 있었고, 또 成  
宗, 燕山 두 대에 걸쳐 臺官으로도 있었  
는데, 그의 不正不義에 대한 彈劾이 어  
떻게나 끈고 엄정했던지 『호랑이 장령』  
(虎掌令)이란 이름을 얻기까지 했던 것  
이다.

그리고 공의 조부되는 百祿은 당시의 깨끗한 선비로서, 趙靜菴의 己卯士禍에 걸려 큰 고난을 겪었고 그래서 아버지 貞은 스스로 결심한 바 있어 벼슬길에 뜻을 두지 않고 평민(白頭)으로 지냈기 때문에 필경 가난한 집안이 되었던 것이다.

忠武公의 할머님도 草溪 卞氏이거니와 어머니도 草溪 卞氏로서 守琳의 따님인데 그의 친정이 牙山고을 白岩里(지금 顯忠祠가 있는 뱀발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忠武公의 집안이 가난하여 서울생활이 어려워지자, 집을 그 곳으로 옮기게 된 것이 그대로 그의 고향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忠武公의 조카 李芬(말형 義臣의 둘째 아들)이 지은 <忠武公行錄>에 의하면 공은 어릴적에 못아이들과 더불어 유희하면서도 매양 전쟁하는 놀이를 즐겼고 그럴 적마다 아이들은 그를 대장으로 올려 세우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활과 화살을 차고 다니며 마을 안에서 비록 나이 많은 어른들이라도 의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이가 있으면 곧 화살을 뽑으려 했기 때문에 마을 어른들도 그를 무섭게 여기더라는 것이니 그만큼 그는 나면서부터 호매한 기상을 타고 났었다.

그러나 공부할 나이에 이르러서는 義臣·堯臣 두 형과 함께 儒學을 배웠다. 그 때에도 재주가 뛰어나서 두 형을 무

색케 했다 한다.

그만큼 그의 재주와 실력은 文學으로도 능히 성공을 기약할 수 있었지만 그는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한 바 있어 22세 되던 해 겨울에 단연히 책과 붓을 던지고 일어나 武藝를 배우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뒷날 柳成龍이 忠武公을 『장수될 재질을 가진 이』라 하여 조정에 추천했던 것을 보면 두 분이 같은 동네에서 소년 때부터 사귀기를 했겠지만 그보다는 忠武公이 武藝를 닦기 시작한 20대 이후에 더욱 더 그를 알아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그리고 忠武公은 무엇보다 武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膂力(여력=완력)조차도 보통사람이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 2. 青年時節

忠武公이 이미 青年 시절에 붓을 던지고 무인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 참으로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개인으로도 그것이 그의 일생의 방향을 확정 짓는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거니와 그보다도 나라로 보아서 만일 그가 文에서 武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누가 능히 무너지는 歷史를 바로 볼 수 있었을 것이며 또 설사 忠武公인들 무슨 힘으로 救國濟民할 도리가 있었을 것이라. 과연 하늘이 시킨 일이요, 백천 번이나 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國初 이후로 文을 숭상하고 武를 경멸히 여겼던 것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서 忠武공이 굳이 그 武人의 길을 택했던 것인가.

그는 분명히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았던 것이다. 사나이로서 녹록하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닌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택한 길이었다. 하나의 무서운 각오를 가졌던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忠武공이 22세에 武藝를 배우기 시작했고 28세 되던 해에 訓練院別科시험에서 말을 달리다가 말이 거꾸러지며 같이 넘어져 왼편 다리가 부러졌지만 한 발로 일어나 마당가에 있는 벼들가지를 꺾어 상처를 싸매고 나오던 장쾌 무쌍한 모습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거리와 그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나 32세 되던 해 봄에 정례적인 式年武科의 武經講讀시험에서 漢高祖 때의 功臣 張良에게 兵書를 전수한 黃石公의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 이르러 시험관이 문득,

『張良이 신선 赤松子를 좇아 놀았다 했으나 張良이 과연 죽지 않았겠는가?』 하고 물었을 때 공은 조금도 서슴치 않고 즉석에서 대답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법이기도 하거니와, 또 綱目에 壬子 6년에 張良이 卒했다 했으니 어찌 신선을 따라가 죽지 않았을 리가 있겠소.』하여 시험

관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다.

### 3. 첫 벼슬

忠武공은 이같이 武科에 及第를 하고도 권세의 문을 두드리지 아니해서 해가 다 가도록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다가 그해 선달에 가서야 겨우 微官末職인 從九品 權管, 지금의 下士官자리 하나 얻어간 것이 그나마도 멀리 북쪽으로 威鏡道 三水고을 童仇非堡이었는데, 三水야 말로 옛날 제도에 死刑 다음가는 일등 귀양곳으로서 濟州島를 오히려 이등으로 치던 그러한僻地였다. 원래 三水란 곳은 두메산골로서, 세 강이 합류되는 곳이라 하여 三江이란 이름으로도 부르던 곳이다.

忠武공은 여기서 3년의 만기를 채우고 서울 훈련원 奉事(사무관)로 전근되어 왔었거니와 이것이 忠武공과 威鏡道 지방과의 첫 인연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 훈련원 奉事로 8개월을 지내고 그 해 35세 겨울에 忠淸兵使의 軍官이 되어 갔는데 그 때의 忠淸道 兵營은 海美에 있었다. 충무공이 이 곳 병영에서 복무하는 동안 그가 거처하는 방에는 옷과 이부자리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리고 혹시 고향으로 근친가는 일이 있을 적에 타 가지고 갔던 양식이 남으면 반드시 양식 말은 이에게 그 남은 것을 도로 돌려주었던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淸白의 대표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 4. 鉢浦萬戶時代

忠武公은 忠淸兵使 軍관으로 아홉달 동안 海美에 머물렀다가 36세 되던 해 가을 7월 鉢浦萬戶가 되어 갔다.

鉢浦는 高興읍에서 남쪽으로 40리쯤 떨어져 있는 道化面內鉢里의 이름이다. 忠武公이 그곳 萬戶가 되어 가 기거하던 萬戶營 객사 자리는 마을 뒤 밭 언덕 위 620번지, 현재 「예수」교 교회가 서 있는 곳이다.

이 때의 이야기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

忠武公의 직속 상관인 全羅左水使 成鏞이 사람을 鉢浦로 보내어 객사 앞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다가 거문고를 만드려 하므로, 忠武公은 심부름꾼을 호령하며,

『이것은 나라의 물건이라 사사로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심은지 오래된 나무인데, 하루 아침에 베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나?』

하고 그냥 돌려 보내었으나, 상관인 水使도 그 공정한 항의 앞에는 꾀잡할 수 없었던 것이다.

忠武公이 36세이던 庚辰年 가을 7월 全羅道 監司 孫軾이란 이가 순시차로 綾城(지금 綾州)에 이르러 鉢浦에 있는 忠武公을 잡자기 불러 올렸다.

어디서 누구의 말을 듣고 오해한 것인지는 모르나, 어떤 선입견에서 미리 벌

줄 계획을 가지고 불렀던 것이므로 여간 괴롭게 굴지 않았다. 그러나 어려운 兵書를 講解하도록 해도 忠武公은 막힘이 없이 설명하는 것이요, 또 陣치는 圖型을 그리라 해도 忠武公은 너무나 精細하게 그려내는 데에는 孫監司도 과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문득 그는 자기도 몰래 忠武公의 손목을 덥석 붙들고서,

『내가 잘 못 알았소. 일찌기 그대를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소,』 했었다. 그러고는 뒷날에까지 그는 언제나 忠武公을 높이 대접했던 것이다.

#### 5. 두번째 威鏡道로 가다

成鏞의 후임으로 있던 全羅左水使 李獻이 威鏡道 南兵使가 되었다. 그는 어떤 오해였었던지, 지난날 忠武公이 鉢浦 萬戶로 있을 적에 죄를 덮어씌우려고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 뒤에 그는 차차 忠武公의 人格을 바로 알게 되었다. 그럴수록 지난날 忠武公에게 죄스런 일을 했던 것을 깊이 뉘우쳤다. 그래서 조정에 특청하여 忠武公으로서 자기의 軍官을 삼으니, 忠武公 39세 7월이었고, 이것이 忠武公이 威鏡道로 나간 두번째 걸음이었다.

忠武公은 그 해 10월에 慶源고을 읍에서 40리쯤에 있는 乾源堡 權管으로 진군되었다. 慶源 고을은 우리 나라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고을로서 東北쪽에는 豆

滿江을 건너 滿洲의 琿春縣이요, 고을 안에는 威鏡山脈 중에서도 甌山이니, 松眞山이니 하는 1,000미터 이상되는 산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다만 豆滿江 支流의 연안에만 풀밭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때 忠武公의 부친 貞(뒤에 補祚功臣 左議政 德淵府院君으로 증직함)이 牙山에서 73세로 세상을 떠나니 忠武公 나이 39세 11월 15일이었다.

그리하여 忠武公이 상중에 거하는 동안 북쪽 오랑캐들의 준동은 말할 수 없이 잦았다. 그놈들을 내어쫓거나 물살을 시키자면 역시 忠武公 밖에는 없다는 것이 조정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래서 충무공을 찾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겨우 小喪이 지나자 3년상이 언제냐고 거듭 묻는 동안에 어느덧 상을 벗고 42세 1월이 되었다.

脫喪을 하자마자 궁중의 수레와 말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司僕寺 主簿(從六品 벼슬)가 되고, 행공한지 겨우 16일만에 威鏡道 慶興 고을 造山堡 萬戶로 임명되어 가니 이것이 忠武公이 42세 1월에 세번째 威鏡道로 간 것이었다.

## 6. 井邑縣監時代

忠武公은 세번째 威鏡道로 나가 만 2년 6개월 동안에 온갖 쓰라린 고비를 다 겪고 44세 되던 해 윤 6월에 威鏡道에서 마지막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全書行錄〉에는 바로 이 때 조정에서

次序를 밟지 않고 기용할 만한 유능한 무사들을 뽑아 천거하는 중에 忠武公의 이름이 두번째로 들어 있었지만 필경 임명되지는 아니했다고 적혀 있다.

忠武公같이 쓸 만한 인재가 기용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던 사람중에 李洸이란 이가 있었다. 그는 子가 士武요, 號는 雨溪요, 특히 忠武公과 本貫이 같은 德水사람으로서 澤堂 李植의 막내 조부가 되는 분이요, 충무공보다는 4세가 위다.

그가 全羅道 감사로서 조정에 특청하여 忠武公을 자기의 군관 겸 全羅道 助防將을 삼았었다. 그래서 全羅道로 내려간 忠武公이 마침 順天에 이르렀더니 順天府使 權俊이 어디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와서,

『여기가 참 좋은 고을인데, 그래 당신이 나를 대신할 수 있겠소?』

하며 자못 교만한 태도로 말을 던지기까지 했으나 공은 다만 빙그레 웃기만 했었다.

그렇게 오만하던 順天府使 權俊이 뒷날 忠武公이 三道水軍統制使가 되었을 때는 도리어 그의 지휘 아래서 충심으로 받들었던 것이니 그것은 다만 직제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감복했기 때문이었다.

忠武公은 그 해(45세) 12월에 井邑縣監이 되었다.

『공은 조정에서 밀고 당기는 이가 없

어 과거에 급제한지 10년이 넘도록 승진하지 못했다.』

이것은 忠武公을 너무도 잘 아는 西厓 柳成龍이 그의 《愾愾錄》에 忠武公을 위해서 탄식했던 말이다. 과연 忠武公이 이같이 손바닥 만한 작은 고을의 수령 자리 하나 얻은 것도 급제한지 실로 14년 만이었던 것이다.

忠武公은 이 곳에 부임하면서 늙으신 어머님(75세)과 함께 어버이 없는 어린 조카들을 같이 데리고 내려 갔었다.

忠武公이 全羅道로 내려와 井邑縣監이 되기 직전인 10월에 나라 안에서는 큰 獄事가 일어났으니 이른바 鄭汝立의 逆謀 사건이다.

옛날 威鏡道에서부터 忠武公을 이해해 주고 또 추천도 했던 懶菴 鄭彥信이 右議政으로 있다가, 鄭汝立과의 9寸 킨척이요, 또 서로 연관이 있다 하여 罷職을 당하고 후임으로 올라선 松江의 손에서 訊問을 당한 뒤, 마침내 그 해 12월 4일에 南海로 귀양을 가니 때는 忠武公이 井邑縣監으로 부임한 직후였다.

그러나 다음 해 7월 6일에 鄭彥信이 南海로부터 서울로 끌려 올라왔다가 다시 甲山으로 귀양 가 거기서 그 해를 넘긴 다음 해 10월에 甲山 귀양 곳에서 죽으니 65세이었다. 바로 그 鄭彥信이 甲山으로 귀양가기 직전, 옥에 갇혀 있을 때다. 마침 忠武公이 井邑縣監으로서 全羅감사의 差使員이 되어 상경했던 길에

지난날의 의리를 생각하고 義禁府의 옥문밖에까지 가서 그의 안부를 물었다.

그 때 마침 金吾郎(의금부의 관리)들이 사무보는 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떠드는 것이었다. 忠武公은 의분을 참을 길이 없어,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막론하고 일국의 大臣이 옥 중에 계신데 이같이 무엄하게 논대서야 미안하지 않소?』 하고 말했다. 金吾郎들도 忠武公의 한마디 말에 얼굴이 숙연해지며 모두들 부끄러워했으니 그것은 그의 정당한 기운에 눌려서였던 것이다.

그 때 鄭汝立 관계의 연루자가 날마다 옥에서 죽어가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옥문 앞에까지 가서 능히 죄수에게 문안을 하고 또 金吾郎들의 무례한 짓을 꾸짖기까지 했다는 것은 忠武公의 엄정한 인격을 증거해 보이는 좋은 자료가 아닐 수 없다.

## 7. 全羅左水使時代

忠武公이 井邑縣監으로 있은지 8개월쯤 지난 46세 庚寅 7월에 平安北道 江界都護府 관내의 高沙里鎭僉使로 임명되었다가, 臺諫들이 守令遷動的의 법규로써 반대하여 도로 중지되었고 그 다음 달인 8월에도 또 다시 平北 江界 관내의 滿浦鎭僉使로 임명되었다가 역시 臺諫들의 같은 반대에 부닥쳤던 것이다. 그 해가 지나 47세 辛卯년 2월에 珍島郡守로 발

령, 그러나 미처 부임도 하기 전에 加里浦(지금 莞島)僉使로 전임발령, 그 또한 부임하기도 전에 그 달 13일에 비로소 全羅左水使로 임명되어 내려갔다.

이 때는 실로 壬辰亂이 일어나기 전년 이어서 倭와의 관계가 점점 긴박해오기 때문에 위에서 備邊司에 명령하여 장수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던 것이니 柳成龍은 그의 <懲惡錄>에 그 때의 경위를 이렇게 적었다.

『倭가 군사를 동원한다는 소식이 날로 급해지자 위에서 備邊司에 명하여 제각기 장수될 만한 인재를 천거하라 하므로 내가 舜臣을 천거하여 井邑縣監에서 全羅左水使(正三品)로 승격시켰는데, 그 갑작스런 승진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쨌든 그 때 柳成龍이 忠武公을 추천하여 全羅左水使가 되게 했던 그 출발점 하나가 마침내 壬辰亂을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바로 잡은 눈부신 결과를 가져왔던 것임을 생각하면, 柳成龍의 공로를 절대적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麗水에 左水營이 생긴 것은 忠武公이 부임하기 이전 전작 1백11년 전부터 설치되었다. 다만, 忠武公이 이곳에 부임한 이후 그야말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또 실상 그로부터 모든 체제와 내용이 충실해졌기 때문에 忠武公 이전 1세기 동안의 左水營 역사는 희미해지고

忠武公으로부터 헤아리게 된 것일 따름이다.

忠武公이 이곳에 부임하여 앞날에 큰 災難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左水營의 本營은 물론이요, 자기 관할 아래 있는 順天, 寶城, 光陽, 興陽, 蛇渡, 防踏, 呂島, 鹿島, 鉢浦, 樂安 등 5官5浦를 살살이 순시하며, 군인을 사열하고, 군기를 점검하는 등 물샷틈 없는 준비를 정성껏 했던 것이다.

더우기 鐘鼓山 北峰에는 煙臺(신호대)를 쌓고 栗村先生院에서는 큰 돌을 실어다가 구멍을 뚫어 쇠사슬을 박아 알바다에 가로 건너 놓기도 했거니와 그 일들에 정성을 다했던 군관 李鳳壽, 군관 李元龍 등의 밤과 노력이야 말로 忠武公을 감탄케 했던 것이다.

가만히 헤아려 보면 歷史의 神은 이따금 깃곳은 경쟁을 붙여 보기도 하는가 보다.

壬辰亂 때 陸戰에서는 倭賊들이 鳥銃이란 새 무기를 가지고 승승장구한 대신 海戰에서는 우리 水軍이 거북선이란 신기한 배를 가지고 倭賊들을 여지없이 무찔렀던 것이다.

그 날에 만일 우리에게 이 거북선이 없었다면 아무리 위대한 忠武公인들 또한 반드시 이기지 못했을는지도 모를 일인데 하느님은 깃곳게도 壬辰亂이 먼저 일어나 거북선을 먼저 만드나 하고 서로 경주를 시켜 본 느낌조차 없지 않다.

宣祖 25년(西紀 1592년) 4월 13일 倭賊들이 釜山港을 쳐들어 온 것으로부터 壬辰亂이 시작된 것인데,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忠武公은 바로 그 전년 2월에 全羅左水使로 부임하여 1년 동안을 두고 전심 전력한 나머지 마침내 아슬아슬하게도 전쟁 직전에 거북선을 완성시켰던 것이다.

## 8. 壬辰亂의 性格

忠武公은 左水營에 부임한 이래 장차 앞날에 닥쳐 올 倭亂에 대비하여 낮과 밤을 이어서 온갖 일에 정성을 기울였었다. 壬辰亂이란 결코 단순히 보아버릴 전쟁은 아닌 것이다.

첫째, 그 성격이 近代戰에 속하는 전쟁이었고, 둘째, 東洋 3국의 병력 동원이 수백만에 달했으며, 셋째, 7년간이나 걸렸던 長期戰爭이었고, 넷째, 생명, 재산의 손실이 헤아릴 수 없이 막대했으며, 다섯째, 그 영향이 東洋全體의 政治史 내지 文化史에 자못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미쳤던 것이 壬辰亂이었던 것이다.

이 때 日本 국내에 있어서는 織田信長이란 傑物이 나타나 서기 1573(宣祖 6年, 日本 天正 1년)에 足利氏(義昭)의 몰락과 함께 將軍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 때 거기에 또 하나의 결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壬辰亂의 元兇 豊臣秀吉이었다.

그는 서기 1536년(丙申, 우리 中宗 31

년, 日本 天文 5년)에 尾張國愛知郡에서 나니 우리 忠武公보다는 9년 앞섰고 栗谷과는 같은 해에 났다.

무릇 8년에 걸쳐 日本 국내를 통일하게 된 秀吉은 지나치게도 그의 교만한 기세를 그대로 발휘하여 大陸 침략에의 무모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그들은 진작부터 음험한 계획 아래 사신을 보내어 우리의 정형을 세밀히 偵探하기 시작했던 것이니 그 중에서도 우리의 깊은 주의를 끄는 자는 僧侶 玄蘇였다.

진작 明宗 때의 倭寇침략으로 우리와 日本과의 사이에는 이미 정식 國交가 끊어져 있었고, 다만 日本의 서해안에 있는 諸侯들만이 특수한 관계 밑에서 무역을 계속하며 사신을 보내 왔으며 또 그들의 사신이면 으레 승려가 그 일무를 담당했던 까닭은 당시 日本에서는 학문과 지식의 소유자를 찾으려면 승려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었던 때문이었다.

日本으로부터 몇 차례나 사신이 와서 우리 通信使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자 마침내 우리 조정에서도 최후의 결정을 보게 된 것은 玄蘇가 세번째 와서 청하던 宣祖 22년(壬辰亂이 일어나기 3년전) 9월 21일이었다.

通信使 黃允吉, 副使 金誠一, 書狀官 許晟과 車天格, 武官 黃進 등 일행이 日本國師 玄蘇, 宗義智 등과 함께 서울을 출발한 것은 그 이듬해 23년 3월 6일이었고 釜山을 떠난 것은 4월 29일. 對馬



島에서 1개월간 체류, 日本 京都에 도착한 것은 7월 22일 秀吉의 聚樂第에서 秀吉과 만나본 것은 11월 7일이었다.

그 때 秀吉의 태도는 극히 거만했으며 그의 얼굴은 검고 키는 작아 남보다 다른 점이라고는 안 보였는데 다만 눈이 약간 빛나는 것 같았다는 것이 <懃懃錄>의 기록이다.

그들 사신 일행이 돌아온 釜山에 도착한 것은 그 이듬해 24년(壬辰亂이 일어나기 전년) 1월 28일이었다.

때는 바로 忠武公이 左水使로 부임하기 전 달이었으며, 그들이 宣祖의 어전에서 서로 어긋나는 복명을 했던 것은 다음 달 3월의 일이었다.

黃은 日本의 出兵이 있을 것이라 하고 金은 그렇지 않다 했으며, 黃은 秀吉의 눈이 빛나고 담락이 있어 보이더라 했는데, 金은 그 눈이 쥐와 같아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 하여 서로 반대의 보고를 했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다만 그 까닭에 대해서 黃은 西人이라 東西黨爭의 소치로 그같이 서로 반대되는 말을 했던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歷史評論家의 일반적인 통설이지만 그것을 덮어 놓고 당쟁에만 결부시키기 보다는 개인의 성격차이 등, 좀 더 달리 생각해 볼 점도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그것을 논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때문에 국가의 國防政策 수립에 근본적인 방향착오를 가져와서, 필경 민

족 전체로 하여금 큰 화난을 만나게 했던 결과에 있어서만은 千秋에 그 허물을 씻지 못할 것만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壬辰亂이 동양 3국에 전면적인 관계를 가졌던 전쟁이었던만큼 그 당시 우리와 明나라의 관계를 잠깐 살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 같다.

秀吉의 야망이 明을 치려고 했던 것만은 물론이었으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明을 칠 수가 없는 반면, 만일 우리가 무너지기만 하면 그대로 내친 걸음에 明의 대륙을 삼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壬辰亂이 일어나기 직전 明나라는 이미 건국 2세기를 넘은 때라 文物의 황금시대는 지나가고 바야흐로 쇠퇴의 삭이 움트기 시작했던 참이었다. 더우기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걱정거리였던 것은 역시 『倭寇』였던 것이다.

또 우리가 받은 秀吉의 國書에 日本이 明나라를 치겠다는 말이 적혀 있는 이상 우리로서는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또 우물쭈물 숨겨버릴 수도 없었다.

또 그때의 사정으로 우리와 明나라는 日本에 대하여 같은 방략을 세우고 연합전선을 펴지 않을 수 없었던만큼 우리 조정에서는 秀吉의 國書 내용을 明에 알리는 문제가 토론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宣祖 24년(壬辰亂 前年) 5월 聖節使 金應南, 書狀官 黃致敬을 보내어 明의 조정에 秀吉의 소식을 전달했던 것이다.

이때 우리 사신이 가서 전달해 준 것만이 아니라 明나라 사람 저희들도 이미 본국 정부에 비밀히 보고해 준 사람들이 있기도 했다.

民族의 歷史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넣은 李氏 王朝 시대의 『黨爭』이란 것은 宣祖 8년(西紀 1575년)에 시작된 일이다. 忠武공이 31세 때 그가 과거에 급제하기 바로 전년이었고 壬辰亂이 일어나기 17년 전이었다.

東西의 黨論이 일어난지 10년만인 宣祖 17년 정월에 栗谷이 세상을 떠나자 다시는 黨論을 조절할 사람조차 없어졌고 그러는 사이에 東人들 저희끼리 또 나뉘어 南北으로 갈라지더니 마침내 그것이 壬辰亂 전년에 이르러 표면화되고

말았다.

이 때 日本은 국내의 통일을 완성하고 그대로 國力을 집결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반면 우리는 李朝 創業 2백년에 전진하던 기운은 다 없어지고 폐정, 공론, 당쟁, 안일 등으로 國力은 쇠퇴할 대로 쇠퇴해졌을 뿐더러 거기 따라 민간에서는 類廢風潮가 걸잡을 길 없이 만연되어 갔었다.

요컨대 그 때의 특권층은 학문과 사상으로는 事大에 기울어졌고, 정치 행동으로는 당파의 분열과 私利私慾에 눈이 어두웠었다.

그래서 國防준비라고는 거의 허허벌판 그대로 내버려 둔 셈이요, 산업과 경제의 전면적인 퇴폐로 民生은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국민들은 정부와 상류층 지도자들에게 대한 불신임으로 가득차 있었다.

### ◎ 狀況判斷 ◎

가장 중요한 것은 혼란이 계속된 전투상황하에서 狀況을 판단하는 일이다. 즉 많은 정보 중에서 확실한 정보를 착오없이 판별하며 신속히 결심하고 주저함이 없이 용감히 실행하는데 있다.

特別連載

統一問題

①



북괴의 도발 실태



◇… 이 난은 국토통일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  
 ◇…과 사회의 공론(公論)을 정리, 체계화하고 이…◇  
 ◇…를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엮은 국토통일원 발…◇  
 ◇…행 “통일문답”의 수록내용을 장병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이해시키도록 마련…◇  
 ◇…한 것이다. 제 1부에서는 통일에 관한 이념과…◇  
 ◇…가치의 문제, 제 2부에서는 정부의 통일정책, …◇  
 ◇…제 3부에서는 통일에 관한 김일성 정권의 입장…◇  
 ◇…순으로 엮어 총 25개의 문제를 7회에 걸쳐 물…◇  
 ◇…어 나간다. …◇  
 ◇… 먼저 걸으려는 평화통일을 말하며 속으로는…◇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북괴의 1945년 이래…◇  
 ◇…1978년까지의 실제 행동을 사건발생의 시기순…◇  
 ◇…으로 밝혀 결과 속이 다른 그들의 행위를 상기…◇  
 ◇…시키교자 한다. …◇

편  
집  
실

1945. 10. 10.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을  
설치.  
 12. 28. 박헌영 등 좌익진영, 반탁  
선언.  
 1946. 1. 2. 공산당, 신탁 지지 선언.  
 2. 25. 좌익진영, 「민주주의민족전  
선」결성.  
 3. 5. 토지개혁 실시(이북동포 남  
하시작, 1950. 6. 25. 까지 약  
500만명)

1946. 5. 15. 경관사위케사건 (45. 10~46. 2. 조선공산당의 정치자금 조달과 경제교란 목적)진상 발표.
8. 10. 이북, 주요산업의 국유화 실시.
8. 28. 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동으로 북조선로동당 창건.
10. 1. 10·1 대구폭동 사건(공산계열의 조직적인 파괴행동)
11. 23. 남조선 로동당 결성.
1948. 4. 3. 제주도서 공산분자 무장폭동.
5. 14. 남한승진 단절, 6월 예성강의 남쪽 물줄기 끊어 막음.
10. 20. 여수, 순천반란사건(남로당 지령하에 40여명의 병사가 반란을 일으켜 주민 1,200여명 학살)
1949. 5. 20. 국회투락치사건 적발(김약수 부의장 등 의원 13명 구속)
6. 25. 북괴, 남북의 「민전」(民戰)을 통합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
- 6월말 남·북 로동당을 합당, 조선로동당으로 발족.
1950. 3. 27. 남로당 총책 김상용, 이주하 검거, 6월 16일 북괴는 김·이와 조만식의 교환을 제의, 아축 교환조건 거부, 10월 조만식 처형.
6. 7. 북괴, 남북총선거 제의.
6. 19. 북괴, 남한의 국회와 북괴 최고인민회의를 무조건 합칠 것을 제의.
6. 25. 6·25불법남침(6·7과 6·19 양차에 걸친 “평화제의”와 역행)
12. 10. 이북동포 50만 남하피난.
1953. 6. 18. 반공포로 석방(27,000명)
7. 27. 휴전협정 조인.
1954. 8. 1. 비무장지대서 북괴군, 미군 2명 살해.
1955. 5. 10. 조기잡이 어선, 피격, 1척 침몰, 4척 실종.
1956. 11. 7. 서해상공서 아군기 2대 피격.
1957. 5. 16. 연평도에서 한국어선 피납.
1958. 2. 16. KNA기 남북(3월 6일 탑승자 36명중 10명 미귀환)
4. 24. 연평도에서 어선 1척 피납.
11. 18. 경기, 제주도 근해에서 간첩선과 총격전, 장봉준 경위 피납.
12. 6. 동해에서 어선 7척(어부 42명) 납북.
1959. 7. 27. 해군, 북괴무장선 1척 격침
9. 5. 휴전선 부근에 무적간첩 출

- 현, 나뭇군 임상준 살해.
11. 26. 서해안에서 간첩선 격침, 공작원 4명 생포.
1960. 4. 30. 동해안에 무장간첩 출현, 2명 사살, 2명 생포.
7. 30. 동해에서 북괴 어뢰정 격침, 북괴 수병 3명 생포.
8. 24. 연평도 서남방 해상에 무장간첩선 격침.
1961. 4. 7. 동해에서 어선 6척 납북.
4. 21. 군산근방에서 「세이버」기, MIG기 3대로부터 피습.
1962. 11. 23. 비무장지대에서 미군 2명 피살.
12. 23. 연평도 근해에서 북괴함정 침입, 아군 6명 사상.
1963. 5. 17. 「유엔」군 「헬리콥터」 북괴에 피납.
11. 13. 휴전선에서 「유엔」군 피격, 1명 사망, 2명 중상.
1964. 1. 14. 한국공군 「제트」기, 서부 휴전선 상공에서 북괴 대공포화에 추락, 17일 조종사 박대위 유해 인수.
1. 25. 판문점 관광객 최진영 피납
3. 20. 백령도 근해에서 어선 2척 피납.
1965. 3. 5. 삼척해안으로 상륙하려던 무장간첩을 체포.
4. 26. 연평도 근해에서 어선 「계 6 대영호」 납북.
8. 22. 외설악에서 무장간첩 5명, 민간인 4명 살해.
9. 27. 안동에 무장간첩 출현, 2명 살해, 2명 납치.
10. 29. 강화도 앞바다에서 북괴함정 습격으로 어부 109명 피납.
1966. 8. 2. 강원도 명주군에 무장간첩 3명이 출현, 1명 사살, 2명 도주.
11. 2. 북괴군 비무장지대에서 수류탄공격, 미군 등 7명 피살.
11. 29. 북괴함정 4척, 동해에서 명태잡이 어선단을 포격, 1척(8명)을 납치
1967. 1. 9. 동해 휴전선 근해에서 어선 보호중이던 해군함정 「당포호」 북괴 지상포대 포격으로 침몰.
3. 15.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명남 순안에 방송국을 두고 남한의 지하방송으로 위장, 북한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흑색방송) 시작 (1970. 4. 30. 까지 계속)
4. 13. 화천북방에 60~90명의 북괴군 침입, 3명 사살.
4. 16. 순위도 근해에 간첩선 출현

- 9명 사살, 6명 도주.
7. 5. 동부전선 전방초소에 북괴  
군 20여명 내습, 아군 7명  
전사, 11명 부상.
7. 8. 중앙정보부, 동백림거점 북  
괴대남공작단 사진 발표.
8. 10.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괴병이 미군 「트럭」기습  
공격, 아측 전사 3명, 중경  
상 17명.
9. 5. 경기 포천군에서 무장간첩  
이 경원선 폭파.
9. 13. 경기 파주군에서 무장간첩  
이 미군 화물열차 폭파.
11. 3. 북괴무장선, 동해에서 어선  
2백척 기습 공격, 10척(60  
명) 남북.
12. 5. 동해에서 북괴군 총격으로  
어부 공우영씨 등 6명 사  
망, 8명 중상.
1968. 1. 21. 무장공비 31명, 청와대 습  
격교자 서울 청운동까지 침  
입.
1. 23. 미해군 정보수집함 「프예블  
로」호, 동해 공해상에서 피  
납.
4. 14. 북괴군, 판문점 남쪽에서  
「유엔」군 「트럭」기습, 「카  
투사」 등 6명 사상.
6. 17. 연평도 근해에서 어선 5척  
(어부 44명) 납치.
11. 4. 대간첩대책본부, 1일과 3일  
에 서해안과 동해안의 삼척  
및 울진지구에 100여명의  
무장공비 침투, 공비 11명  
사살 발표.
11. 7. 동해에서 북괴정이 어선 4척  
(어부 34명) 납북.
11. 8. 동해에서 북괴함이 어선 7척  
(어부 52명) 납북.
1969. 4. 14. EC-121 미해군 정찰기, 동  
해에서 북괴기에 의해 피격
6. 12. 흑산도 앞바다에서 무장간  
첩선 나포.
9. 17. 완도 남쪽에서 북괴 간첩선  
의 기습을 받고 경비정 침  
몰, 경찰관 등 7명 사망.
9. 20. 군산 앞 오식도에서 무장간  
첩선 1척 나포, 공비 4명  
사살.
9. 24. 흑산도 북방에서 북괴 중무  
장 간첩선 1척 격침.
12. 11. KAL여객기(승객 47, 승무  
원 4) 납북(12명 미귀환)
1970. 4. 4. 서해 격렬비도 앞바다에서  
북괴 간첩선 격침, 15명 사  
살.
6. 1. 「통일혁명당 목소리」(황해  
해주에 방송국을 두고 남한  
의 지하방송으로 위장, 북



- 한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폭  
색방송) 방송 시작.
6. 4. 연평도 서북방에서 해군함  
정(승무원 20명의 방송선)  
납북.
6. 22. 무장공비, 국립묘지 현충문  
에 폭발물 장치하려다가 실패.  
1명 폭사, 2명 도주.
6. 28. 서해 군자만에서 무장간첩  
선 1척 나포, 간첩 6명 사살.
7. 9. 백령도 부근에서 어선 5척  
(어부 29명) 납북.
7. 28. 동해 휴전선 남방 7마일 해  
상에서 대형간첩선 1척 격  
침.
10. 1.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중무  
장 간첩선 1척 격침, 공비  
10여명 사살.
1971. 1. 6. 서해안 휴전선 남방에서 북  
괴 경비정이 어선에 기관포  
사격, 어선 1척 격침.
5. 14. 목호 동쪽바다에 침투한 무  
장간첩선 격침.
6. 1. 남해 해상에서 무장간첩선  
격침, 우리 공군기 1대도  
추락.
9. 17. 무장공비 김포 민가에 침입  
2명 사살, 2명 도주.
1972. 2. 4. 대청도 서쪽 해상에서 북괴  
함정에 어선 1척 격침, 5척  
피납.
1973. 3. 4. 제주도 동쪽 3.5킬로에 위  
치한 우도에 무장간첩 2~3  
명이 출현, 경비원 1명 살  
해 도주.
4. 17. 연천 서북방 비무장지대에  
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  
하는 무장공비 2명 사살.
5. 5. 완도군 동쪽 33킬로 떨어진  
금당도에 무장간첩 2명 킬  
투.
1974. 2. 15. 백령도 서쪽 48킬로 공해상  
에서 북괴함정이 어선 「수  
원 32호」 등에 함포사격, 33  
호는 침몰, 32호는 납북.
5. 21. 북제주군 추자면에 무장간  
첩 3명 출현, 1명 사살, 2명  
도주.
6. 28. 북괴함정 3척이 어로 보호  
중인 경비정 863호에 공격.
7. 2. 부산 송도 동남쪽 7마일 해  
상에 간첩선 침투, 해군함  
정이 추격 격침.
7. 18. 김포 북쪽 영공을 비행중인  
KAL기에 북괴 대공포 발  
사.
7. 20. 서해 군산 앞 어청도 서쪽에  
간첩선 침투, 해·공군 추  
격으로 격침.

8. 15. 광복절 기념식서 박대통령  
저격 미수,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여사 흉탄 맞아 서거  
범인 문세광 현장에서 체포
11. 15. 북괴, 중서부전선 비무장지  
대 군사분계선 남쪽 1.1킬  
로 지점까지 지하 땅굴 구  
축(7·4 공동성명 직후 글  
작 시작: 귀순자 김부성 증  
언)
12. 5. 북괴무장선 서해(인천서방  
50마일)에서 압약, 해군의  
투항 권고에 자폭.
1975. 2. 15. 강원도 거진동쪽 3마일 해상  
에 무장간첩선이 어선을 가  
장 침범.
2. 26. 백령도 서남쪽 23마일 지점  
에 북괴 선박 10척 침입,  
1척 격침, 9척 도주.
3. 20. 「유엔」군사, 북괴 제2의 땅  
굴이 발견됐다고 판문점 「군  
사정전위」에서 북괴측에 항  
의.
3. 21. 귀순한 김부성과 북괴군 소  
위 유대윤, 북괴땅굴은 대  
남간첩 침투로 및 전면전  
때 대량병력 투입에 쓸 목  
적으로 뚫었다고 폭로.
4. 29. 부산 동래구에 무장간첩 2명  
침투, 모두 생포.
8. 26. 무장공비 2명이 비무장지대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  
김세유 납치.
9. 11. 무장공비 수명이 전북 고창  
군 해변에 출현, 1명 사살.
10. 6.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서쪽  
약 20마일 해상에서 무장간  
첩선 침투, 해·공군 합동  
작전으로 격침.
1976. 4. 7. 북괴 「탱크」 2대, 휴전선  
비무장지대 침범, 4시간 후  
철수.
6. 19. 중동부전선, 아군지역에 3  
인조 무장공비 침투, 모두  
사살.
8. 18. 북괴 경비병 약 30명이 판  
문점 공동 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감독,경  
비하던 「유엔」군측 경비병  
들에게 도끼와 폭쟁이로 미  
군 장교 2명을 살해.
8. 30. 북괴 경비정, 우리 어선  
「제3신진호」와 선원 23명  
납치.
1977. 5. 3. 무장공비, 천원 서북쪽 군  
사분계선에 침투, 아군 1명  
피살.
5. 10. 삼천포 근해에 무장간첩선  
2척 출현, 어선에 총격, 1명  
납치.

7. 14. 미 CH-47형 「헬리콥터」기  
북괴포에 피격.

1978. 4. 28. 대간첩대책본부, 거문도 앞  
바다에서 북괴 무장간첩선  
격침 발표.

10. 27. 「유엔」군사, 판문점 남쪽서

제 3의 남침땅굴 발견 발  
표.

11. 27. 대간첩대책본부, 3인조 무  
장간첩이 충남 홍성, 공주,  
오산지역에 출현하여 주민  
4명을 살해했다고 발표.

### <북한 실화>

#### ◎ 밀회장소가 된 수령연구실 ◎

강원도 금화의 어느 농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동무들과 같이 도덕적으로 부화방탕한 인간쓰레기들에게는 엄중한  
당적 처벌이 내려야 할 것이며, 특히 수령을 모독한 죄는……』

목청을 돋우며 힐책하는 당 위원장은 앞 쪽에 움츠리고 서 있는 두  
남녀를 향해 호통을 치고 있다.

두 남녀는 이 「합부로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이용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또 한쌍의 밀회자들에 의해 발각되었던 것이다.

농장 부기장과 과부가 눈이 맞아 밀회를 하다가 들킨 것이다. 그런  
데 문제는 그 밀회장소가 이른바 「수령연구실」이었다는데 있는 것  
이다.

수령 연구실에는 아무나 합부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돼있으며, 낮에  
출입할 때도 옷깃을 여미고 들어가야 하는 엄숙한 장소로 돼있다.

## 1. 어떤 통일인가

### 1. 우리가 이룩하려고 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통 일의 의미)

가. 우리가 이룩하려고 하는 통일은 현재 남북(南北)으로 갈라져 있는 민족 사회를 실질적으로 하나되게 하는 민족 통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갈라진 국토나 행정구역을 단순히 하나로 묶는 외형상(外形上)의 통일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아무 내왕도 없이 서로 갈라져 살아 온 탓으로, 또 북한 공산당의 계획적인 소위 인간개조(人間改造)라는 세뇌(洗腦) 때문에 이질화(異質化)된 민족사회를 동질화(同質化)시켜 온 겨레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민족을 실질적으로 다시 통합시키는 민족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겨레의 생활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나. 우리는 이같이 민족사회의 실질적 통일, 즉 민족통일을 추구하는 까닭에 통일의 주체(主體)를 우리 민족 전체로 보며 통일의 목표도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같이 염원하는 민족적 보람을 실현하

는 데 두고 있다.

다. 그런데 북의 공산당은 한반도의 공산화에 통일의 목표를 두는 탓으로, 통일의 주체를 실지에 민족전체로 보지 않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무산계급(無產階級)이란 거짓 이름의 동조세력만으로 본다.

라. 북의 공산당도 공산통일(共產統一)을 밀고 나가기 위한 술책상으로는 자주 민족을 내세우지만 근본적으로는 계급을 민족에 앞세우는 까닭에 그들이 공산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대다수가 계급독재(階級獨裁)의 원칙에 따라 완전히 제거되거나 비참한 노예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마. 그러나 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족이지 계급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계급도 민족성원(民族成員) 모두를 대표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민족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 북한 사회에서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아 출신성분이 나쁘거나 사상이 다른 경우에는 가차없이 「반동」으로 낙인 찍어 피의 숙청을 단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민족통일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산 증거가 된다.

## 2. 우리가 통일을 애끊게 바라는 까닭은 무엇인가(통일의 필요성)

가.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겨레가 현실적으로 갖가지 불행을 겪고 있고 또 민족의 활력있는 발전과 세계사에 공헌할 수 있는 조건이 실질적으로 제약(制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 첫째, 우리는 분단에서 오는 고통과 불행을 실제로 겪고 있다. 낫출을 같이 나눈 동포가 서로 만날 수도 없고 편지 한 장 보낼 수 없는 형편이며, 특히 6·25동란 이래 남북이 서로 날카롭게 맞서 있는 관계로 우리는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위험을 안고 있다. 이 같은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민족은 모두 안심하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 둘째, 통일된 민족국가를 세우지 못하고는 세계사의 중심대열에 끼지 못하게 됨은 물론 민족의 앞날을 즐기차게 펼쳐 나갈 수도 없다. 오늘날 세계사는 통일된 단일민족국가의 시대들 이미 넘어서서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다민족국가(多民族國家), 광역경제체제(廣域經濟體制) 등이 새로운 큰 물

결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통일된 민족국가를 하루 속히 이룩하고 이를 더듬돌로 해서 세계의 변두리로서 어정거릴 때가 아니라 세계사의 중심대열에 빨리 끼어 들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뚜렷하게 같은 생활관습, 사고방식, 우리대로 쌓아 온 고유 문화물 오랫동안 이어온 까닭에 이를 잘 살린다면 민족사의 발전은 물론 세계사의 발전에도 모를지키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남보다 앞서 통일민족국가를 세운 민족들이 세계 근대사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우리 민족은 국토분단을 달게 받아야 할 이유도 책임도 없다. 남북분단은 잘 알려진대로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제2차세계대전 후 강대국들 마음대로의 권력정치(權力政治) 때문에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진 것이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을 괴롭힌 일도, 남의 나라 땅을 쳐들어 간 일도 없은 뿐더러 같은 민족이 한 강토에서 둘로 갈라져 살 이유도 없기 때문에, 강대국정치로 희생물로서 초래된 남북분단은 한시라도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마. 한반도의 통일과 안정은 동북아시아에 있어 평화가 뿌리를 깊게,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상(地政學上) 동

북 아시아 평화질서 유지의 중심적 위치에 놓여 있고, 또 한반도 정세변화에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는 유관국가(有關國家)들은 대개가 세계적 강대국들이라는 점을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이 만들어 놓을 안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또한 통일은 우리 민족생활을 경제적으로도 훨씬 윤택하게 만들 실질적 조건이 된다. 5천만 민족이 하나의 경제단위가 되어 주어진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의 나라들과 교역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발전속도는 훨씬 빨라

질 것이다. 또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민족은 중국대륙과 소련의 동부지역으로 연결되는 우리 거래의 역사적 교역권(交易圈)을 되찾게 됨으로써 당당한 세계무대에 진출할 토대를 닦게 될 것이다.

사.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민족은 너무나 없이 조국통일을 갈망하고 있으며 또 통일이 이루어져야 우리 후손들이 무시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으며 세계사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名言註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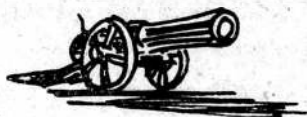
## 愛 國 心

○ 방패를 갖고 출전(出戰)하라. 그리고 방패를 타고 돌아오라.

조국을 위하여 전쟁에 나갈 때 한몸을 지키는 방패를 휴대하고 가 되 살아서 돌아오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즉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을 다하라는 뜻이다. 아들 다섯을 싸움터에 보낸 어머니가 다섯 아들의 전사통지를 갖고 온 使者에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아들의 소식이 아니라 군대의 일입니다」고 하였다고 한다.



# 黎明



79. 崔

아나톨 · 프랑스 作

李 平 宇 譯

쿠루-라-랜의 산책 길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여름날의 무거운 고요함이 세느강의 푸른 언덕과 가지를 다듬어 놓은 해묵은 너도밤나무들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너도밤나무 그들은 동쪽을 향해서, 구름도 바람도 사나와지거나 화창해질 징조가 없는 고요한 창공으로 뻗어가기 시작했다. 튀일리 공원을 나선 산책하는 젊은이가 샤흐 언덕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애티가 가시지 않은 젊은이답게 보기 좋을 정도로 마른 몸매에, 긴 옷저고리와 짧은 바지를 입고 마침내 그 유행이 절정에 이른 부르조아들의 검정빛 긴 양말을 신고 있었다. 한편 그의 얼굴은 열정보다는 몽상의 빛을 나타내고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책장 사이에 낀 손가락은 읽던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으나 더 이상 읽지는 않았

다. 이따금 그는 발길을 멈추고, 파리 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련하나 무서운 웅성거림에 귀를 기울였다. 한숨소리보다도 더 약하게 들려오는 이 소리가운데, 그는 죽음, 증오, 환희, 사랑의 부르짖음과 점호(點呼)의 북소리와 총소리 등, 한 마디로 말하자면 거리거리의 포장길로부터, 어리석은 잔인과 숭고한 열광의 뜨거운 태양을 향해서 혁명이 휘쓸어 올리는 모든 것을 짐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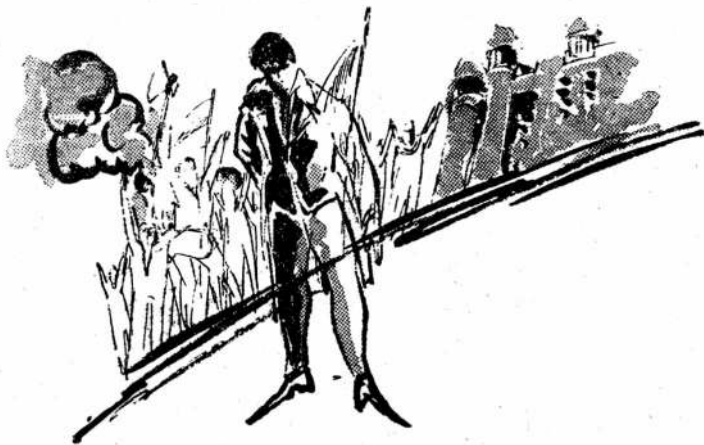
때때로 고개를 돌리고 그는 몹시리웠다. 몇 시간 동안에 그가 알게 되었던 모든 것,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이 그의 머리를 무시무시한 영상으로 꼭 채웠다. 민중들의 손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성벽의 총안(銃眼)을 뿔리운 바스티유 감옥, 광분한 군중 가운데서 권총으로 사살당한 파리 시장, 시청의 현관 계단위에서 참살당한 바스티유 감옥의 사령

관, 높은 로네이 후작.

제정신을 잃고 도취되어, 피와 영광의 꿈 속에 넋이 빠져서 바스티유 광장으로부터 그레브 광장으로 끌려가는, 아귀처럼 창백하고 무서운 평민의 무리. 환상에 사로잡힌 수십만 군중의 머리 위로 가로등에 불매 달린 폐병(廢兵)의 시체들, 청백의 계복을 입은 어느 승리자의 참나무 관(冠)을 얹은 이마, 옛 요새(바스티유 감옥)의 장부, 열쇠, 은식기를 앞에 들고 환호성 가운데 피로 물들인 현관 계단을 올라가는 정부자들, 그들 앞에 발을 피 속에, 머리는 오만한 구름 속에 묻고서 감격, 영광, 놀라움이 엇갈려 있는 민중의 법관, 라·파이에트와 배리! 그런데, 왕궁이 밤에 시내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서, 날뛰는 군중은 아직도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궁전의 철책은 창을 만들기 위해서 뿔뿔히 부기고는 약탈당했다. 시민들은 거리

에 바리케이트를 쌓아 올리고, 여자들은 외적을 암살하기 위해서 포석(鋪石)을 지붕 위에 날라 올리고 있었다.

이렇게 절렬한 광경들이 그의 상상 속에서 우울한 빛을 띠고 반영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가 아끼는 책 한 권, 죽음에 대한 명사록의 영어책을 들고, 세느강을 따라, 쿠루—라—랜 산책 길의 나무 그늘 밑으로 해서, 밤낮으로 그의 생각이 향하고 있는 하얀 집으로 떠났다. 그의 주위에서는 모든 것이 조용했다. 강둑 위에는 발을 물에 잠그고 앉아 있는 낚시꾼들이 보였다. 그는 몽상에 잠기며 강물을 좇아 갔다. 샤이오 언덕의 어귀에 이르러, 파리와 베르사이유간의 연락을 감시하는 순찰대를 만났다. 소총, 구식 화포, 도끼, 창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 부대는, 사이지나 혹은 가족으로 만든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직공들, 검은 옷차림을 하고 있는 대소인(代訴人)



들, 성직자 한 사람, 속 배의 바람에 다리를 들어내 놓고 있는 턱석부리 거인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붙잡았다. 바스티유 사령관과 궁정을 연락하는 첩자들이 붙잡혔다. 기습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산보하는 젊은이는 어리고 펴 순진해 보였다. 그가 미처 몇 마디 하기도 전에 그들은 미소하며 그를 통과시켰다. 꽃이 만발한 말오줌나무 향기가 코를 찌르는 좁은 언덕길을 올라서, 그는 어느 정원의 울타리 앞, 언덕의 가운데에서 발을 멈추었다.

이 정원은 작았으나, 꾸불 꾸불한 정원길과 지면의 굴곡들이 산보 길을 연장해 주고 있었다. 수양버드나무들이,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연못에 가지 끝을 적시고 있었다. 길 모퉁이의 작은 언덕 위에는 간소한 정자가 서 있었고, 집 앞으로는 산뜻한 잔디가 깔려 있었다. 바로 거기, 대충 다들어 만든 벤치에 젊은 여인이 앉아서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생화를 엮은 커다란 밀짚모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하얀 줄무늬와 장미무늬가 진 옷 위로 허리에 묶은 어깨 거리를 띠고 있어서, 약간 높아 보이는 그녀의 허리는 우아함이 넘치는 날씬한 선을 치마 위로 나타내고 있었다. 좁은 소매 속에 꼭 끼어 있는 두 팔은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털실

뭉치들이 가득히 들어 있는 구식형의 바구니가 발 밑에 놓여 있었다. 그녀 옆에 서는 금발머리 술사이로 파란 눈이 깜박이는 어린아이가 손삼을 가지고 모태탑들을 만들고 있었다. 젊은 여인은 마치 매혹된 것처럼 아무 것도 보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울타리 앞에 서서 이렇게도 감미로운 도취경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여인은 고개를 들고 어린애에 가까우리만큼 젊어 보이는 얼굴을 드러냈다. 동그스름하고 청초한 그녀의 얼굴 모습은 부드럽고 정다운 꾸밈새 없는 표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제르맹 씨. 무슨 소식이라도? 무슨 소식이라도 가져오셨나요? 샹송에서 말하듯이 말씀이에요. 난 샹송 밖에 모르니까요.」

「부인의 공상을 깨뜨렸으니 죄송합니다. 진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홀로 꼼짝 않고, 팔꿈치를 짚고 계시는 부인이 저에겐 꿈 속의 천사로 보였어요.」

「홀로! 홀로! 홀로! 사람이 홀로 있을 때가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그녀는 그 말 밖에는 듣지 못했던 것처럼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가 알아 듣지 못하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자 덧붙여 말했다.

「그만들시다. 내가 생각해 본 것에 지

나지 않으니까요……무슨 소식이랄도？」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대사건이 일어난 그날의 일, 정복당한 바스티유, 새로이 확립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소피는 엄숙한 태도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말했다.

「기뻐해야 할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회생에서 온 엄숙한 기쁨이에요. 차후론 프랑스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장차 이 세상을 변혁시킬 혁명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해요.」

이렇게 그녀가 말할 때에, 어린애가 그녀의 무릎 위로 기쁜 듯이 뛰어 들었다.

「보세요, 엄마. 저 아름다운 정원을 보세요.」

그녀는 어린애를 끌어 안으며 말했다.

「네 말이 옳다. 에밀리.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구나!」

「옳은 말씀입니다. 반암(斑岩)과 금을 깬 보도가 녹음이 우거진 정원 안의 산보 길을 당하겠어요?」 제르맹이 덧붙였다.

자기 팔에 의지한 이 젊은 여인을 나무 그늘 밑에서 인도해 가는 행복을 머리 속에 그리고, 의미심장한 시선을 그녀에게 던지며 그는 외쳤다.

「아! 인간들과 혁명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네요! 아네요! 나는, 정의가 지배

하는 시대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민중으로부터 것처럼 내 사명을 유리시킬 순 없어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사회계약설과 복음서를 저에게 터득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어느 날 산보 중에 그 분은 장·자크·루소를 나한테 해설해 주셨어요. 난 어린애에 지나지 않았지만, 인간중의 가장 현명한 이 철학자의 어두운 얼굴을 대했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난 편견(偏見)을 증오하는 가운데 자랐지요. 그 후에, 남편도 나처럼 자연철학을 주장했는데, 우리 아들을 에밀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아들에게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어요. 3년 전에 그이가 배위에서 쓴 마지막 편지 가운데, 그이는 며칠 후 그 배에서 생명을 잃었지만, 다시 한 번 교육에 관한 루소의 교훈을 나한테 권했어요. 나는 새 정신이 뼈에 사무쳐 있어요.」

「부인처럼 나도 광신과 폭정이 두렵습니다. 나는 부인처럼 자유를 사랑하고 있지만, 내 심혼은 무력합니다. 나의 사상은 시시각각 내 자신으로부터 도피하고 있어요. 나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로와 하고 있지요.」 제르맹은 한숨을 쉬었다.

젊은 부인은 대꾸하지 않았다. 한 늙은이가 울타리 문을 밀고서 두 팔을 번쩍 들고 모자를 흔들며 다가왔다. 긴 깃털 머리카락이 그의 벗어진 머릿통 양쪽

으로 늘어져 있었다. 그는 온통 굵은 연사지(燃糸地)옷 차림을 하고 있었다. 양말은 푸른 빛이고, 구두에는 자물장식이 없었다.

「승리다! 승리다!」 그는 소리쳤다.

「괴물이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어요. 내가 그 소식을 전하러 왔소, 소피!」

「저도 방금 재르씨로부터 들었어요. 재르맹씨를 소개합니다. 이 분의 어머니님과 저의 어머니는 앙제에서 살았을 적에 친구였어요. 재르맹씨는 반년 전부터 파리에 와 있는데, 저의 이 은둔처로 이따금 저를 찾아오고 싶답니다. 재르맹씨 저의 친구이며 이웃에 사시는 문학자이신 프랑쇼·드·라 카반씨예요.」

「농부, 니코라·프랑쇼라고 하시오.」

「꼭물거래에 관한 연구 논문에 그렇게 서명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쟁기 보다는 쾨를 더 잘 다루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히 그러시다면 농부 니코라·프랑쇼씨라고 하겠어요.」

늙은이는 재르맹을 얼싸안고 소리쳤다.

「그럼 그렇게도 이성과 미덕을 짓썬어 괴롭히던 그놈의 요새가 함락했던 말이지! 햇빛도 바깥 바람도 쐬지 못하고 내가 여덟 달을 지냈던 그 놈의 감옥이 함락했던 말이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768년 2월 17일, 나는 관용(寬容)에 관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바스티유에 투옥당했소. 드디어 오늘에야 민중이 나의 복수를 해 주었소. 이성과 나는 다

같이 승리했소. 오늘날의 추억은 이 이상이 끝날 때까지 길이 남을 것이요. 일찌기 이파르크가 패망한 것과 타르캥족이 패주하는 것을 보았던 저 태양이여! 굽어 살피시라.」

프랑쇼씨의 쟁쟁 울리는 목소리에, 어머니의 옷을 움켜잡고 있던 애밀은 겁을 먹었다. 별안간에 어린애가 눈에 먼 프랑쇼는 어린애를 번쩍 들어 올리고 열광적으로 말했다.

「이 애야, 우리보다도」 행복하게 너는 자유를 누리며 자랄 것이다!」

그러나 애밀은 겁이 나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영영 울었다. 소피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두 분계선 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해주세요. 환자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만 없다면, 듀베르네이씨도 모시겠어요.」

그녀는 재르맹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시다시피 왕실의 시의(侍醫)인 듀베르네이씨는 파리 성외월 의원 선거인이예요. 그 분이 콩도르세씨처럼, 겸손하게 이 명예를 사퇴하지만 았았다면, 지금 그 분은 국회의원이 되었을 거예요.」

프랑쇼가 덧붙여 말했다.

「젊음이, 난 장·듀베르네이씨를 알고 있소. 그리고 그 분을 빛나게 하는 일화도 알고 있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왕비가 그 분을 불러서 시름시름 았고 있던 태자를 돌보게 했었지. 그때 듀베르네이씨는 새브르에 살고 있었는데, 아침

마다 왕실의 마차가 거기서 와서, 상크루에 있는 앓는 태자 걸로 그 분을 모시고 갔소. 어느 날 마차가 빈채로 성에 돌아왔소. 듀베르네이씨는 오지 않았던 것이요. 다음 날 왕비가 그 분을 문책했소. 「도대체 태자를 잊고 있었던 말이요?」 「마마, 전 태자님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출산하는 농부(農婦) 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 하고 이 군자는 대답했던 말이요.

「정말 그래요! 그게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분이 자랑스럽지 않아요」 소피가 말했다.

「그렇구 말구요. 정말 훌륭해요.」

제르맹이 대답했다.

무게 있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들의 가까이에서 들려 왔다.

「여러분을 몹시 기쁘게 해 드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듣기만 해도 좋군요. 요즈음엔 정말 가찬할 일이 많기도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발을 쓰고, 섬세한 레이스를 두른 앞가슴가리를 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장·듀베르네이였다. 제르맹은 팔레-로아얌의 책방들에서 판화(版畫)로 본적이 있었던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난 베르사이유에서 오는 길이에요. 오늘같이 위대한 날에 당신을 만나게 된 기쁨은 오르레앙 공작의 덕분이요, 소피. 그 분이 나를 상-크루까지 사륜마차로

데려다 줬거든요. 난 나머지 길을 가장 편한 방법으로 왔지요. 걸어왔으니까.」

사실, 그의 은으로 만든 자물장식이 붙은 구두와 까만 양말은 먼지투성이었다.

에밀은 의사의 옷저고리에서 번쩍이는 쇠단추를 작은 두 손으로 만지작 거렸다. 듀베르네이는 에밀을 무릎 위에 끌어안고, 싹터 오르고 있는 어린 마음에서 비치는 광명을 향해서 잠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피는 나뭇을 불렀다. 뚝뚝한 처녀가 나오더니 어린애를 팔에 안아 데리고 가 버렸다. 나뭇의 드높은 키스 소리에 어린애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은 들리지 않았다.

정자 안에 식탁이 준비되었다. 소피는 밀질모자를 버드나무가지에 걸었다. 그녀의 금발 머리에 말린 가닥들이 두 볼 위로 퍼졌다.

「영국식으로 말할 수 없이 간소한 저녁을 잡수시는 거예요」 소피가 말했다.

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는 세느강, 시내의 지붕들, 둥근 지붕들, 종루 등이 보였다. 그들은 마치 파리를 처음으로 보거나 한 것같이, 이 광경을 눈앞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기만 했다. 얼마 후에 그들은 그 날의 사건들, 의회(議會), 머릿수대로 하는 선거, 삼부(성직자, 귀족, 평민) 회의, 내캐르씨의 주방 등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그들 네 사람은 다 같이 자유가 이제 영원히 전취되었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듀베르네이씨는 새로운 체계가 확립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민중에 의해서 선출된 입법자들의 슬기로움을 찬양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온건했으며, 이따금 그의 희망에는 한 가닥의 불안감이 얽혀드는 것 같았다. 니코라·프랑쇼에게는 전혀 이러한 절도가 없었다. 그는 민중의 평화적인 승리와 박애의 시대를 예고했다. 박식한 의사와 젊은 부인이 무어라고 해도 쓸데 없었다.

「싸움은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 싸움의 첫 승리를 거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학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프랑쇼는 대꾸했다. 「이성은 그 전지전능한 지배에 순종하고 있는 인간에게 무슨 복지인들 아낌없이 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인들이 상상했던 황금시대는 현실화할 것이요. 모든 불행은, 그것을 낳았던 광신과 그리고 전체적 폭정과 함께 사라질 것이요. 덕이 있고 지식을 쌓은 인간은 온갖 지복(至福)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뿐이겠어요! 물리학자들과 화학자의 도움으로써 인간은 이 땅 위에서 불사불멸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프랑쇼의 말을 들으며 소피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으시다면 <청춘의 샘>을 찾으세요. 그렇지 못한다면 선생님의 불사불멸은 저

에겐 두려울 뿐이에요.」

늙은 철인은 웃으면서, 기독교의 부활설이 그녀를 더 안심시켜 주느냐고 물었다.

「나로서는,」 그는 잔을 비우고 나서 말했다. 「천사들과 성자들이 부유한 과부들의 합창을 희생하고서라도 처녀들의 합창을 어여뻐 여기는 편으로 기울지 않을까 걱 두렵소.」

젊은 부인은 눈을 들고 차근차근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흠으로 빚어진 가엾은 인간들이 천사의 눈에 어떠한 값어치로 비치는지 알 순 없어요. 그렇지만 전신의 힘이, 선생님 말씀하신 물리학이나 화학의 힘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더 잘, 설령 저승에도 세월의 횡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월의 횡포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신이 하늘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신 프랑쇼씨, 선생님은, 신의 이 땅에로의 강림인 혁명에 대해선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녀는 일어섰다. 벌써 밤이 되어, 멀리 대도시의 불빛들이 별빛처럼 깔려 있었다.

두 늙은이가 정자에서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새에, 재르맹은 소피를 부축하고 두 사람은 컴컴한 정원길을 산책했다. 그녀는 정원 길들의 이름과 내력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우린 지금 애밀의 방으로 통하는 장·자크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 길은 예전에는 곧바른 길이었는데 저 고목 참나무 밑을 지나가도록 하려고 내가 구부려 놓았어요. 이 참나무는 온 종일 내가 <친구들의 휴식>이라, 부르고 있는 저 전원식 벤치에 그늘을 드리워 주고 있어요. 잠깐 이 벤치에 앉읍시다.」

재르맹은 정적 속에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중얼거렸다.

「소피, 당신을 사랑하오.」

그녀는 가만히 손을 빼고서 젊은이에게 미풍에 흔들리는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들려요?」

「있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고, 노래소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르맹! 재르맹! 누가 있을 스치는 바람소리라고 했어요? 우리 두 사람만 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당신 역시,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선 아무 것도 짐작 못하는 숙된 영혼을 지니고 있나요?」

그가 잔뜩 불안스러운 눈짓으로 묻자 그녀는 말했다.

「재르맹씨, 미안하지만 내 방에 올라가 주세요, 탁자 위에 작은 책이 한 권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좀 갖다 주세요……」

그는 순종했다. 그가 자리를 뜨자 젊

은 과부는 줄곧 밤바람에 가늘게 떨고 있는 검은 잎사귀만 바라보고 있었다. 재르맹이 금테두리를 한 작은 책을 가지고 돌아왔다.

「<개스너의 연가> 바로 그 책이에요, 그 책에 표시해 놓은 곳을 열고, 달빛에도 읽을 수 있을만큼 시력이 좋다면 읽어 보세요.」 소피가 말했다.

그는 읽어 내렸다.

<아! 내 영혼은 몇 번이고 와서 그대 주변을 날으리라. 몇 번이고, 고귀하고 숭고한 감정에 넘쳐 그대 호젓이 명상에 잠길 때, 가벼운 숨결은 그대의 불을 스치리라. 그뻬 감미롭고 부드러운 설렘이 그대의 영혼에 스며드리라!>

그녀는 그를 제지했다.

「이제 아시겠어요? 우린 결코 우리만 홀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대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참나무 잎을 스쳐가는 한, 내 귀에는 들어올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것을?」

두 늙은이들의 목소리가 가까와지고 있었다.

「신은 선이요.」 듀베르네이가 말했다.

「신은 악이요. 우린 신을 말살해야 하오.」 프랑쇼가 대꾸했다.

두 늙은이들은 재르맹과 함께 소피와 작별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자유 만세, 임금님 만세>를 부릅시다. 그리고 이웃 선생님, 우리가 죽어야 할 때에 가서 죽지 못하게 방해하지 마세요.」 소피는 그들을 향해서 말했다.

勤  
親  
記



金  
東  
里

균의 어머니는 올해 일흔 두 살이었다. 본래 잔약한 체질인데다 고생을 많이 겪어서, 회갑 전까지는 이렇게 일흔 넘는 수를 하리라고도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것이 회갑을 순순히 치르고 일흔도 넘어 이제 여든 줄에 접어들게끔 되니 그저 요행 같기만 해서, 균의 남매들은 무척 어머니가 놀랍고 장하고 고맙게만 여겨졌다. 이렇게 균의 남매들이 그 어머니의 수가 늘어감을 끔찍이 놀랍게, 장하게, 고맙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은 효성이 있다거나, 또 현재 효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그들이 아직 한 번도 효도다운 효도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편이 옳았다.

(어머니가 예순 다섯까지만 사신대도 내가 마음껏 한 번 모셔보지.)

그의 어머니가 회갑이 되던 해, 균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 그의 나이 열 아홉이었다.

오년.

그러나 허사였다.

(이제 다섯 해만 더 참으시면 내가 힘껏 한 번 모셔보지.)

그 다섯 해가 또 지났다. 그것이 바로 1945년, 저 팔일오의 해방이 되던 해였다.

균의 가슴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환

희로 차게 되었다. 효성 뿐이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문학도 하고, 아아, 그리고 이제야 무엇을 못하랴.

그 해 겨울 굶은 상경하여, 여러 친구들과 상의한 뒤, 이듬해 봄, 그러니까 1946년 2월에 서울로 이사를 왔다. 그때 굶의 큰 형이 부산에 있었으므로 어머니는 우선 큰 형 덕에 가 계시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서울로 모셔오리라고, 굶은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 역까지 전송을 나오신 어머니에게 굶은,

「엄마, 봄 되거든 내 모시러 올게요.」

겨우 이 한 마디를 남기고는 어머니의 얼굴은 거들며 보지도 않고 그냥 획 개찰구를 빠져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봄이 되어 개나리가 피고, 창경원에 벚꽃이 어울어져 피었어도 굶은 어머니를 모셔 올 생각은 커녕, 그만한 여비가 있으면 우선 서울서 쌀을 사고 나뭇개비를 사야 할 형편이었다.

이렇게 한 해 동안을 경황없이 보내고 작년, 1947년 8월에 굶이 신문사의 용무로 잠깐 부산까지 갔을 때엔 어머니는 굶들의 고향인 경주로 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을 뿐이었다.

「너무 편지 안 한다고 어머니이 되령 패썹타크시베.」

큰 형수가 어머니의 의사를 전달하여 간접으로 굶을 꾸짖는 말이었다.

하기야 굶이 부산 역에서 어머니를 작

별하던 때에도 거듭거듭 신신당부하던 것이 바로 그 편지이긴 하였다.

「편지나 자주 해라.」

「……」

「부디 편지만 잊지 말라.」

그러나 그때도 굶은, 어머니에게 편지하겠다는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 편지보다 그 자신이 직접 와 보임과 또 모셔오 가리란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뒤 다시 일년. 굶은 역시 전과 마찬가지로 가 보일 수도, 모셔올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편지 한 장도 역시 올려 보지 못한 채 말았다.

(올해 일흔 두살이라 일흔 다섯까지만 사시면 그 때는 내가 한 번…….)

굶은 이 해에 들어서도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굶의 생각에는 굶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굶이 반드시 한 번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굶의 어머니가 요행히도 이렇게 수를 하게 되는 것은 어찌면 굶으로 하여금 그의 어머니에게 마음껏 한 번 효도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굶의 어머니가 그렇게 독실히 믿으시는 여호와 하느님께서 그 무궁한 은덕을 굶에게까지 베풀어 주시는 게라고, 은근히 믿기도 하며,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하느님을 모시는 어머니가 굶에게는 더욱 고맙고 장하고 거룩하게만 여겨졌던 것이다.

올해는 이른 여름부터 어머니가 경주에서 다시 부산으로 나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굳은 이번엔 기어이 가보이리란 결심을 하였다. 늘 벌르기만 하는 그 본격적인 효도를 실행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생전에 다시 생면조차 어려울 것 같으니, 이제 그 본격적인 효도는 잠깐 연기할 하더라도, 우선 가 보입거나 하리라 생각하고 그것도 마침 당치 동아대학 주최의 「하기 대학강좌」에, 몇 시간의 강의를 약속하여, 강사교통비란 명목하에 약간의 여비를 변통해서야 겨우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천안인가 대전인가에서 호도과자 두 봉지를 사 넣었다. 그러면서도 무언지

몹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기차가 부산 역에 닿았을 때는 오후 여섯시 반 가량 되었는데, 의외로 많은 친구와 동지들이 플랫폼에까지 나와 있었다.

큰형 태은 역에서 꽤 먼 거리에 있었으므로, 굳은 사은 호도과자 봉지를 마중나온 조카에게 들려서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어, 할머니—굳의 어머니—에게 전갈을 하게 하고 굳 자신은 여러 친구와 동지들의 권고대로 우선 가까운 식당에 들러 밥을 들이기로 하였다. 우선 밥을 들인다는 것이 이왕이면 아주 온전장으로 가서 목욕을 하자는 통에 워낙이

모두가 맘을 홀린 뒤요, 특히 균 자신이 피곤도 하던 차이라, 그렇게 한 번 개운한 몸으로 푹 쉬어 보고 싶은 욕망도 있고 하여 한편 마음에 켈리키는 하였지만 여러 사람의 친절을 물리칠 수도 없지 않느냐는 뜻이 그냥 따라나서고 말았다.

「그렇지만 목욕이 있을까?」

자동차가 거의 동태 읍에 들어가려 할 즈음에야 일행중의 박(朴)이 비로소 이런 말을 불쑥 하였다.

옛날 꽃밭같이 전등이 휘황하던 동태 읍도 지금은 다만 새카만 어둠 속에 희미한 등잔불이 여기저기 반딧불처럼 몇 군데 비칠 뿐이었다.

「전등이 이 지경인데 목욕이라니?」

곁에 앉은 윤(尹)의 대꾸였다.

균은 속으로 이미 실망을 하였으나, 절으론 별 관심이 없는 체 하면서,

「자가 발전같은 건 없습니까?」

「없을 걸요.」

역시 박의 대답이었다.

동태에서는 제일 크다는 집엘 들러도 역시 목욕은 없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냉수틀 길어오게 하여, 온천에서 냉수욕을 하였다. 냉수욕을 한 탓인지 이층의 넓은 방도, 서늘한 맥주도 달갑지 않고, 무언지 골장 가슴이 뭉클한 채, 남 물래 췌 지은 사람처럼 외로운 생각이 들기만 하였다.

이튿날은 오전에 강의가 있어 아침밥

을 치르기가 바쁘게 자동차를 몰아 도로 부산으로 들어 왔다. 강당엔 이미 사오백명이나 되어 뵈는 청중들이 강사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정시간에서 약 이십분 가량 지나 있었다.

균은 주최측의 소개 인사가 끝나자 곧 강당으로 올라갔다. 미리 예약한 잡지사 에 기고하기로 되어 있는 원고의 노오트를 내어 놓고 그냥 읽는 편에 가까운 강연이었다. 그렇게 한 시간 남짓 서고 있자니까 그 이상 더 견딜 수 없으리만큼 피곤해졌다.

균은 강의를 다른 날로 미루기로 하고 강당에서 내려왔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물러와서 악수들을 해 주곤 하였다.

한 바탕 악수가 끝나자, 이번엔 또 그들과 같이 점심을 먹게 되어 있었다. 그는 갈증이 몹시 나서 찬 것을 자주 들이켜곤 하였다.

「밥을 좀 드시죠.」

곁에 앉은 윤이 말했다.

그는 밥알을 입에 넣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찬 것이 자꾸 키이는군요.」

균은 어저께부터 가슴이 뭉클한 것은 역시 너무 때문이려니만 생각하고 얼마든지 찬 것에만 손을 대일 뿐이었다.

점심이 끝나고는 또 몇 몇 친구의 특별한 호의로 송도 구경을 가게 되어 있었다.

균은 당황히 겨절을 했다. 무뎠이 나



고 속이 편하지 않다는 구실이었다.

「그렇거야, 어저께부터 출창 쉬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이번엔 시원한 바다 바람이나 쐬자는 거지요.」

그러나 균은 이것이 자기를 위한 그들의 호의에서 나온 계획이요, 권고인 줄은 번연히 알면서도 갑자기 화가 버럭 치밀었다.

「이 근처에 병원 없습니까?」

균은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한참 동안 모두들 잠잠해졌다. 그들은 비로소 균이 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깨달는 모양이었다. 윤이 행길쪽으로 몇 걸음 뛰어가더니 자동차 한 대를 세웠다.

「자, 타십시오.」

윤이 자동차 문을 열어 주며 말했다.

「내일 강의시간 될 때까지 쉬겠습니다.」

균은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모두 미안한 얼굴들을 하고 서 있었다.

균의 큰형의 집은 본래 일인의 주택으로, 이층까지 있는, 여름 한 철은 폐쇄모 있게 지어진, 소위 문화주택이라는 것의 하나였다.

해방 직후 감옥에서 나와, 방 한칸 없이 이리 저리 다니며 가족마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친구들이 딱하다고 해서, 이 지방의 출옥동지회의 이름으로 이 집을 접수하여 큰 형과 가족들을 우선 들게 해 준 것이었다.

자동차가 집 앞에까지 닿았을 때에는 시계가 벌써 오후 세 시나 되어 있었는데, 균은 이제 어머니를 뵈는다는 생각보다도 뒤가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움에 얼른 들어가 쉬었으면 하는 생각만이 앞섰다.

바깥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조카들이 곧 뛰어나오며 인사들을 했다.

「할매 어디 계시노?」

하는, 균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이층에서,

「어얄꼬 되령 목소린가베!」

하는 형수의 목소리가 들리었다.

균은 바로 이층으로 올라갔다. 이층은 큰형의 서재로 되어 있었으나, 그 즈음 형이 마침 지방으로 내려가고 없을 때라 빈 방에 어머니와 형수가 누어 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보자, 얼마나 예했노?」

균의 어머니는 그 주름살 투성이인 얼굴을 균에게로 가까이 가져오며 처음 이렇게 말했다.

「차에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노, 어제 밤엔 참 어디 가 잤능지요?」

이렇게 인사와 힐문을 겹쳐 한꺼번에 묻는 형수도, 올해 쉰 다섯이라는 나이 보다는 훨씬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잠을 못자 그런가베. 저 눈 들어간 거 봐라, 얼른 좀 놀러라 거기.」

하며, 어머니는 자기가 배고 누어 있었

던 듯한 베개를 균에게로 밀어주었다.

「잠은 그렇게 못 자지도 안 했셈이더.」

균이 겨우 한 마디 하자,

「암만 그래도 눕거라, 그만…….」

하고, 어머니는 자꾸 균에게 누우라고만  
우기었고, 형수는 또,

「아이들은, 참 모도 잘 크는지요?」

하고 물었다.

「정월달에 난 것도 벌써 기발하재?」

어머니가 또 겹쳐 묻는다.

「예.」

균의 대답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어머  
니는 또,

「젖은 모자라잖나?」

하고 묻는다.

「그래도 이번진 순한 편이지 아마.」

「아이고 그러니 다행이재.」

하는건 형수요,

「그때 병원에 댕긴다 크던 거는 어떻  
게 됐노?」

하는건 또 어머니다.

「아직도 다닙니다.」

하는, 균의 대답을 듣자,

「아이고 저런 수가 있나!」

먼저, 형수가 혀를 차고 다음엔 어머  
니가,

「늑도 셋째 같은게, 그 많은 식구 거느  
리고 얼마나 등골이 빠지노……그래 놓  
으니 저렇게 눈이 자꾸 들어가는 가베.」

하고, 또 그 주름살 투성이인 얼굴을 균  
에게로 가까이 가져 온다.

「엄마, 인제 그만 좀 누으소.」

균이 외면을 하며 이렇게 말하자,

「내사 지금까지 누어 있었다. 뇌나 얼  
른 좀 눕거라.」

「그래 되령이나 좀 누으소……우리사  
예배당에 갔다와서, 점심먹고 지금까지  
되령 기다리느라고 누어 있었다.」

형수가 균에게 부채질을 해 주며 말  
했다.

「형수 거기 휴지좀 주소.」

「와 번소 갈래, 배 아픈지요?」

균은 그의 형수로부터 휴지를 얻어 쥐  
고 번소로 내려갔다. 설사가 났다. 손도  
씻는둥 마는둥 하고 다시 이층으로 올라  
가니 형수는 좀 걱정스럽게

「설사가 나는가베?」

하였다.

균은 어머니가 아까 밀어주던 그 베개  
를 베고 자리에 누었다. 갑자기 방 안이  
빙 돌았다. 역시 탈이 나는구나 했다.  
어쩌면 꽤 난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  
각이 들곤 하였다. 형수가 사랑물을 좀  
마셔 보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역시 물  
은 켜졌다.

균은 형수의 손에서 사랑물 그릇을 받  
아 마시었다.

「능금 집을 좀 내출까?」

형수가 또 물었다.

균은 손을 내저었다.

「쇠 양을 좀 사다 고아 먹도록 해라.」  
어머니의 말이었다.



균은 또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가 다가 앉으며 손으로 균의 이마를 짚었다.

「이마가 이렇게 뜨겁구나.」

어머니가 혀를 찼다.

균은 또 일어나 변소로 갔다. 먼저보다도 더 심한 설사였다.

이번엔 손도 씻지 않은 채 그냥 이층으로 올라와 누웠다.

두어 시간 동안에 옛날곰 차레나 변소엘 갔다. 그때마다 설사였다. 열이 나고 두통이 심해질 수록 정신도 흐려지게 마련이었다. 그런 중에서도 균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 먹어서 이런가, 아무런 음식을 먹은 것도 없는데……하고 몇 번이나 자기 자신에 되물어 보곤 하였다.

어머니가 벼룩 걱정을 했다. 올해는 유달리도 비가 잦아 벼룩이 몹시 끓는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문득 균의 머리 속에는, 옛날 중학 때 하숙 방에서 벼룩에게 몹시 고생하던 생각이 떠올랐다. 균은 돌연히 일어나 앉으며,

「아 그러면 난 저 밖으로 나가 누울란다.」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저 밖으로」란 것은 이층의 베란다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서재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나무로 난간을 정방형으로, 둘른 방 한 칸만한 노대가 있었던 것이다. 형수는 곧 노대에 돛자리와 요를 깔고 나가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베개와 이부자리도 옮기었다. 미침 보름 무렵이라

거기서는 흰한 달빛이 그대로 이마에 느껴졌다.

의사도 와서 보았다. 속이 너무 차가워진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굶은 어저께 아침을 차 속에서 먹고는 지금까지 거의 찬 것만을 먹다시피 하여 왔다.

구토질이 몹시 나기 시작하였다. 내장이 송두리째 위로 쏟아질 것만같이 뒤를러 오르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머니가 요강을 대어 주었으나 시원스럽게 토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굶은 곧 숨이 넘어갈 듯이 손을 내저으며 그저 몇 번이나 「아이고……아이고!」

하고 소리를 질렀다.

형수가 곁에 와서 등어리를 몇 번 두드려 주었다. 이에 호응하듯 굶은 또 책하고 구토질을 해 보았다. 역시 시큰한 물이 좀 올라 왔을 뿐 아무런 전덕지도 올라오지 않았다. 굶은 냉수로 입을 헹운 뒤, 곧 자리에 쓰러지듯 누웠다. 호흡이 곤란하여 끙끙, 절로 신음 소리가 났다. 그렇게 누운지 3분이 못 되어 또 토해질 것만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책!」하고 이번에는 먼저보다 행결 수월하게 구토질이 나왔다.

역시 대단한 전덕지는 없었으나, 먼저보다 많은 신물과 더러는 밤알도 섞이어나왔다. 그리고는 이내 속이 좀 후련해졌다.

이튿날 밤도 역시 노매에 나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실사는 이미 새벽녘에 텅텅고 저녁 때엔 위장도 정계가 되어, 굶은 가장 편한 마음으로 하늘의 달을 쳐다보고 누어 있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곁에서 쉴 새 없이 찬송가를 부른다, 기도를 올린다 하며, 손으로 굶은의 이마를 짚어 주고 있었다. 일흔이 넘은 늙은 어머니를 이렇게도 괴롭히고 수고를 끼치는 것이 굶은겐 그러나, 송구스럽고 미안한 생각보다 웬 까닭인지 차라리 든든한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몇 번인가 잠결에 눈이 뜨이자 바로 이마 위에 휘인한 달이 있고, 또 곁에 어머니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마다 지나간 어느 소년 시절에 꾸다 둔 꿈을 마치 꾸는 듯한 그러한 행복감조차 느껴지곤 하였다.

「이래 가지고는 오늘 못 떠난다. 하루 더 쉬어 가거라.」

이튿날 새벽, 어머니는 굶은의 손목을 쥐어 보며 이런 말을 했다.

「괜찮은데요,」

굶은 나직하나마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혼자서 혀를 꿀꿀 차더니 일어나 새재 쪽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아래로 내려가 굶은이 떠나기 전에 먹고 갈 새벽 찬을 준비시키려는 모양이었다. 굶은에게도 그만한 것쯤은 곧 짐작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날이 채 새이기 전이라 이렇게 어둑컴컴한때, 이층에서 어떻

계 층계를 내려가시나. 그러다 만약 한 발을 잘못 디디어 실족을 한다면, 층계에서 떨어져서 운명을 하시게나 된다며 아아 이렇게도 무참하고 원통할 노릇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균은 지극히 짧은 동안에 이러한 모든 생각을 한꺼번에 느끼며,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기가 바쁘게, 어머니의 뒤를 쫓았다. 어머니의 한 쪽 팔을 붙잡아 부축을 하거나 등에다 업거나 하고 층계를 내려가리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의 한 쪽 팔을 붙잡을 수도 어머니를 등에 업을 수도 없었다. 어머니는 걸상에 걸터 앉듯 층계에 앉아서 한 층계씩 발을 내려 놓고 손을 내려 짚고, 하며 천천히 몸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균의 입에서는,

(엄마, 내 붙잡고 내려 갈게.)하는 이 한 마디가 나와지지 않았다.

그는 우연히 어머니를 뒤 따라 층계를 내려오게 된 것처럼, 그러면서도, 만약의 경우 혹시 알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 어머니보다 아래 층계에 내려 서서 어머니가 발을 내려놓고, 손을 내려 짚고 하여 한 층계씩 몸을 끌어내릴 때마다 앞서 한 층계씩 그도 내려서곤 하였다.

「벌써 붙을 때이나?」

하고, 어머니는 부엌쪽을 들여다 보는 모양이었다. 균은 할 일 없이 변소엘 잠깐 들렀다가 침을 한 번 뱉고는 곧 이층

으로 도로 올라오고 말았다.

이층에 올라온 균은 조금 전 그가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어머니의 뒤를 쫓아 나갔을 때보다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 버린 듯하였다.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 볼 기회 뿐 아니라, 이제는 모든 희망도 다 사라지듯만 싶었다. 어머니가 실한 꾸리와 사탕가루 한 봉지를 들고 올라와, 그것을 균의 손가방 속에 넣어 주고 있었다.

「경주로 돌아서 갈래?」

「뭘할라고요, 엄마 여짓는데.」

균은 어머니가 여기 있는데 무슨 고향이 따로 있겠느냐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늑이 이렇게 와서 한 번 비주늑 인제 죽을 때까지 못 봐도 되겠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앞 바다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또, 「나도 늑이 아마 한 번은 더 땡겨 가지 싶으드라 내 죽기 전에…….」

이런 말도 했다.

균은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었다. 균이 지금까지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품었던 생각은, 그냥 한 두 번 다녀가고 어찌고 하는 여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땡겨 가는거사 뭐 가끔 땡겨 가지 뭐.」

균은 분이 찬 듯한 목소리로 혼자말 같이 중얼거렸다. 무언지 목이 부뚫해서 전될 수 없었다.

「이거 울 봄에 난 애기 저구리란다.」  
하며, 형수가 신문지에 쓴 것을 들고  
올라 왔다. 형수의 말 뜻으로 보아 질부  
가 주는 것인 모양이었다.

「그런 거 자꾸 넣지 마소.」

균은 성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와 동시에 균은 웬 까닭인지 자꾸만  
성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손 가방을 뺏어 들고 그냥 층계를 뛰어  
내려가 버리고 싶은 충동을 누르느라고  
그는 할 일 없어 또 변소에나마 다녀와  
야 하였다.

어머니와 형수도 전차 정류장까지는  
기어코 따라나올 모양이었다. 균은 한  
순간이라도 속히 어머니에게서 떠나고만  
싶었다.

「엄마 그만 나오지 마소.」

균은 문 밖에 나서며 이렇게 하직인사  
를 했다.

「오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그  
냥 전차 정류소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번에는 전번에와 같이 편지를 자주  
하라는 등 또 언제나 다녀가게 되겠냐  
는 등 하는 당부도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균과 그의 조카들은 어머니와 형수보  
다 한 스루나문 걸음이나 앞서 전차 정

류소에 닿았다. 그리하여 마침 전차가  
와 닿아 있기에 어머니와 형수에게는 따  
르 하직도 없이, 그냥 전차에 오르고 말  
았다.

어머니는 전차 속에 들어 있는 균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막  
연히 전차의 창문 쪽을 바라보고만 서 있  
었다. 하얗게 셀 머리, 주름살 투성이인  
얼굴, 조그마한 몸집, 대체로 이것이 마  
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처음  
부터 균의 가슴 속에도 들어 있었기 때  
문에 그러한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직을  
해야 될는지 알 수 없었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균의 눈  
에는 물론 어머니가 잘 보였다. 그리  
나 어머니 쪽에서는 균의 얼굴을 꼭 보  
려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냥 균에게  
나 한 번 더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 직  
감적으로 느껴졌다.

(그래도 송장보다는 날게다. 한 번 더  
보아줘라.)

어머니의 얼굴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도 균은  
창문에서 시선을 돌이지 않았다. 그렇  
다고 해서 그의 흐려진 눈에 어머니나  
조카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  
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공군교재창
편집실전화:	829-3511, 호-5241
인쇄:	1979년 5월 25일
발행:	1979년 5월 31일

나는 어떤時機나, 또는 어떤場所에서나, 또는 어떠한 수준에서든, 南北韓 당국이 서로 만나 아무 전제 조건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韓半島에서 동족상잔을 막고 五千萬 民族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平和的으로 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諸般問題, 다시 말해서 그동안 南北韓이 提示해 온 모든 分野의 問題를 직접 논의하기 위해 對話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北韓當局은 나의 이 提議를 民族的 念願에 부응하여 수락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朴正熙 大統領의 年頭記者會見에서 (79. 1. 19) —



### 空軍의 決意

하나 : 나는 목숨바쳐 領空을 守護한다.

둘 : 나는 一擊에 北傀軍을 沒殺한다.

셋 : 나는 期必코 責任을 完遂한다.

넷 : 나는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다섯 : 나는 維新課業 遂行에 선봉이 된다.

